

북구향토문화자료 총서②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1)

조강봉



북구향토문화자료 총서②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1)

조 강 봉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목차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1)



발간사 / 축사	4
Ⅰ. 머리말	8
Ⅱ. 광주 북구 연혁	12
Ⅲ. 광주 북구 행정구역의 유래와 어원	20
1. 광주(光州)의 면이름	22
2. 1912년 / 1914년 개편 면이름	24
3. 광주 북구 면이름의 유래와 어원	27
경양면(景陽面), 서양면(瑞陽面), 서방면(瑞坊面)	
효죽동(孝竹洞), 황계면(黃界面), 삼소지면(三所旨面)	
와지리(蛙只里), 우치면(牛峙面), 상대곡면(上大谷面)	
석보리(石保里)·석저면(石底面), 이변보리(兪卞保里)·갑마보면(甲馬保面)	
Ⅳ. 광주 북구 마을 이름의 유래와 어원	48
1. 중흥동(中興洞)	50
2. 중앙동(中央洞)	63
1) 북동(北洞), 2) 누문동(樓門洞), 3) 유동(柳洞)	
3. 임동(林洞)	79





4. 신안동(新安洞)	84
5. 용봉동(龍鳳洞)	92
6. 운암동(雲巖洞)	106
7. 동림동(東林洞)	116
8. 우산동(牛山洞)	124
9. 풍향동(豐鄉洞)	141
10. 문화동(文化洞)	155
1) 각화동(角化洞)	156
11. 문흥동(文興洞)	161
12. 두암동(斗巖洞)	171
13. 삼각동(三角洞)	179
14. 매곡동(梅谷洞)	186
15. 오치동(悟峙洞)	200
16. 일곡동(日谷洞)	209
17. 양산동(陽山洞)	215
V. 맺는말	222
참고문헌	226



발간사



오 동 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장

가끔 타지에서 복구를 찾는 지인들에게 오래된 마을과 계산 풍류의 선비 정신이 흐르는 가사문화권의 정자들을 안내할 경우가 있다. 어느 방향으로든 무등산을 바라보며 찾아오면 들어 설 수 있는 곳인데도 도심의 외곽처럼 느껴지는 복구의 마을들. 그렇지만 복구의 유서 깊은 동네와 문화유적지 등을 지명 유래와 연관 지어 둘러보면 그곳을 살았던 선조들의 숨겨진 품위와 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복구의 지명유래를 살피고 그 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사를 유추하여 정리 보전하는 것은 우리 시대 현재적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는 소중한 콘텐츠인 기록 유산의 보물창고를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진 복구 경양면의 지명 유래를 살피면 경양면의 경양(景陽)은 경양(景陽)방죽으로부터 유래했다. 경양(景陽)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계림1동)에 있었던 저수지로 조선 세종 22년(1440)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김방(金倣)이 세종의 중농정책을 받들어 광주지역 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년의 공사 기간에 완공했고, 규모는 대략 15 헥타르, 수심은 10m에 달했으므로 규모로 볼 때 호남 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으며, 방죽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었고 호수의 주변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 왕버드나무, 귀목나무 고목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그러면 경양(景陽)은 어떤 연유로 붙였을까? 『동국여지비고』 궁궐조를 보면 “성종이 대제학 서거정에게 명하여 이름을 지어 달게 하였다. 궁밖의 동쪽 담 문을 선인문(宣仁門), 동쪽 담 문을 경양문(景陽門), 새 대문을 장춘문(長春門), 가운데 문을 선명문(宣明門), 남쪽 헐문을 춘흥문(春興門)...” 이라 했다. 이를 보면 경양(景陽)은 광주읍성의 동편에 자리한 경양방죽의 동쪽에 위치했음을 볼 때 경(景)은 ‘별’, ‘태양’, ‘아름답다’를 뜻하고, 양(陽)도 ‘별’, ‘태양’을 뜻하므로 이는 모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관련이 깊은데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이름다운 호수’라는 의미에서 붙인 지명이다 는 설명이 나온다.

세계 대도시들의 중심부는 대부분 노후 되고 사람들은 신도심으로 떠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래된 공간들이 낡은 겉모습을 그대로 둔 채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세계 최고의 브랜드 업체들이 입점하는 등 전혀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되고 있다. 빌딩, 자동차, 도로 등의 외형적 도시 팽창을 위한 개발 논

리 보다 사람, 자연, 문화 등 도시의 원래 주인이 제자리를 찾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 ‘에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심의 새 명소를 만들어 갈 때도 옛 지명 유래를 살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대체로 유명하거나 특징적인 건물 등 보여 지는 실체가 분명한 조형물을 의미하지만 퓨처마크는 건물이나 장소를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나 서비스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소가 변하는 것이라기보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오래된 마을의 지명을 거슬러 올라 그곳에 있었던 풍광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현하고 해설을 붙인 감성의 공간을 만든다면 그곳은 도시를 살리는 퓨처마크의 공간이 될 것이다. 또 도시 공간의 재미는 ‘길’이다. 다양한 눈요깃거리가 있는 길들에 숨겨진 도로명과 옛 이야기를 따라 복구의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면 그 행복한 호기심은 이곳을 사는 복구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것이다. 모든 길의 지향성은 세계적이며 모든 길의 숙명은 역사적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린다.

역사시대의 광주는 마한으로부터 시작된다. 마한의 지역은 경기와 충청, 전라도 일대로 설명할 수 있다. 3세기 말엽 중국의 촉나라 사람인 진수(陳壽, 233 ~ 297)가 편찬한 삼국지의 위지동이전한조(魏誌東夷傳韓條)에는 마한 지역에 속하는 54개국의 명칭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집단이 광주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중심을 이루며 생활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주가 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동성왕(東城王) 20년(498)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라가 공부(貢賦)를 잘 닦지 않으므로 동성왕이 친정(親征)에 나서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는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함으로 이를 중지하였다.”

이 기록은 백제시대에 광주는 무진주로 불렸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지역이 탐라의 조공을 거둬들이는 경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왕 당시에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광주는 백제의 중요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호남의 중심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의 지명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광주(光州)→해양(海陽)→익주→광주→무진(茂珍)→광주의 순으로 변천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광주’의 명칭으로 되돌아 왔다.

이같이 지명 유래를 통해서 변화무쌍한 옛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 교통 기후 교육 종교 언어생활까지도 살펴 볼 수 있다. 지명 유래야 말로 참으로 귀중한 지역문화와 광주학 컨텐츠의 보고라 생각된다. 끝으로 책자가 발간 될 수 있도록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집필해준 조강봉 위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축사



문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우리 지역의 다양한 지명의 유래와 어원을 연구한 향토 지명 유래 조사지 <광주 복구 마을 이름의 유래와 어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명은 단순한 장소의 이름을 넘어 그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광주 복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지역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주민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명에 얽힌 이야기와 숨은 의미를 되찾는 작업은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에 큰 자긍심을 안겨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지역민이 삶의 터전인 동네의 이름과 그 의미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키움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소중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광주 복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복구 문화원 오동오 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구의 향토 역사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 복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최 무 송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최무송입니다.

북구 역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무등산과 영산강 문화권에 거주했던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경제개발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간되는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마을의 유래와 조상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교육자료이자 향토문화자료로서 지역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명은 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의 발간을 통해 우리가 무심결에 부르고 사용하는 지명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됨으로서 나와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을 더욱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구 관내 동명과 마을명, 산명, 하천명 등 다양한 지명의 유래와 어원을 꼼꼼하게 조사하며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북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 발간을 축하드리며, 북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머리말



I. 머리말

우리가 어떤 지명을 듣게 되면 왠지 그 속에는 많은 역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지명이 인류가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불려온 매우 오래된 언어 문화재로서 그 속에는 선인들의 생활과 문화가 스며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모르고서는 옛 지명을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지금의 젊은 사람이나 후생들은 옛사람들의 생활을 모르면 우리 지명을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1970년대부터 지명 연구 과정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보았던 자연환경이 그 해독에 적잖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넓은 도로가 놓이지 않았다. 대부분 지게로 집을 옮겼기에 달구지가 다닐 수 있는 좁은 소릿길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겪었던 일차적 불편은 냇물과 도랑이었다. 당시에는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랑은 구불구불하고 수초가 많아 항상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 이런 크고 작은 물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랑 양쪽에 긴 나무토막이나 두 갈래로 벌어진 통나무를 걸쳐 놓은 방아다리나 널판자를 걸쳐 놓고 건너 다녔다. 그렇지 않고 더 넓은 도랑은 방아다리나 널빤지를 놓을 수 없는 곳은 도랑 양쪽이 좁은 곳까지 멀리 돌아가서 건널 수밖에 없었다. 또 얇은 냇물은 진흙 뗏장을 걸쳐 놓은 진흙다리를 딛고 건넜다. 이러한 옛사람들의 생활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서 지어지고 불렸던 지명들을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옛 지명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말로 지어지고 불려온 것들이다. 표기할 문자가 없었던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했다. 지명의 재료는 언어다. 그러므로 지명의 해독은 언어의 변화규칙을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지명의 해독은 주로 지역 어르신들

의 증언이나 풍수설, 한자의 자의(字義)에 따른 해석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군지(郡誌)나 마을유래지에 실린 유래들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들려준 민간어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명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 풍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로 표기된 지명은 한자의 음과 훈을 무시할 수 없고, 지명이 작명될 당시의 생활문화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옛 선인들의 살았던 자연환경이나 생활문화가 지명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축적된 국어학의 제반 이론과 인접학문인 역사학, 지리학, 풍수학 등의 도움을 받는 융·복합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동명과 마을 명의 유래와 어원을 기존의 연구성과와 『한국지명총람』에 실린 동일 어형의 지명유래와 국어학 이론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 문화 등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지명의 해독에는 왕도는 없다. 지명은 오래전에 형성되었던 것이므로 천천히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껍질씩 벗겨 나간다면 언젠가는 완벽한 해독에 이를 것이다. 독자(讀者) 제현(諸賢)의 질정(叱正)을 바란다. 본 연구에서 출전을 밝히지 않은 지명 자료는 『한국지명총람』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동 연혁의 자료는 『광주동연혁지』의 자료임을 밝힌다. 또한 광주 북구 각 동별 연혁은 『호구총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한국지명총람』 자료를 활용했으며 광복 이후의 연혁은 향토문화진흥원 편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는 1990년까지만 수록되었기에 1990년도 이후의 연혁은 북구청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의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II

광주 복구 연혁



II. 광주 복구 연혁

- 1910년~1930년대 (일제강점기) -

- 1910년 9월 30일 도관찰부를 도장관으로 바꾸고, 관찰부를 도청이라 고쳤다.
-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치·갈전면을 담양군에 이양하고, 함평군 오산면(현 임곡)을 광주에 편입, 15면 152법정리를 관할하였다.
- 1931년 4월 1일 읍·면제 시행에 따라 광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 1935년 10월 1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고치고,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 독립하므로 지금의 보통시가 되었다.

- 1940년대 -

- 1946년 4월 5일 41정을 47정으로 고침 (광주민보 1946년 3월 13일자)
- 1947년 8월 15일 정을 동으로 개칭(도령 제7호)
-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를 광주시로 개칭(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 1950년대 -

- 1955년 7월 1일 서방면 전역과 극락면의 운암·동림리, 석곡면의화암·청풍리, 망월면의 장등·운정리가 광주시에 편입(1955년 6월 29일, 법률 제361호)
- 1957년 11월 6일 석곡면 일부와 담양면 남면의 충의·충효·금곡리가 광주시에 편입(1957년 11월 6일, 법률 제454호)
- 1957년 12월 2일 북구지역에 석곡출장소(충효·청옥·장운동)와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설치

- 1960년대 -

- 1961년 3월 10일 석곡출장소와 효죽·문화·서산동을 포함하여 북부출장소 설치
- 1966년 1월 8일 효죽동에서 중흥동 분동 (시조례 제210호)

- 1970년대 -

- 1970년 6월 29일 효죽동을 우산동으로 개칭 (시조례 제348호)70년 01월 01일 효죽동에서 풍향동 분동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북구지역이 동구와 서구로 분할(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4호)
- 1979년 1월 1일 중흥동을 중흥 1동과 중흥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844호)
- 1979년 5월 1일 풍향동을 풍향1동과 2동으로 분동 (시조례 제866호)
- 1979년 9월 26일 북구설치 공포(대통령령 제9630호)

- 1980년대 -

- 1980년 4월 1일 북구청 개청(북구 중흥동 701-10번지)10課, 33係, 19洞- 동구지역이었던 중흥1동, 중흥2동, 석곡출장소(우산동, 풍향1동, 풍향2동,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지산출장소(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와 서구지역이었던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석곡, 지산출장소 폐지 (시조례 제944호)
- 1982년 9월 1일 중흥2동을 중흥2·3동으로 분동. 동운동을 동운1·2동으로 분동 (시조례 제1147호)
- 1983년 1월 4일 북구청사 이전 (북구 운암동 94-7번지)
- 1983년 2월 15일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부를 북구 오룡동으로 편입 (대통령령 제 11027호)
- 1983년 10월 1일 태봉동을 신안동과 용봉동으로 분동
- 1985년 9월 23일 북구청사 이전(용봉동 239-2번지)
- 1985년 11월 1일 문화동을 문화동과 두암동으로 분동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 (1986년 5월 8일, 법률 제3808호)
- 1988년 5월 1일 북구가 자치구로 개청 (2국 2실 13과 1사업소 23동)
- 1989년 5월 15일 두암동을 두암1·2동으로 분동

- 1990년대 -

- 1991년 4월 15일 북구의회 개원(의회사무국 신설)
- 1993년 12월 1일 동운1동 → 동운1·3동으로 분동
- 1995년 1월 1일 광주직할시 → 광주광역시로 명칭 변경(법률 제4,789호 1994. 12. 공포)
- 1995년 3월 1일 문화동을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분동
두암1동을 두암1·3동으로 분동
- 1996년 1월 9일 문흥동을 문흥1·2동으로 분동
- 1997년 3월 1일 유동, 누문동, 북동 → 중앙동
풍향1동, 풍향2동 → 풍향
동운3동 → 운암3동, 동림동
서산동 → 서산동, 매곡동
오치동 → 오치1동, 오치2동
동운1동 → 운암1동
동운2동 → 운암2동
- 1998년 9월 21일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 석곡동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 건국동

- 2000년대 -

- 2003년 7월 7일 서산동 → 삼각동, 일곡동으로 분동
- 2003년 11월 25일 법정동간 경계조정 - 양산동 일부 → 연제동 편입

- 2004년 1월 10일 구간 경계조정
 서구 광천동 일부 → 운암동 편입
 서구 유촌동 일부 → 동림동 편입
 서구 쌍촌동 일부 → 동림동 편입
 동림동 일부 → 광산구 신창동 편입
- 2005년 2월 18일 법정동간 경계조정 - 매곡동 일부 → 용봉동 편입
- 2006년 2월 10일 법정동간 경계조정 - 동림동 일부 → 운암1동 편입
- 2009년 8월 4일 법정동간 경계조정 - 동림동 일부 → 운암3동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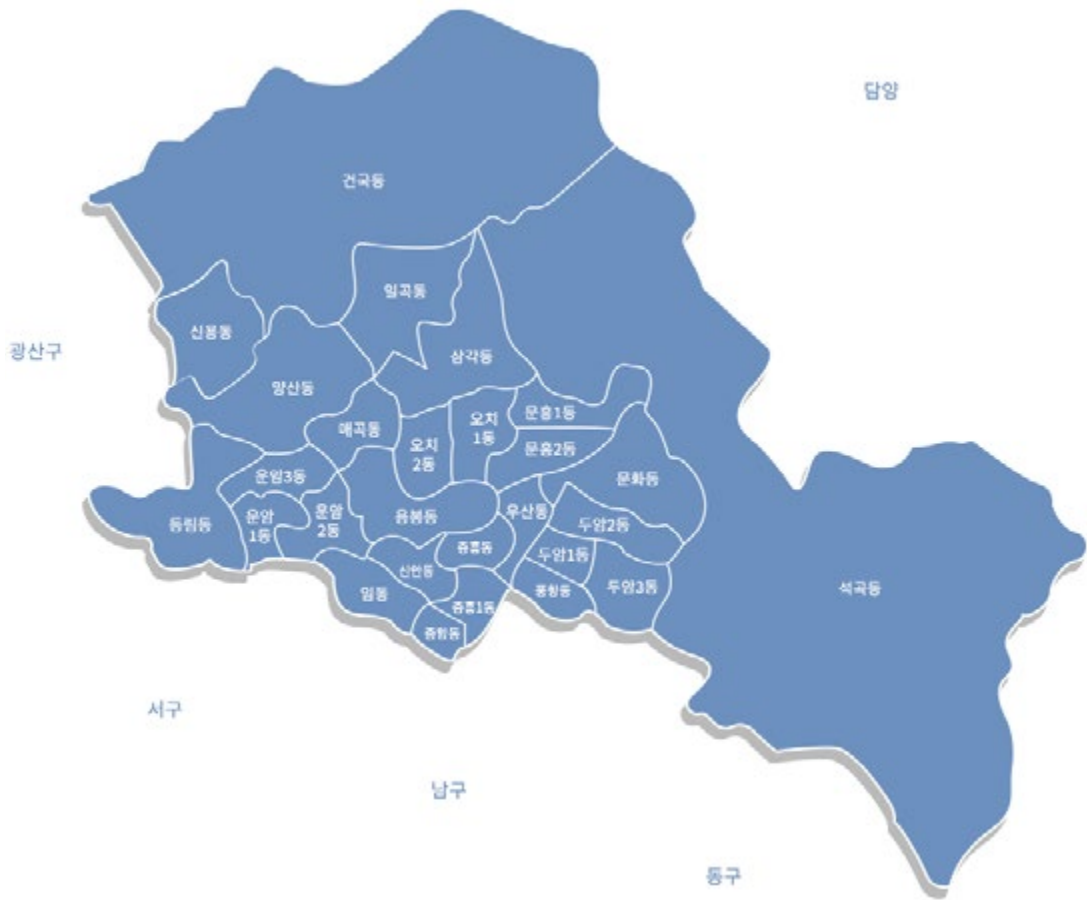
- 2010년대 -

- 2011년 10월 1일 구간 경계조정
 중흥동 일부 → 동구 계림동 편입
 우산동 일부 → 동구 계림동 편입
 풍향동 일부 → 동구 계림동 편입
 두암동 일부 → 동구 산수동 편입
 운암동 일부 → 서구 동천동 편입
 동림동 일부 → 서구 동천동 편입
 동구 산수동 일부 → 풍향동 편입
 서구 광천동 일부 → 임동 편입
- 2013년 3월 18일 건국동 → 건국동, 양산동으로 분동

- 2020년대 -

- 2020년 2월 25일 구민의 날 개정
- 2020년 7월 27일 건국동 → 건국동, 신용동으로 분동

- 광주 북구 지도 (행정구역)



출처 : 광주 북구청홈페이지

III

광주 복구 행정구역의 유래와 어원

1. 광주(光州)의 면이름
2. 1912년 / 1914년 개편 면이름
3. 광주 복구 면이름의 유래와 어원



Ⅲ. 광주 복구 행정구역의 유래와 어원

1. 광주(光州)의 면이름

『호구총수』(1789) ¹⁾ 光州郡 (괄호 안은 마을 수)	『대동지지』(1894) ²⁾ 光州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³⁾
1. 東面 석보리(石保里)(11)	석보(石保)	석저면(石低面)
2. 東面 상대곡리(上大谷里)(3)	상대곡(上大谷)	상대곡면(上大谷面)
3. 東面 우치리(牛峙里)(22)	우치(牛峙)	우치면(牛峙面)
4. 東面 하대곡리(下大谷里)(3)	하대곡(下大谷)	하대곡면(下大谷面)
5. 東面 와지리(蛙只里)(17)	오치(梧峙)	오치면(梧峙面)
6. 東面 대참리(大站里)(15)	대치(大峙)	대치면(大峙面)
7. 東面 갈전리(葛田里)(14)	갈전(葛田)	갈전면(葛田面)
8. 東面 삼소지리(三所旨里)(11)	왕소지(王所旨)	삼소지면(三所旨面)
9. 東面 이변보리(兪卞保里)(9)	미십보(彌十保)	갑마보면(甲馬保面)
10. 東面 석제리(石堤里)(6)	석제(石堤)	석제면(石堤面)
11. 東面 천곡리(泉谷里)(11)	천곡(泉谷)	천곡면(泉谷面)
12. 東面 거치리(巨峙里)(9)	거치(巨峙)	거치면(巨峙面)
13. 東面 소고룡리(召古龍里)(18)	소고룡(召古龍)	소고룡면(召古龍面)
14. 東面 흑석리(黑石里)(7)	흑석(黑石)	흑석면(黑石面)
15. 東面 마지리(馬池里)(13)	마지(馬池)	마지면(馬池面)

1) 규장각 자료총서,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영인본)

2) 원본영인 김정호 『대동지지』(全), 한양대학교 부설국학연구원, 1976.

3)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태학사, 1985.(영인본)

『호구총수』(1789) ¹⁾ 光州郡 (괄호 안은 마을 수)	『대동지지』(1894) ²⁾ 光州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³⁾
16. 東面 황계리(黃界里)(5)	황계(黃界)	황계면(黃界面)
17. 東面 편방리(片坊里)(9)	편방(片坊)	두방면(斗坊面)
18. 東面 경양리(景陽里)(4)	경양(景陽)	서양면(瑞陽面)
19. 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8)	기례(奇禮)	기례방면(奇禮坊面)
20. 東面 성내리(城內里)(5)	성내(城內)	성내면(城內面)
21. 西面 옹정리(瓮井里)(12)	도천(陶泉)	도천면(陶泉面)
22. 西面 효우동(孝友洞里)(15)	효우동(孝友洞)	효우동(孝友洞面)
23. 西面 유등곡리(柳等谷里)(19)	유등곡(柳等谷)	유등곡면(柳等谷面)
24. 西面 대지리(大枝里)(9)	대지(大枝面)	대지면(大枝面)
25. 西面 칠석리(漆石里)(7)	칠석(漆石)	칠석면(漆石面)
26. 西面 계촌리(界村里)(7)	계촌(桂村)	계촌면(桂村面)
27. 西面 방하동리(方下洞里)(16)	방하동(方下洞)	방하동면(方下洞面)
28. 西面 동각리(東角里)(14)	동각(東角)	동각면(東角面)
29. 西面 마곡리(馬谷里)(7)	마곡(馬谷)	마곡면(馬谷面)
30. 西面 고내상리(古內廂里)(8)	고내상(古內廂)	고내상면(古內廂面)
31. 西面 소지리(所旨里)(20)	소지(所旨)	소지면(所旨面)
32. 西面 독산리(秃山里)(5)	독산(秃山)	우산면(牛山面)
33. 西面 와곡리(瓦谷里)(7)	와곡(瓦谷)	와곡면(瓦谷面)
34. 西面 선도리(船道里)(6)	홍도(缸道)	선도면(船道面)
35. 西面 당부리(當夫里)(10)	당부(當夫)	당부면(當夫面)
36. 西面 내정리(內丁里)(3)	내정(內丁)	내정면(內丁面)
37. 西面 덕산리(德山里)(2)	덕산(德山)	덕산면(德山面)
38. 西面 군분리(軍盆里)(12)	군분(軍盆)	군분면(軍盆面)
39. 西面 지한리(池漢里)(15)	지한(池漢)	지한면(池漢面)

『호구총수』(1789) ¹⁾ 光州郡 (괄호 안은 마을 수)	『대동지지』(1894) ²⁾ 光州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³⁾
40. 西面 부동방리(不動防里)(20)	부동(不動)	부동방면(不動防面)
41. 西面 공수방리(公須坊里)(4)	공수(公須) 웅정(瓮井) ⁴⁾ 지동(池洞) 부산(釜山)	공수방면(公須坊面)

2. 1912년 / 1914년 개편 면이름

『호구총수』(1789)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4) ⁵⁾
1. 東面 석보리(石保里)	석저면(石低面)	석곡면(石谷面)
2. 東面 상대곡리(上大谷里)	상대곡면(上大谷面)	
4. 東面 하대곡리(下大谷里)	하대곡면(下大谷面)	
6. 東面 대참리(大站里)	대치면(大峙面)	담양군 대전면(大田面)
7. 東面 갈전리(芻田里)	갈전면(葛田面)	
8. 東面 삼소지리(三所旨里)	삼소지면(三所旨面)	본촌면(本村面)
9. 東面 이변보리(兪卞保里)	갑마보면(甲馬保面)	
10. 東面 석제리(石堤里)	석제면(石堤面)	
13. 東面 소고룡리(召古龍里)	소고룡면(召古龍面)	임곡면(林谷面)
11. 東面 천곡리(泉谷里)	천곡면(泉谷面)	비아면(飛鵝面)
15. 東面 마지리(馬池里)	마지면(馬池面)	

4) 『대동지지』에는 『호구총수』에 비해 웅정(瓮井), 지동(池洞), 부산(釜山)이 더 많지만 후속된 실체가 없는 것을 보면 무언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5) 월지유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4), 태학사, 1997.(영인본)

『호구총수』(1789)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4) ⁵⁾
5. 東面 와지리(蛙只里)	오치면(梧峙面)	서방면(瑞坊面)
17. 東面 편방리(片坊里)	두방면(斗坊面)	
18. 東面 경양리(景陽里)	서양면(瑞陽面)	
19. 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	기례방면(奇禮坊面)	광주면(光州面)
20. 東面 성내리(城內里)	성내면(城內面)	
21. 西面 옹정리(瓮井里)	도천면(陶泉面)	효천면(孝泉面)
22. 西面 효우동(孝友洞里)	효우동면(孝友洞面)	
23. 西面 유등곡리(柳等谷里)	유등곡면(柳等谷面)	대촌면(大村面)
24. 西面 대지리(大枝里)	대지면(大枝面)	
25. 西面 칠석리(漆石里)	칠석면(漆石面)	
26. 西面 계촌리(界村里)	계촌면(桂村面)	
28. 西面 동각리(東角里)	동각면(東角面)	동곡면(東谷面)
29. 西面 마곡리(馬谷里)	마곡면(馬谷面)	
30. 西面 고내상리(古內廂里)	고내상면(古內廂面)	송정면(松汀面)
31. 西面 소지리(所旨里)	소지면(所旨面)	
32. 西面 독산리(禿山里)	우산면(牛山面)	
12. 東面 거치리(巨峙里)	거치면(巨峙面)	하남면(河南面)
14. 東面 흑석리(黑石里)	흑석면(黑石面)	
33. 西面 와곡리(瓦谷里)	와곡면(瓦谷面)	
27. 西面 방하동리(方下洞里)	방하동면(方下洞面)	서창면(西倉面)
34. 西面 선도리(船道里)	선도면(船道面)	
35. 西面 당부리(當夫里)	당부면(當夫面)	
16. 東面 황계리(黃界里)	황계면(黃界面)	극락면(極樂面)
36. 西面 내정리(內丁里)	내정면(內丁面)	
37. 西面 덕산리(德山里)	덕산면(德山面)	
38. 西面 군분리(軍盆里)	군분면(軍盆面)	

『호구총수』(1789)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4) ⁵⁾
39. 西面 지한리(池漢里)	지한면(池漢面)	지한면(池漢面)
40. 西面 부동방리(不動防里)	부동방면(不動防面)	광주면(光州面)
41. 西面 공수방리(公須坊里)	공수방면(公須坊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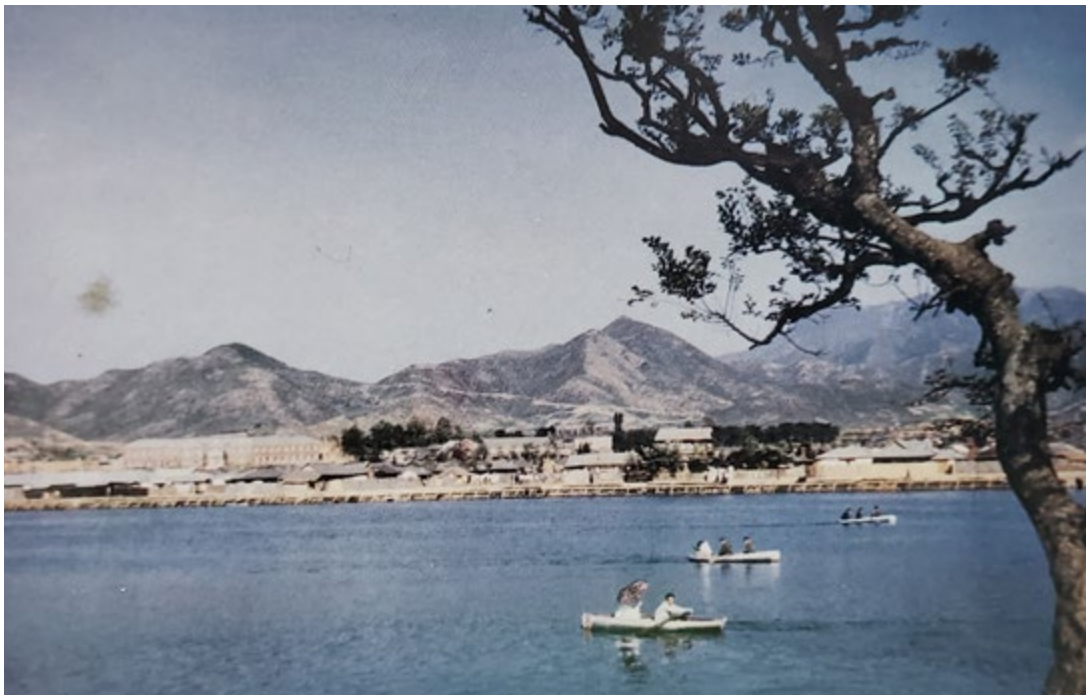
『호구총수』는 규장각에서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하여 1789년에 간행한 관찬서이다. 위 표1를 보면 『호구총수』(1789) 광주면에는 동면 20면, 서면 21면이 있다. 『호구총수』(1789)와 『대동지지』(1894)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을 비교하면 시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달라진 지명을 볼 수 있다.

	『호구총수』	『대동지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	석보리(石保里)	석보(石保)	석저면(石底面)
6	대참리(大站里)	대치리(大峙里)	대치리(大峙里)
8	삼소지리(三所旨里)	왕소지(王所旨)	삼소지면(三所旨面)
9	이변보리(兪卞保里)	미십보(彌十保)	갑마보면(甲馬保面)
17	편방(片坊)	편방(片坊)	두방면(斗坊面)
18	경양(景陽)	경양(景陽)	서양면(瑞陽面)
32	독산(禿山)	독산(禿山)	우산면(牛山面)
34	선도리(船道里)	홍도(紅道)	선도면(船道面)

3. 광주 복구 면이름의 유래와 어원

▣ 경양면(景陽面)

경양면(景陽面)은 1789년 『호구총수』에 광주 동면(東面) 20리 중에 경양리(景陽里)라 하여 상촌(上村), 중촌(中村), 평촌(坪村)을 관할 하였는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호구총수』의 광주 동면(東面) 20리가 모두 면(面)으로 바뀌었는데 경양리(景陽里)는 이름이 서양면(瑞景面)으로 바뀌었고 관할하는 마을은 병문리(屏門里), 계천리(溪川里), 대가리(大街里),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효죽리(孝竹里), 신흥리(新興里), 치동리(峙洞里), 관가리(官街里)라 하여 경양리(景陽里)라는 마을은 볼 수 없다. 그러나 1895년 작성된 『구한국한반도지형도』에는 경양(景陽)이라는 마을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며, 국토정보맵(1910년대)에는 경양(景陽)은 볼 수 없고 중흥리(中興里)라 했고, 경양(景陽)방죽은 연지(蓮池)로 바뀌어 있다.



경양방죽<출전:사진으로본 광주100년>

경양(景陽)은 경양(景陽)방죽으로부터 유래했다. 박선흥⁶⁾에 의하면 경양(景陽)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계림1동)에 있었던 저수지로 조선 세종 22년(1440)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김방(金倣)이 세종의 중농정책을 받들어 광주지역 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년의 공사 기간에 완공했고, 규모는 대략 15 헥타르, 수심은 10m에 달했으므로 규모로 볼 때 호남 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으며, 방죽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었고 호수의 주변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 왕버드나무, 귀목나무 고목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1940~5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로 여름에는 피서객들의 뱃놀이 장소였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탔던 명소였는데, 8.15 광복 이후 광주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1950년대에 늘어난 광주 인구로 인해 오염이 심해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수질은 악화됨에 1966년, 광주시는 남은 경양방죽마저 매립을 결정하고 태봉산을 헐어 그 흙으로 경양방죽은 매립되었다 했다. 경양방죽이 메워진 자리에는 1969년 광주시청을 지어 이전하였으며, 2004년 광주광역시청이 다시 상무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빈 건물은 철거되고 지금의 홈플러스 계림점이 들어서 있다.⁷⁾

그러면 경양(景陽)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동국여지비고』 궁궐조를 보면 “성종이 대제학 서거정에게 명하여 이름을 지어 달게 하였다. 궁밖의 동쪽 담 문을 선인문(宣仁門), 동쪽 담 문을 경양문(景陽門), 새 대문을 장춘문(長春門), 가운데 문을 선명문(宣明門), 남쪽 협문을 춘흥문(春興門)…”이라 했다. 이를 보면 경양(景陽)은 광주읍성의 동편에 자리한 경양방죽의 동쪽에 위치했음을 볼 때 경(景)은 ‘별’, ‘태양’, ‘아름답다’를 뜻하고, 양(陽)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서방면(瑞坊面)

6) 박선흥, 『광주1백년②』, 금호문화, 1994. 232쪽

7) 인터넷 나무위키(<https://namu.wiki/>, 2023. 5. 13. 접속)에서

도 ‘별’ ‘태양’을 뜻하므로 이는 모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관련이 깊은데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이름다운 호수’라는 의미에서 불린 지명이 아닐까 한다.

▣ 서양면(瑞陽面)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은 동면(東面)이 20리(里), 서면(西面)이 21리(里), 도합 41 개리(里)였는데 그 중 동면(東面) 경양리(景陽里)는 상촌(商村), 갑촌(甲村), 평촌(坪村)을 관할 했다. 이 경양리(景陽里)는 지금의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경양(景陽) 방죽에서 유래했다. 이후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경양리(景陽里)는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으로 바뀌었는데 병문리(屏門里), 계천리(溪川里), 대



풍향동(1965년) (출처_광주100년)

가리(大街里), 모릉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효죽리(孝竹里), 신흥리(新興里), 치동리(峙洞里), 관가리(官街里)를 관할했다.

광주(光州)는 백제 때 무진주(武珍州), 무주(武州)라 하였고, 고려 때는 광주(光州)라 불렀고 그 진산(鎭山)은 무진악(武珍岳)인데 이칭으로 서석산(瑞石山) 또는 서석(瑞石)이라 했다. 그러기에 서양면(瑞陽面)은 서석산(瑞石山)의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불렸을 것이며, 1914년 행정 구역이 개편될 때 이 지역을 서방면(瑞坊面)으로 개칭되었는데 그 까닭은 서석동(瑞石洞)과 같이 광주(光州)의 옛 이름 무진주(武珍州)였고 무진주(武珍州)의 진산인 무진악(武珍岳)의 이칭이 서석산(瑞石山)이었기에 그 영향으로 경양(景陽)의 ‘景’이 ‘瑞’로 바꾸어 서양면(瑞陽面)으로 불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 서방면(瑞坊面)

『호구총수』(1789년) 전라도 광주군조를 보면 편방리(片坊里)가 있다. 그런데 1896년 광주의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펴냄)을 보면 편방리(片坊里)는 두방면(斗坊面)으로 바뀌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자료인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년 펴냄)를 보면 서방면(瑞坊面)이 되었는데 이는 두방면(斗坊面)과 서양면(瑞陽面)을 합하여 부른 듯하다. 그러므로 경양면(景陽面)이 서양면(瑞陽面)이 되었고, 이후 서양면(瑞陽面)의 ‘瑞’와 편방면(片坊面), 두방면(斗坊面)의 ‘坊’을 합해 서방면(瑞坊面)이 되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마을을 촌(村), 동(洞), 리(里)라 했는데 일본강점기 때 마을을 부락(部落)이라 하고 몇 마을을 묶어 리(里)라 하고 여러 리(里)를 묶어 면(面)이라 했다. 예전에는 지금의 면(面)과 같은 지역 단위를 방(坊), 사(社)로 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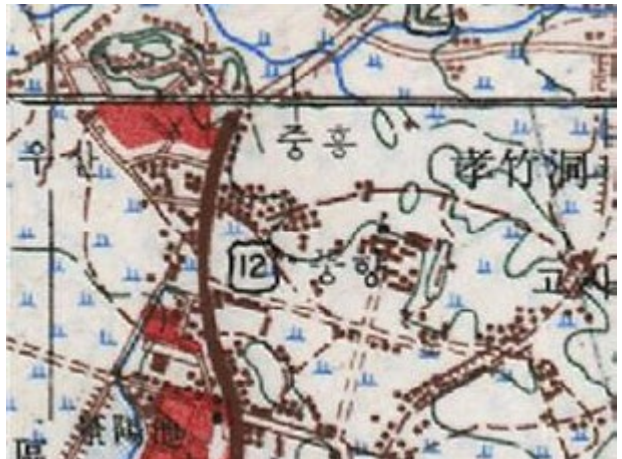
▣ 효죽동(孝竹洞)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 효죽리(孝竹里)가 있다.

- ① 효죽리(孝竹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효죽리(孝竹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우산리>
- ③ 효죽리(孝竹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솟대길.<『한국지명총람』>
- ④ 솟대길[효죽리]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한거리 남쪽 마을. 솟대가 섰었음.

위 효죽리(孝竹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효죽리(孝竹里)라 하였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우산리(牛山里)조에 효죽리(孝竹里)라 했으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 효죽리(孝竹里)는 고유어 지명이 ‘솟대길’인데 이는 “한거리 남쪽 마을. 솟대가 섰었음.”이라 했다. 이를 보면 효죽리(孝竹里)는 ‘솟대’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솟대’의 기원은 소도(蘇塗)에 있다.

옛 효죽리(孝竹里)는 지금의 북구 서방사거리와 담양을 있는 도로의 동강대학 반대편 지역이었다. 효죽리(孝竹里)는 1914년 관전리, 치동리, 대가리, 효죽리 등이 병합되며 뒷산이 와 우형국이라 하여 우산리(牛山里)가 되었다가, 1955년 광산군 서방면 11리가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으로 나뉘었는데 1957년



국토정보맵(50k, 1960년대) 효죽동(이후 우산동)

신설된 효죽동(孝竹洞)은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을 관할했다.⁸⁾ 이후 1966년 1월 효죽동으로 부터 중흥동이 분리 독립되고, 1970년 1월 풍향동이 분리 독립되었으며, 1970년 6월말 우산동이 분리 독립하면서 효죽동(孝竹洞)이라는 동명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 동강대학 정문과 후문 중간 지점의 반대편에 효죽동우체국과 효죽동파출소가 있었기에 그 이름의 잔영이 남아 있었으나 2020년대에 와서 이곳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우체국과 파출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효죽동’이란 지명은 사라졌다.

소도(蘇塗)는 삼한(三韓) 시대의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린 신성 지역이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에는 고조선 유민들이 유입되었고, 철기를 비롯한 발전된 문화가 전래 되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의 여러 소국이 등장하였다. 삼한에는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는데, 이 중 마한의 목지국 지배자가 가장 강하였고 삼한 전체를 주도하였다. 삼한의 여러 소국은 신지, 읍차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다스렸고, 별도로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천군은 소도를 다스리면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관장하였다. 정치적 지배자는 소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는데, 이를 통해 삼한 사회가 엄격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도(蘇塗)는 예전에 큰 나무에 방울을 달아 세우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매우 신성한 장소로 장소였다. 그러기에 이곳에 죄인이 들어가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다. 그러기에 지방에서는 점쟁이들이 집안에 대나무를 세우는 풍습이 생겼고, 이런 풍습은 소학(小學) 명륜(明倫)편⁹⁾에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 한 것처럼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마을 어귀나 집안에 세운 대나무를 ‘효대’ 또는 효죽(孝竹)이라 불렀다. 이런 연고로 효죽(孝竹)은 마을명으로 많이 불렀는데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의 효죽동(孝竹洞)과 충북 중원군 노은면 신희리의 孝竹(숫대울),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의 孝竹(숫대배기)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8) 향토문화진흥원, 『광주동연혁지』, 1991. 36-37쪽.

9) 소학(小學) 명륜(明倫)편에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했다.(역주 소학(譯註 小學), 보음제, 1971.)

▣ 황계면(黃界面)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운암동(雲岩洞)조에 황계면(黃界面)이 있다.

- ① 황계리(黃界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 ② 황계면(黃界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황계면의 대내리(大內里),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 각 일부.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
- ④ 황계(黃溪, 黃鷄)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 ⑤ 대자리(大自里)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위 황계면(黃界面)은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조에 황계리(黃界里)라 했는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광주군조에 황계면(黃界面)이라 하여 대자리(大自里), 죽림리, 대내리, 동배리, 용산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이후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을 보면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에 옛 황계면(黃界面)의 관할 지역인 대내리(大內里),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 각 일부가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운암동조에 황계(黃溪, 黃鷄) 마을은 이칭이 대자리(大自里)라 하였으니 지금의 대자리(大自里)가 옛 황계(黃溪, 黃鷄)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토정보맵(25k, 1910년대)에는 황계리(黃界里)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을 보면 동서로 길게 형성된 대자 마을의 중간에 ‘황계’란 촌명 (村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 황계(대자)

名)이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황계(黃界)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황계(黃界)의 ‘黃’은 훈이 ‘누르다’ 이고, ‘界’는 훈이 ‘지경’ 즉 경계’를 뜻한다. 그러나 지명에서 대지에 비가 내려 물줄기로 인해서 대지가 둘로 갈라지거나 나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둘로 나뉘어진 지역에는 ‘나누다’를 뜻하는 옛말 ‘눌’에서 파생한 ‘누르’, ‘누리’, 등이 쓰이면서 ‘누루’, ‘너리’, ‘노루’, ‘누르’ 등으로 전이되어 이를 ‘獐’(노루장), ‘黃’(누르, 노르), ‘廣’(너르), ‘訥’(訥) 등으로 표기되었음이 밝혀졌다.¹⁰⁾ 그러므로 이곳 황계(黃溪)는 한자가 황계(黃界), 황계(黃鷄)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삼소지면(三所旨面)

『호구총수』 광주시 동면조에 삼소지리(三所旨里)를 볼 수 있다.

- ① 삼소지리(三所旨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 동면>
- ② 삼소지면(三所旨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삼소지(三所旨) 【마을】 광주시-북구-대촌동-→ 대촌동.
- ④ 삼소동(三所洞) 【동】 광주시-북구-1957년 12월 2일 동제 실시에 따라 대촌동, 오룡동, 월산동을 합하여 옛 삼소지면의 이름을 따서 삼소동회라 함.

위 삼소지(三所旨)는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 삼소지리(三所旨里)였는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삼소지면(三所旨面)이라 했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을 보면 광주군 갑마보면, 석제면, 삼소지면이 병합되어 본촌면(本村面)이 될 때 옛 삼소지면의 궁암리, 해산리, 상대리, 용정리, 고내리는 월산리가 되었고, 상대리, 하대리 저작리는 대촌리가 되었으며,

10) 조강봉, “nVrV’계 지명에 대한 삽의(挿義)”, 『지명학』 제4호, 한국지명학회, 2000. 137쪽.

신점리, 입암리, 저작리, 오룡리는 오룡리가 되었다. 삼소동(三所洞)은 삼소지면(三所旨面)에 있었던 동(洞)으로 삼소지(三所旨)에서 지(旨)를 빼고 동(洞)을 붙인 지명이다.

그렇다면 삼소지(三所旨)는 어떤 의미에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삼소지(三所旨)를 살펴보면

⑤ 삼소빈동(三所賓洞)[下城里] 【마을】 충남-서산군-운산면-거성리- 음촌말 서쪽에 있는 마을. 상성리(上城里) 아래쪽이 됨.

⑥ 삼소장(三所場) 【들】 제주-제주시-영평동- → 삼수장.

⑦ 삼수장 [삼소장] 【들】 제주-제주시-영평동- 영평동과 월평동에 걸쳐 있는 들. 조선조 때 제주도 마장 10소 가운데 세 번째 삼소가 있었음.

⑤의 삼소빈동(三所賓洞)은 상성리(上城里), 하성리(下城里) 지역으로 그 유래를 알 수 없고, ⑥의 삼소장(三所場)은 ⑥-⑦에서 조선조 때 제주도 마장 10소(所) 가운데 세 번째라 해서 삼소(三所)라 하여 불렸다 했다.

이곳 ①의 삼소지(三所旨)는 ‘三+所+旨’ 또는 ‘三+所旨’로 분석할 수 있다. 소지(所旨)의 ‘旨’는 훈이 ‘머리’이다. 하지만 옛 지명에서 ‘마을’의 뜻으로 쓰인 예가 있다. 양주동(1965:69)은 『삼국유사』(권2)의 향가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조에서

“죽지(竹旨)의 원의(原義)는 ‘대머리’이다. 『삼국유사』에 ‘竹旨, 亦作竹蔓, 亦名智官’이라 함은 대개 ‘竹·智’가 일훈(一訓) 일음(一音)(대·디), ‘智·官’이 공히 훈(머리·마을)으로 상통하기 때 문이요.”¹¹⁾

이라 하여 ‘旨’의 원의(原義)는 ‘머리’이지만 ‘마을’(마을의 옛말)로도 쓰인다 했다.

현재 광산구 행정동인 운수동에는 법정동으로 소촌동(素村洞)이 있다. 소촌동(素村洞)은 『호구총수』에¹²⁾ 소지리(所旨里)라 하였는데 1912년 행정 구역 개편시에 소지면(所旨面)이

11)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69쪽.

12) 규장각 자료총서,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영인본)

되었고 마을명은 소촌동(素村洞)으로 바뀌었으니 ‘所’는 ‘素’로, ‘旨’는 ‘村’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소지(所旨)와 소촌(素村)은 동일 지명의 이표기(異表記)이며 이후 소촌동(素村洞)은 송정(松亭)으로 바뀌었는데, 소촌(素村)의 고유어 지명이 ‘솔머리’, ‘손머리’라 했으니, ‘솔’이 ‘松’이므로 ‘솔→손→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고, ‘머리’는 소지(所旨)의 ‘旨’로 표기되었지만 실은 마을(村)에 어원을 둔 어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삼소지(三所旨)는 앞의 소촌(素村)과 같이 ‘솔’, ‘松’에 연유한 지명으로 ‘세 소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 와지리(蛙只里)

- ① 와지리(蛙只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
- ② 오치면(梧峙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오치리(梧峙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
- ④ 오치동(梧峙洞)은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으로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를 병합하여 오치리(梧峙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는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위 와지리(蛙只里)는 1789년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洞面)조에 와지리(蛙只里)라 했고,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오치면(梧峙面)으로 바뀌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오치(梧峙)

면리동명칭일람』를 보면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오치리(梧峙里)가 되었는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조에 오치동(梧峙洞)이라 하여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지역으로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고 불렀다.” 했다.

이를 보면 1789년 『호구총수』의 와지(蛙只)가 오치(梧峙)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와지(蛙只)가 어떤 연유로 오치(梧峙)로 바뀌었을까? 『훈몽자회』에서 와(蛙)의 훈[字釋]을 찾아보면

* 蛙 : 머구·리와俗呼水 ~ 又田雞(동경대본훈몽자회)

머구·리와俗呼水 ~ 又田雞(존경대본훈몽자회)

이라 하여 훈이 ‘머구리’라 했다. 그리고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옛글)에서 ‘머구리’의 풀이를 보면

* 머구리 (이) <옛> 개구리

이라 하여 ‘개구리’의 옛말이라 했다.

그러나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머구’의 풀이를 보면

* 머구 : 표준어 ‘머위’¹³⁾의 경남, 전남방언, ‘머루’¹⁴⁾의 경남방언.

* 머구나무 : → 머귀나무.(경상)

* 머귀나무 :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이라 하여 ‘머구’는 표준어 ‘머위’의 경남·전남방언이라 했고, ‘머루’의 경남방언이라 했고, ‘머구나무’는 표준어 ‘머귀나무’의 경상방언으로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라 했다.

13) 엉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 같은 말로는 관동(款冬).

14) 포돛과에 딸린 왕개머루, 왕머루, 가마귀머루, 섬왕머루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같은 말로는 산포도

이곳 광주 북구 오치동(梧峙洞)은 ④의 『한국지명총람』에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 하였는데”라 했고,

⑤ 오치2(梧峙) 【고개】 광주시-북구-오치동- → 머구재2.

⑥ 머구재1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오치동.

⑦ 머구재2[오치] 【고개】 광주시-북구-오치동-오치 남쪽에 있는 고개. 머구나무 즉 머귀나무가 있었음.

⑤에서 ‘오치2(梧峙)’ 고개의 고유어 지명은 ‘머구재’라 했으며, ⑥에서 ‘머구재1’ 마을은 한자로 오치동(梧峙洞)이라 했는데, ⑦에서 ‘머구재2[오치]’ 고개는 “오치 남쪽에 있는 고개. 머구나무 즉 머귀나무가 있었음”이라 했다. 이를 보면 오치동(梧峙洞)은 ‘머구’와 관련된 지명인 듯하며, ‘머구’는 ‘머귀나무’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치(梧峙)의 ‘梧’는 어떤 뜻을 가졌을까? ‘梧’의 훈[字釋]을 장삼식 편 『대한한대사전』에서 살펴보면 ‘오동오’, ‘머귀나무오’라 했고, 『우리말큰사전』에서 ‘오동나무’의 풀이를 보면

오동나무 : 현상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이라 하여 “현상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라 했으니, ‘오동(梧桐)나무’는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라 하였으니 ‘머귀나무’와는 다른 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머구재’를 한자로 오치(梧峙)로 적었을까?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옛말)에서도 ‘머귀’의 풀이를

* 머귀 : 머귀나무. 예) 梧桐은 머귀라 合歡樹 | 梧桐 근허니라<월석 7:54-1>

이라 하여 ‘머귀’는 ‘머귀나무’ 오동(梧桐)이라 했고, 『천자문』, 『훈몽자회』, 『유합』에서도 ‘梧’의 훈을 보면¹⁵⁾

- * 梧 : 머·귀·오(예산본훈몽자회)
- 머귀오(광주판천자문)
- 머귀오(나손본신증유합)

이라 하여 ‘梧’의 훈[字釋]을 ‘머귀’라 했다.

이를 보면 와지리(蛙只里)가 오치면(梧峙面)으로 바뀐 까닭은 와(蛙)의 훈이 ‘머귀리’라 했지만 이를 ‘머구’로 인식하고 또 ‘머구’를 ‘머귀’로 인식하여 ‘梧’로 표기한 결과인 듯하다. 그러기에 『한국지명총람』 광주광역시 북구조의 ④에서 오치동(梧峙洞)은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 했을 것이며, ⑦에서 ‘머구재’는 ‘오치 남쪽에 있는 고개로 머구나 무 즉 머귀나무가 있었음’이라 했을 것이다. 이런 관계는 인터넷 다음(daum)에서 ‘머귀나무’를 검색해 보면 ‘나무위키’의 글을 인용하여 “예전 오동나무로 불렸던 시대도 있었지만 다른 나무다.”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와지리(蛙只里)의 ‘只’은 어떤 의미일까?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1964)에서 ‘只’의 자석(字釋)을 보면

- * 只 : 다만지(但也), 말을그칠지(語已辭)

이라 했다. 『삼국사기』(지리3)에 실린 옛 지명에서 ‘只’의 쓰임을 살펴보면

- * 연기현(燕岐縣은 본래 백제의 두내지현(豆仍只縣)이었다.(지리3)
- * 다기현(多歧縣)은 본래 백제의 다지현(多只縣)이었다.(지리3)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총서 『훈몽자회』, 『천자문』(1973), 『유합』(1972) 영인본.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이라 하여 ‘只’와 ‘岐’의 대응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수희(1994:116)는 ‘岐’는 ki(동국정운, 사성통해, 훈몽자회)라 했고, ‘只’는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향약채취월령』에 ‘ki’로 음차 표기되었고, 이두(吏讀)에서도 한결같이 ‘ki’로 읽히는 것이라 했다.¹⁶⁾

이를 보면 ‘蛙’가 ‘머구리’의 훈차이고, ‘머구리’는 ‘개구리’를 뜻하지만 ‘머구나무’는 ‘머귀나무’의 방언이고, 옛말에 ‘머귀’는 오동(梧桐)나무를 뜻하였기에 와지(蛙只)의 ‘只’는 ‘머귀’의 ‘귀>기’를 표기한 어사였을 것이다.

▣ 우치면(牛峙面)

『호구총수』 광주시 동면조에 우치리(牛峙里)를 볼 수 있다.

- ① 우치리(牛峙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 동면>
- ② 우치면(牛峙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우치동(牛峙洞) 【동】 1957년 12월 2일 동제 실시에 따라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룡동을 합하여 이곳에 있던 우치면의 이름을 따서 우치동회라 함. <『한국지명총람』 광주시-북구>
- ④ 우치(牛峙) 【마을】 → 효령동.<『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효령동>

위 우치면(牛峙面)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조 20리 중 하나로 본래 우치리(牛峙里)였는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우치면(牛峙面)이 되어 22개 리를 관할 했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우치면(牛峙面)조를 보면 생룡리, 용전리, 용강리, 효령리, 수곡리, 태령리를 관할 한 면이었다. 이때 우곡리(牛谷里)는 효령리(孝嶺里)에 소속되었다. 이후 1932년 우치면(牛峙面)은 본촌면(本村面)과 병합되어 지산면(芝山面)이 되어 생룡리, 용강

16) 도수희, 『백제어 연구』 I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4. 116쪽.

리, 효령리, 수곡리, 태령리, 용전리를 관할 했는데 1957년 지산면(芝山面)은 대촌면, 서창면과 함께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지산출장소가 되어 운영동으로 우치동(牛峙洞)을 두고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룡동을 관할했으며, 1980



국토정보맵(25k, 1960) 우치동 지역

년 복구가 신설되면서 지산출장소는 폐지되면서 복구의 운영동으로 우치동(牛峙洞)이 되었고, 1998년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을 병합하여 건국동(建國洞)이 되면서 우치동(牛峙洞)은 사라졌다.

그러면 우치(牛峙)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효령동조를 보면 우치(牛峙)는 고유어 지명이 ‘소재’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소재’(牛峙)의 유래를 살펴보면

- ⑤ 우치(牛峙) 【고개】 광주시-광산구-대산동- → 소재.
- ⑥ 우치2(牛峙) 【고개】 전남-화순군-도암면-용강출장소-우치리- → 소재2.
- ⑦ 우치(牛峙) 【마을】 경기-광주군-도척면-진우리- → 소티.
- ⑧ 우치2(牛峙) 【고개】 강원-영월군-수주면-도원리- → 쇠재.
- ⑨ 우치(牛峙) 【마을】 전남-고흥군-두원면-용반리- → 쇠재.

⑤-⑨에서 우치(牛峙)의 고유어 지명이 ‘소재’ 또는 ‘쇠재’라 했다. 우(牛)의 훈은 ‘소’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소고기’를 ‘쇠고기’라 하여 ‘소’와 ‘쇠’가 터 쓰인다. 즉 ‘소’와 ‘쇠’는 이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소재’를 살펴보면

⑩ 소재【마을】 → 솔티1.<충북-영동군-황간면-원촌리>

① 솔티1 [솔티, 소티골, 우티곡, 소재] 【마을】 솔티 고개 밑에 있는 마을.<상동>

⑪ 소재[소치, 소치리] 【마을】 소나무가 많다 함.<강원-인제군-남면-갑둔리>

⑫ 소재1 [松峴] 【마을】 소재 밑에 있는 마을.<충북-제천군-제천읍-고명동>

① 소재2[松峴] 【고개】 큰 소나무가 있었다 함.<상동>

⑬ 소재【마을】 강원도-양구군-방산면-송현리 → 송현리.

① 송현리(松峴里)[소재, 솔재, 송현] 【리】 본래 양구군 방산면의 지역으로서, 소나무가 많으므로, 솔재, 소재, 또는 송현이라 한다 하는데,<강원도-양구군-방산면>

⑭ 소재이[소정] 【마을】 경기-양평군-단월면-행소리-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⑮ 소정들【들】 경남-고성군-상리면-고봉리- 소나무 정자가 있음.

⑯ 소정들[솔정들] 【들】 전남-승주군-월등면-농선리- 소나무정자가 있었음.

⑩의 ‘소재’는 이칭이 ‘소재1’라 했는데 ⑩-①에서 ‘솔티1’는 이칭이 ‘송티’, ‘소재’라 했다. 사실 우리말에서 ‘소나무’는 달리 ‘솔나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기에 ⑩의 ‘소재’의 ‘소’는 ‘소나무’의 ‘소’로 인식되고 이를 한자로 ‘松’으로 표기하면서 이에 고개를 뜻하는 ‘峙’의 음 ‘티’를 붙여 ‘송티’로 부른 듯하다. 그러나 ⑪의 ‘소재’는 고유어 지명이 ‘소치’라 했으니 소(牛)에 연유한 지명인지, 송(松)에서 연유한 지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소나무가 많다.’ 하였으니 우치(牛峙)가 아닌 송치(松峙)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⑫의 ‘소재’도 “소재 밑에 있는 마을”이라 했지만 ⑫-①에서 ‘소재’(松峴)은 “큰 소나무가 있었다.” 했고, ⑬의 ‘소재’도 ⑬-①의 송현리(松峴里)가 “소나무가 많으므로 솔재. 소재, 송현”으로 불렀다 했으니 이를 보면 소나무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⑭ ‘소재이’도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이라 했고, ⑮-⑯의 ‘소정들’도 ‘소나무 정자’에 연유한 정자라 했다.

이로 볼 때 우치면(牛峙面)의 우치(牛峙)는 고유어 지명이 ‘소재’라 하여 ‘牛치(峙)’로 표기하

고 있지만 아마도 이곳에 자라는 소나무(松)에 연유한 지명이 아닐까 의심한다.

▣ 상대곡면(上大谷面)

『호구총수』 광주시 동면조에 상대곡리(上大谷里)를 볼 수 있다.

- ① 상대곡리(上大谷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 ② 상대곡면(上大谷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상대곡(上大谷) 【마을】 광주시-북구-청풍동→웃대실.
- ④ 웃대실 [등촌, 상대곡] 【마을】 광주시-북구-청풍동- 청풍동에 있는 마을.

위 상대곡(上大谷)은 ①의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조에 상대곡리(上大谷里)이라 하였고, ②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상대곡면(上大谷面)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청풍동조를 보면 상대곡(上大谷)은 고유어 지명이 ‘웃대실’이며, ④에서 ‘웃대실’은 이칭이 ‘등촌’이라 했다. 이를 보면 상대곡리(上大谷里)는 지금은 등촌(登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대곡(上大谷)은 어떤 연유에서 불렸을까? 상대곡(上大谷)은 ‘上+大谷’으로 분석되며, ‘上’은 ‘위’ 또는 ‘웃’이고, ‘大谷’은 ‘큰골’을 뜻하는데, ‘谷’의 옛 훈이 ‘실’이므로 ③에서 상대곡(上大谷)의 고유어 지명이 ‘웃대실’로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곡(上大谷)은 ‘윗 큰골’을 뜻하는 지명이다. 그런데 상대곡(上大谷)이 등촌(登村)으로 바뀐 까닭은 1789년 『호구총수』의 상대곡리(上大谷里)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상대곡면(上大谷面)이라는 면명으로 바뀌었기에 마을명을 등촌(登村)으로 바꾼 듯하다.

▣ 석보리(石保里), 석저면(石底面)

『호구총수』 광주시 동면조에 석보리(石保里)를 볼 수 있다.

- ① 석보리(石保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 ② 석저면(石底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 ③ 석곡면(石谷面).<『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 ④ 석보(石保)[石堤] 【마을】 광주시-북구-덕의동-→ 본촌.
- ⑤ 석저(石底) 【마을】 광주시-북구-덕의동-→ 본촌.
- ⑥ 본촌(本村) [석저, 석제, 석보, 돌밑] 【마을】 광주시-북구-덕의동- 덕의동에서 으뜸 마을. 무들매(무등산) 밑이 됨. 이 말의 이름을 따서 석저(석보, 석제)면이 되었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석곡면에 편입되어 충효, 금곡, 덕의의 3개 리로 개편되었는데, 1955년 7월 1일 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11월 6일 광주시 구역 확장에 따라 광주시로 편입되어 충효, 금곡, 덕의의 3개 동이 되었는데, 1957년 12월 2일 3동을 합하여 충효동이라 함.

①의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조의 석보리(石保里)는 ②의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석저면(石底面)으로 바뀌었고, ③의 1914년 행정 구역이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을 보면 석곡면(石谷面)으로 바뀌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덕의동(德義洞)조를 보면 ④의 석보(石保) 마을과 ⑤의 석저(石底) 마을을 볼 수 있는데 이칭이 본촌(本村)이라 했다. 이를 보면 석보리(石保里)는 석저면(石底面)으로 다시 석곡면(石谷面)으로 변했기에 마을 이름은 본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석보리(石保里)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석보리(石保里)의 석보(石保) 마을은 마을 앞으로 흐르던 냇물에 돌로 냇물을 막은 보(洑)가 설치됨에 따라 불린 지명이다. 이곳은 1971년에 영산강 유역의 치수를 위하여 수립된 영산강유역종합개발계획 1단계 계획에

따라 1974년에 영산강 상류의 지류에 건설된 4개 댐(광주댐, 나주댐, 담양댐, 장성댐) 중 하나인 광주댐 상류에 착공하여 1976년에 준공된 광주호¹⁷⁾에 수몰된 농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했었기에 붙인 지명이다. 그러나 ②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석저면(石低面)으로 바뀌었다. 그 까닭은 석저면(石低



국토정보맵(50k, 2000년대) 덕의동(덕의 석저)

면)의 범위가 무등산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무등산에 주상절리(柱狀節理)라는 신비스러운 돌무더기가 많기에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돌밭’이란 의미에서 마을 이름이 석저(石低)로 붙인 듯하다. 이후 ③의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조에서는 석곡면(石谷面)으로 바뀌었는데 그 까닭은 앞과 같은 연유에서 ‘돌골’이란 의미에서 석곡(石谷)으로 불렸을 것이다.

▣ 이변보리(余卞保里), 갑마보면(甲馬保面)

- ① 이변보리(余卞保里).<『호구총수』 광주 동면>
- ② 미십보(彌十保).<『대동지지』 광산현 방면>
- ③ 갑마보면(甲馬保面).<『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위 『호구총수』 광주 동면의 이변보리(余卞保里)는 『대동지지』 광산현 방면조에 미십

17) 인터넷 포털의 나무위키(<https://namu.wiki/>, 2023. 3. 4. 접속) 참고.

보(彌十保)라 했고,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조에 갑마보면(甲馬保面)라 했다. 『호구총수』의 이변보리(尙卞保里)와 『대동지지』의 미십보(彌十保)를 비교해 보면 ‘尙’가 ‘彌’(미)로, ‘卞’이 ‘十’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변보리(尙卞保里)는 어떤 의미에서 불렸을까? 먼저 이변보리(尙卞保里)의 ‘尙’의 풀이를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1965:413)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할 니(然也, 助辭)” 또는 “너 니(爾也)”라 했다. 그리고 ‘尙’와 의미가 같은 한자를 『대한한사전』(1965:413)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尔(니) 『尙』(前條)와 같음.

尔(니) 『尔』(前條)와 같음.

你(니) 『尔』(次條)의 本字.

你(니) 너 니(汝也).

爾(이) 너 이(汝也), ‘가까울 이’(近也), ‘어조사 이’(語助辭),

‘오직 이’·‘뿐 이’(唯也), ‘그 이’(其也), ‘말 이’(已而)(『尙·你』와 같음).

위를 보면 ‘尔’, ‘尔’, ‘你’, ‘你’는 모두 음과 훈이 같고, 爾는 ‘你’, ‘尙’, ‘你’와 훈이 같다. 그리고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1965)에서 ‘卞’의 훈(字釋)을 살펴보면 ‘법 번’, ‘조급할 번’, ‘손바닥 번’이라 했고, ‘彌’의 훈을 살펴보면 ‘두루 미’, ‘널 미’라 했고, ‘保’는 『호구총수』와 『대동지지』에 변화가 없는데 이는 아마도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냇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洑)를 자형이 단순하고 획수가 적은 글자인 ‘保’로 바꾸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위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호구총수』의 ‘尙’는 『대동지지』에 ‘彌’라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尙’의 훈은 ‘너 니’라 했고, ‘彌’의 훈은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1965:413)에 ‘활부릴 미’, ‘두루 미’라 했고, 『나손본신증유합』에서는 ‘더욱 미’라 했으며, 다음(daum) 한자사전에는 ‘두루’, ‘널미’라 했다. 이를 보면 『호구총수』의 이변보리(尙卞保里)

의 ‘尗’가 『대동지지』에서 ‘彌’로 바뀐 까닭은 ‘尗’의 훈이 ‘너’이고, ‘卞’의 음이 ‘변’이므로 ‘변’의 첫소리 ‘ㅂ’을 ‘너’에 붙여 ‘넙-’(廣)을 표기하여 이변보(尗卞保)가 ‘넙은 보’라는 의미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한다. 또 『호구총수』의 이변보리(尗卞保里)의 ‘尗’가 『대동지지』에 미십보(彌十保)의 ‘彌’로 바뀐 까닭은 ‘彌’의 훈이 ‘넙-’이므로 ‘넙은 보’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借字)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호구총수』의 이변보리(尗卞保里)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갑마보면(甲馬保面)을 비교해 보면 ‘尗’가 ‘甲’으로 바뀌었고, ‘卞’이 ‘馬’로 바뀌었다. 이는 ‘尗’와 훈이 같은 ‘爾’자로 표기해야 할 것을 ‘爾’와 자형이 비슷하면서도 획수가 단순하여 쓰기에 편한 ‘甲’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卞’이 ‘馬’로 바뀐 까닭은 ‘卞’이 ‘馬’와 음이 같은 ‘尗’와 자형이 비슷함에 따라 ‘尗’와 음이 같은 馬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광주 북구 마을 이름의 유래와 어원

1. 중흥동
2. 중앙동
3. 임동
4. 신안동
5. 용봉동
6. 운암동
7. 동림동
8. 우산동
9. 풍향동
10. 문화동
11. 문흥동
12. 두암동
13. 삼각동
14. 매곡동
15. 오치동
16. 일곡동
17. 양산동



IV. 광주 북구 마을 이름의 유래와 어원

1. 중흥동(中興洞)

1) 연혁¹⁸⁾

- ① 중촌(中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¹⁹⁾>
- ②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③ 태봉리(胎峯里), 누항리(陋巷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
- ④ 서양면(瑞陽面)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 기례방면의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태봉리(胎峯里)를 합한 지역.<『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 ⑤ 중흥동(中興洞) 【동】 광주시-북구-본래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의 각 일부와 기례방면의 태봉리, 누암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중흥리라 해서 서방면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효죽동의 관할이 되었다가, 1979년 시 조례 제844호에 의하여 중흥동을 갈라 중흥 1동, 2동회로 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18) 광주 북구 연혁은 『호구총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한국지명총람』 자료와 향토문화진흥원 편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 광주광역시, 199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는 위의 자료 이외의 개정사항이 1990년까지 수록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였다. 1990년도 이후의 연혁은 광주광역시 북구청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9) 경양리(景陽里)는 후에 서양면(瑞陽面)이 되었다가 후에 서방면(瑞坊面)이 되었다.

- ⑥ 1935. 10. 1. 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 ⑦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⑧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⑨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전지역), 석곡면(5리)을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풍향출장소는 옛 서방면 지역인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중흥동(中興洞)이 되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두면서 법정동인 우산동(牛山洞), 풍향동(豐鄉洞), 중흥동(中興洞)은 본청직할의 효죽동(孝竹洞) 관할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하면서 중흥동(中興洞)은 북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 ⑫ 1966. 1. 8. 광주시 조례 제201호에 의거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중흥동(中興洞)이 분리 독립하였다.
- * 1970. 1. 1.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풍향동이 분리 독립.
- * 1970. 6. 29. 효죽동(孝竹洞)이 우산동(牛山洞)으로 개칭함²⁰⁾.
- ⑬ 1973. 7. 1. 광주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됨.(대통령령 제6544호)
-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관할 동.
-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관할 동.

20) 『광주동연혁지』, 향토문화진흥원편, 광주직할시. 1991. 158쪽.

⑭ 1979. 1. 1. 광주시 조례 제844호에 의거 중흥동이 중흥1동과 중흥2동으로 분동 되었다.

⑮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

* 동구(東區) 관할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 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 區) 관할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통합하여 북구(北區)를 두었 다. 이때 북구 중흥1, 2동이 되었다.

* 광주시 조례 제348호에 의거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

⑯ 1982. 9. 1. 광주시 조례 제1147호에 의거 중흥2 동을 중흥2동과 중흥3 동으로 분동하였다.

⑰ 1986. 11. 1. 법률 제 3808호에 의거 전라남 도 광주시가 광주직할 시로 승격되어 전라남 도에서 분리되었다.

⑱ 1991. 4. 15. 북구의회 개원

⑲ 1995. 1. 1. 광주광역시 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 1, 2, 3동이 되었다.



카카오지도(2024. 5) 중흥동 지역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모롱리(毛弄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모롱리(毛弄里)가 있다.

- ① 모롱리(毛弄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모롱리(毛弄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모른걸.
- ③ 모른걸 [모롱골, 모롱리]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간땃걸 동쪽에 있는 마을.

위 모롱리(毛弄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기록된 지명인데 이칭이 ‘모른걸’로 “간땃걸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모른걸’은 ‘모르+걸’로 분석된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모르다’를 찾아보면 ‘알지 못하다’의 뜻과 ‘마르다’의 전라·경남방언이라 했다, 그리고 ‘걸’은 경상도 방언으로 ‘개울’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모른걸’을 살펴보면

- ④ 모른들 【들】 광주시-남구-구소동- 고랫들 서쪽에 있는 들.
- ⑤ 모른말[모랫말] 【마을】 경기-파주군-적성면-무건리- 무건이 남쪽, 모통이 마을.

④의 ‘모른들’은 그 유래를 알 수 없고, ⑤의 ‘모른말’은 ‘모랫말’, ‘모통이에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 ⑥ 모른방천1 【들】 전남-광양군-진월면-마룡리- 모른방천 밑에 있는 들.
- ⑦ 모른방천 【뚝】 전남-광양군-진월면-진정리- 진목 동쪽에 있는 뚝. 비가 많이 와야 물이 흐르고 여늬 때는 몰라(말라) 있음.
- ⑧ 모른방천2 【뚝】 전남-광양군-진월면-마룡리- 큰방천 서쪽에 있는 뚝. 큰비가 와야 물이 흐

르고, 여늬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아 몰라(말라) 있음.

⑨ 모른봇자리【들】 경남-고성군-상리면-오산리- 오산남쪽에 있는 들.

⑩ 모른소【소】 제주-북제주군-애월읍-하귀출장소-광령리- 무수넛다리 남쪽에 있는 소. 큰비가 와도 사흘만 되면 마름.

그러나 ⑥-⑩의 ‘모른방천’, ‘모른소’의 ‘모른’은 ‘마르다’(乾)의 방언 ‘모르다’에 연유한 지명인 듯하다. 이를 보면 이곳 광주 북구 중흥동 모롱리(毛弄里)는 이칭이 ‘모른겔’이라 했으며, ‘모르다’는 ‘마르다’(乾)의 전라-경남의 방언이고, ‘겔’은 개울이라 했으니 이는 지대가 모래가 많아 비가 오면 물이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늘 마른 상태의 개울이었기에 붙인 지명일 것으로 여겨진다.

▣ 중촌(中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중촌(中村) 마을이 있다.

① 중촌(中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

② 중가리(中街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③ 간뎃겔 [간뎃골]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중흥동 북판에 있는 마을.

위 중촌(中村)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조에 중촌(中村)이라 했다. 그런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은 대가리(大街里), 중가리(中街里), 모롱리(毛弄里), 효죽리(孝竹里), 관전리(官前里), 병문리(屏門里), 치동리(峙洞里), 이동리(泥洞里)를 관할하여 중촌(中村)은 볼 수 없고 비슷한 지명으로 중가리(中街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중흥동조를 보면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

大街里), 효죽리(孝竹里)를 관할 한다 했고, 서방면 우산동(牛山洞)조를 보면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 효죽리(孝竹里), 대거리(大街里), 병문리(屏門里)를 관할 한다 했다. 여기에서 병문리(屏門里), 대거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 관전리(官前里)는 중흥동과 우산동 두 지역에 각 일부가 편제되었으나 모



『국정보매』 (1910년대) 중흥리

룡리(毛弄里), 중거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는 중흥동에만 편제되었고,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는 우산동에만 편제되었다.

또한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를 보면 중촌(中村)은 볼 수 없고 ‘간뎃걸’을 볼 수 있는데 ③에서 ‘간뎃걸’은 ‘중흥동 북판에 있는 마을’이라 했고, ④에서 ‘간뎃걸’은 ‘한거리 서남쪽 마을로 가운데가 됨’이라 했음을 볼 때 ‘간뎃걸’은 중촌(中村)의 고유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간뎃걸’의 ‘걸’은 ‘거리’의 준말인 듯하다.

또한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를 보면

- ④ 간뎃걸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한거리 서남쪽 마을. 가운데가 됨.
- ⑤ 한거리 [大街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우산동에서 으뎛되는 마을. 큰 길옆이 됨.
- ⑥ 솟뎃걸 [孝竹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한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 솟대가 섰었음.
- ⑦ 괴약걸 [고야걸. 관앞걸. 官前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젓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 경양역관이 있었음.

을 볼 수 있는데, ④에서 ‘간뎃걸’은 ‘한거리 서남쪽 마을로 가운데가 됨’이라 했고 ⑤에서 ‘한

거리'는 대거리(大街里)이며 '우산 동에서 으뜸 마을로 큰길 옆이 됨'이라 했다. 그리고 ⑥에서 '숫댓길'은 효죽동(孝竹里)인데 '한거리 남쪽에 숫대가 섰었음'이라는 했고, '괴약길'은 관전리(官前里)인데 옛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로 경양역관이 있었다 했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중흥동, 우산동

그리고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25k 1970년대)을 보면 중흥동은 효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일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동신중·고등학교에서 담양으로 통하는 큰길을 건너면 우산동 지역이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서방사거리 방향과 효동초등학교 쪽의 경양(景陽) 마을 인근에 대거리(大街里), 중거리(中街里), 중촌(中村)이 있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중거리(中街里)는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중촌(中村)을 살펴보면

- ⑧ 중촌(中村) 【마을】 충남-서산군-인지면-야당리- → 가운데말.
- ⑨ 중촌(中村) 【마을】 경남-충무시-도남동- 상촌과 하촌 사이에 있는 마을.
- ⑩ 중촌(中村) 【마을】 전남-나주군-봉황면-유곡리-박실 가운데쪽의 마을.
- ⑪ 중촌(中村) 【마을】 경기-가평군-가평읍-읍내리- 읍내리의 중앙이 됨.

⑧-⑪의 중촌(中村)은 해당 지역의 한 가운데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흥동 중촌(中村)은 이 지역의 한 가운데에 형성된 마을이었기에 불렸을 것이며 후에 중흥동(中興洞)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 이동(泥洞)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이동(泥洞) 마을이 있다.

- ① 이동리(泥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진고살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간뎃걸 북쪽에 있는 마을. 긴 고살 옆이 됨.

위 이동(泥洞)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이동리(泥洞里)라 했으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중흥동조의 이동리(泥洞里)가 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를 보면 이동리(泥洞里)는 볼 수 없으나, 그 대신 북구 중흥동조에 ‘진고살’이라는 마을을 볼 수 있는데 “긴 고살 옆이 됨.”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동(泥洞)의 ‘泥’는 훈이 ‘진흙’, ‘진창’을 뜻하므로 마을 주변의 흙이 질기 때문에 불린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이동(泥洞)이 “긴 고살”에 연유한 지명이라면 장동(長洞)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필자는 어렸을 때 마을의 골목길이 무척이나 질어서 흙이 고무신에 달라붙어 한 발 한 발을 떼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를 보면 이곳 이동리(泥洞里)의 ‘泥’는 훈이 ‘진흙’이므로 고유어 지명으로는 ‘진고살’으로 불렸을 것이지만 ‘진’을 ‘長’이 아닌 ‘泥’으로 표기한 것은 ‘긴 고살’이 아님을 알려 주는 증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①의 광주 북구 중흥동의 이동리(泥洞里)는 고유어 지명이 ‘진고살’이라 했음을 고려할 때 ‘진흙 고살’에서 연유한 지명으로 여겨지며, 그러기에 이동(泥洞)은 ‘진흙고살’을 훈차 표기한 지명으로 여긴다.

▣ 병문리(屏門里)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중흥동조에 병문리(屏門里)가 있다.

- ① 병문리(屏門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병문리(屏門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병문안.
- ③ 병문안 [병문리]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시냇굴 북쪽에 있는 마을.
- ④ 병문리(屏門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 병문안.

위 병문리(屏門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에 속한 마을인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병문리(屏門里)는 이칭이 ‘병문안’이라 했다.

그렇다면 병문(屏門)은 어떤 의미에서 불렸을까?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병문(屏門)의 풀이를 보면

* 병문1(屏門) : 골목 어귀의 길가

* 병문친구(屏門親舊) : 정해진 일자리 없이 골목 어귀의 길가에 모여 있다가 닥치는 대로 뜬 벌이를 하는 사람

* 병문과수(屏門把守) : 예전에, 임금이 나들이할 때 길 어귀를 지키던 군사를 이르던 말

이라 하여 “골목 어귀의 길가”라 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2023.3.21>. 접속)에서 병문(屏門)으로 불리는 지명을 검색해 보면 『서울지명사전』에 등재된 동명(洞名)과 도로명을 볼 수 있다.

* 종현병문계(鐘懸屏門契) : 조선시대 중부 징청방에 있던 계로서, 계 이름은 종현 골목 어귀

의 길가에 있는 마을인 데서 유래되었다. 영조 때는 중부 수진방에 속하였으나, 고종 초에는 징청방에 있었고,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종로1가의 일부에 해당된다. 유형 : 동명

* 이간병문계(二間屏門契) : 조선시대 남부 회현방에 있던 계로서, 영조 때는 호현방에 속하였으나, 고종 초에는 회현방이었고,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유형 : 동명

* 수동병문(壽洞屏門) : 조선시대 시전거리의 일부로 종로1가에서 청진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다. 유형 : 도로명

* 상피마병문(上避馬屏門) : 상피마병문은 조선시대 운중가 시전 뒷골목인 피마골의 위쪽(웃피마동)에 있던 골목어귀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종로구 장사동 우너더리로 통하는 골목으로 지금의 돈화문길 연변의 장사동 20번지 일대의 피마골 어귀를 말한다. 유형 : 도로명

하지만 광주 지역에는 『광주북구지리지』(1997:387)에 중흥동 13번지와 우산동 271번지 사이에 병문(屏門)을 볼 수 있는데, 병문(屏門)의 사진과 함께 설치시기는 1600년 말에 병문리(屏門里)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고 규모는 폭 3m, 규모는 3.5m 이상의 터로 인심이 순후하고 화재나 재난, 질병이 없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이곳 산자락에 병문(일명 盜大門)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재난을 막기 위하여 설치했다고 했다.²¹⁾

병문(屏門)의 ‘屏’의 훈은 장삼식 편 『대한한대사전』에 ‘병풍’, ‘덮다’, ‘앞가림’, ‘울타리’, ‘물리치다’ 등이라 했다. 이를 보면 병문(屏門)은 마을에 화재나 재난, 질병, 도둑이 없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설치한 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병문(屏門)을 살펴보면

⑤ 병문천(屏門川, 兵門川) 【내】 제주도-제주시-산천- → 병문내.

⑥ 병문(兵門) 【들】 제주도-북제주군-조천면-조천리- 조천리와 함덕리에 걸쳐 있는 들. 조천관 진영의 병문이 있었음.

21)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 『광주북구지리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1997. 387쪽

⑦ 병문(兵門) 【들】 제주도-북제주군-조천면-함덕출장소-함덕리-조천리의 병문.

⑤-⑦의 제주도의 병문천(屏門川)과 병문(兵門)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①의 광주 북구 중흥동의 병문(屏門)은 중가리(中街里), 대가리(大街里)와 같이 ‘골목 어귀의 길가’의 마을에 도둑이나 재난 등을 막음과 동시에 마을의 인심이 순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의도에 서 세웠던 병문(屏門)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태봉(胎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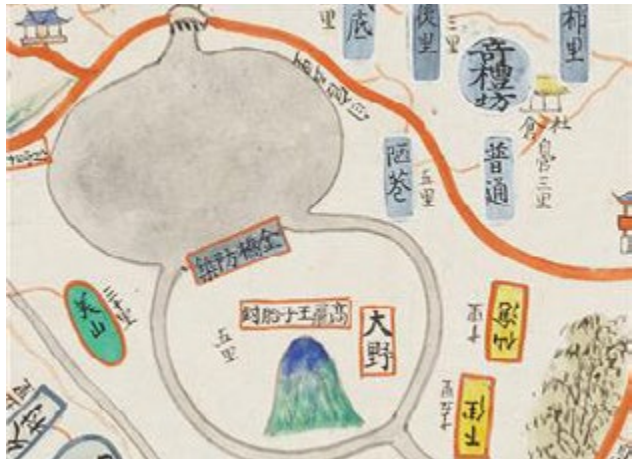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중흥동조에 태봉(胎峯) 마을이 있다.

- ① 태봉리(胎峯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 ② 태봉1(太峯, 胎峯)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태봉 밑에 있는 마을.
- ③ 태봉2(太峯, 胎峯) 【산】 광주시-북구-중흥동→ 태봉산.
- ④ 태봉동(胎峯洞) 【동】 광주시-북구- 1957년 11월 6일 동제 실시에 따라 신안동과 용봉동을 합하여 신흥동이라 하다가, 1973년 7월 1일 동제 변경으로 태봉로회로 고침.
- ⑤ 태봉산(胎峰山) [태봉] 【산】 광주시-북구-중흥동-태봉 남쪽에 있던 산. 높이 52m. 명당이 있다 하여 암장을 많이 하며, 암장을 하면 날이 가문다는 풍수설에서 1929년 7월 하순, 한 발로 인하여 묘를 찾다가 지른 4척, 높이 1.9척의 석분의 발견으로 조선 인조 때의 왕자 태를 장사지낸 곳임을 알았음. 명문에 천계 5년이라 했으니 인조 3년(1625)에 묻은 것임.

위 태봉(胎峯)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조에 태봉리(胎峯里)라 했고, ②의 태봉1(太峯, 胎峯) 마을은 ③, ⑤의 태봉산(胎峰山)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④의 태봉동(胎峯洞)은 1957년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신안동과 용봉동을 합하여 신흥동으로 불리다가, 1973년 태봉동으로 고쳐 불렸다. 현재 태봉(胎峯)은 광

주역에서 요한병원 쪽으로 가는 길을 ‘태봉로’로 지정되어 있고, 북부경찰서와 비엔날레 사이에 태봉초등학교라 하여 그 잔영이 남아 있다.

태봉산(胎峰山)은 본래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아아파트(옛 살레시오고등학교 자리)에서 광주역 일부 지역에 있었던 산명이다. 태봉산(胎峰山)은 규장각소장 『1872년 지방



『1872년 지방지도』 (도엽:광주) 태봉산(胎峯山)

지도』(도엽:광주)에 그림과 함께 “高麗王子胎封”으로 기록되어 있다.²²⁾ 태봉(胎峯) 마을은 태봉산 남쪽 기슭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967년 광주시청과 시청앞 부근에 있었던 경양방죽을 메우면서 태봉산(胎峰山)을 허물어 그 흙으로 메웠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산은 높이 52m로 예로부터 명당이 있다 하여 암장을 많이 했는데 1928년 7월 극심한 한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암장을 파헤치면 비가 온다는 속설에 따라 이 산을 파헤치던 중 높이 62cm, 직경 120cm의 석제 태실(胎室)을 발견했다. 태실 안에는 백자 태항아리와 금박 납석제의 다갈색 지석(誌石)을 수습하였으며 지석에는 “皇明天啓四年九月初三日辰時誕生王男大君阿只氏胎天啓五年三月二十五日藏”이라는 기록이 있어 왕남아기씨는 1624년(조선 인조) 9월 3일생이며 이듬해 3월에 장태(藏胎)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명은 태봉(胎封, 泰封, 台峰, 太峰)으로 표기되기도 한다.²³⁾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태봉을 보면 대개 임금이나 왕자의 태를 묻은 데서 불린 지명으로 나타난다.

⑥ 태봉【산】 경북-금릉군-대항면-운수동- 조선 정종의 태를 묻었다 함.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발행 『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23) 박선홍, 『광주1백년』②, 금호문화, 1994.

- ⑦ 태봉2(胎峯)【산】 충북-증원군-엄정면-괴동리- 이조 경종의 태를 봉하였음.
- ⑧ 태봉(胎峯)[태봉산]【산】 충북-청원군-산천- 이조 영조의 태를 묻었다가, 1930년경에 옮겨감.
- ⑨ 태봉【산】 경기도-성남시-증원구-대장동- 인조의 태를 모셨다 함.
- ⑩ 태봉(胎峯)【산】 대전시-유성구-용산동- 이조 태종의 태를 묻었다 함.
- ⑪ 태봉2(胎封)【산】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 태봉(마을) 뒤에 중종의 태를 봉하였음.
- ⑫ 태봉(胎峯)[태봉산] 【산】 충남-예산군-신양면-황계리- 이조 현종의 태를 묻었음.

위 태봉(胎峯)은 정종, 경종, 영조, 인조, 태종, 중종, 현종의 태를 봉안한 곳이라 했다. 이를 보면 태봉(胎峯), 태봉2(胎封)은 태를 묻었던 봉우리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국토정보맵(25k 1960) 태봉 마을



태봉산.<출전: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2. 중앙동(中央洞)

1) 북동(北洞)

(1) 연혁

- ① 보통(普通).<『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기례방리(奇禮坊里)>
- ② 누항리(陋巷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 ③ 누문리(樓門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 ④ 북동(北洞) 【동】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므로 누문리(樓門里)라 해서 광주면(光州面)에 편입되었으며, 1927년 누문리(樓門里)를 갈라서 북정, 누문정이라 하다가, 1948년 왜식동명 변경에 따라 북동회(北洞會)로 고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⑥ 1930. 4. 1. 지적원부에 의하면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하기에 앞서 通, 里를 町으로 통일하였다. 이때 신설된 정명(町名)의 변화표에 누문리(樓門里)는 분동되어 누문정(樓門町)과 북정(北町)이 되었다.
- ⑦ 1931. 4. 1. 부령(府令) 제112호에 의거 광주면(光州面)이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함에 광주읍 북정(北町)이 되었다.
- ⑧ 1935. 10. 1. 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 ⑨ 1947. 8. 15. 도령(道令) 제7호에 의거 광주부(光州府) 북동이 되었다.(町을 街와 洞으로 개칭)
- ⑩ 1948. 4. 1. 600호를 기준으로 통폐합할 때 광주시 북동1구회, 북동2구회가 되었다.
- ⑪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⑫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하면서 서부(西部)출장소 관할 북동(北洞)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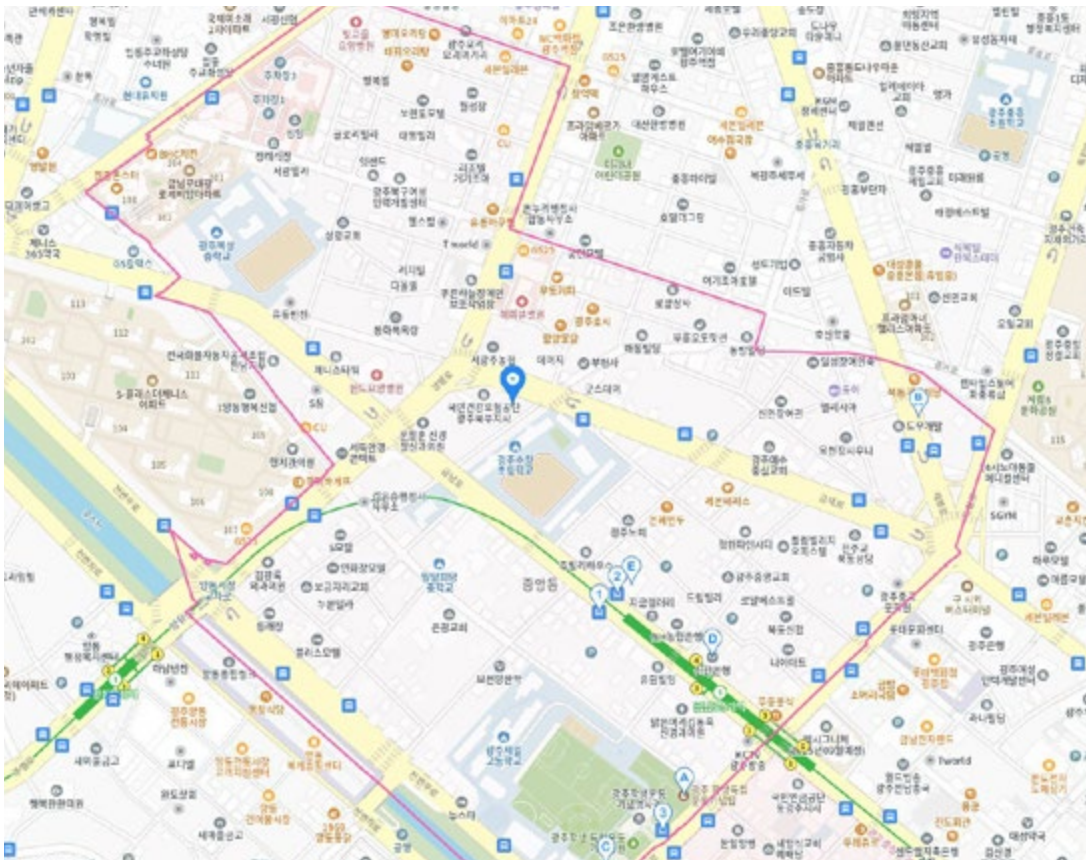
⑬ 1963. 1. 1. 서호동, 방하동, 신호동을 서창면으로 하고, 송석동, 등룡동, 학승동을 대촌면으로 하여 광산군에 편입하였다(광주시는 6출장소 45동 관할).

⑭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뉨. 광주시 서구(西區) 북동(北洞)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

⑮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



카카오맵(2024) 중양동 지역

*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병합하여 북구(北區)를 설치함. 광주시 북구(北區) 북동(北洞)이 되었다.

- ⑯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 ⑰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⑱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北洞)이 되었다.
- ⑲ 1997. 3. 1.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406호에 의거 유동, 북동, 누문동이 통합되어 중앙동이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관할 북동(北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북동(北洞)

- ① 보통(普通).<『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기례방리(奇禮坊里)>
- ② 보통(普通), 누항리(陋巷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
- ③ 누문리(樓門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위 북동(北洞)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의 보통(普通)과 ②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의 보통(普通), 누항리(陋巷里) 각 일부 지역이다. 그리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서는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는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각 일부를 병합한 지역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북동조에서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

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므로 누문리(樓門里)라 해서 광주면(光州面)에 편입되었으며, 1927년 누문리(樓門里)를 갈라서 북정, 누문정이라 하다가,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북동회(北洞會)로 고침이라 했다.

사실 1789년의 『호구총수』와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발간)에 광주는 41개 면으로 나타난다. 이후 1914년 4월 1일 개편 단행한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년 발간)을 보면 전라도 광주군 광주면은 다음 표와 같이 개편되었다.

개편면	개편이전	개편면	개편이전
궁정(弓町)	성내면	회원정(花園町)	공수방면
동문통(東門通)	성내면	부동정(不動町)	부동방정
서문통(西門通)	성내면	금동(錦洞)	부동방면
남문통(南門通)	성내면	서남리(西南里)	부동방면
북문통(北門通)	성내면	금계리(金溪里)	부동방면
동광산정(東光山町)	성내면	향사리(鄉社里)	부동방면
서광산정(西光山町)	성내면	성저리(城底里)	기레방면
서성정(西城町)	성내면	수기옥정(須奇屋町)	기레방면, 공수방면
북성정(北城町)	성내면	누문리(樓門里)	기레방면, 공수방면
중정(中町)	성내면		

위 표를 보면 광주면은 기존의 성내면과 공수방면, 부동방면, 기레방면을 합한 지역이다. 『호구총수』에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기레방리(奇禮坊里)는 성저리(城底里), 시리(市里), 하리(下里), 상루(上樓), 보통(普通), 신촌(新村)을 관할 했고, 서면(西面) 공수방리(公須坊里)는 상하촌, 신촌, 덕림리, 교촌을 관할 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조에서 “1927년 누문리(樓門里)를 갈라서 북정, 누문정이라 하다가,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북동회(北洞會)로 고침.”이라 했으나, 『광주동연혁지』(1991:31)에 의하면 1930년 4월 1일 법령 및 규칙은 알 수 없으나 읍승격에 앞서 通, 里의 명칭을 本町, 明治町 등의 町으로 바꿨으며 이때

<신설 정명(町名)의 변화표>를 보면 누문리(樓門里)를 갈라서 북정(北町), 누문정(樓門町)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를 보면 북동(北洞)은 1930년경 누문리(樓門里)를 갈라 누문정(樓門町)과 북정(北町)이 되었고, 이후 북정(北町)은 1948년 4월 1일 기존의 41개 가·동(街·洞)을 600호를 기준으로 36동회(洞會) 운영동으로 개편할 때 북동회(北洞會)가 되면서 북동(北洞) 1구동회(一區洞會), 북동(北洞) 2구동회(二區洞會)로 나뉘었는데, 1952년 36동회제(洞會制)가 폐지되고 28개 운영동으로 폐합할 때 북동(北洞)의 1구, 2구는 폐지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 누향(陋巷)

그렇다면 북동(北洞)은 어떤 연유에서 불렸을까? 「1879년 지방지도」(광주)를 보면 읍성, 공북문(拱北門), 공북루(拱北樓)를 볼 수 있다. 성을 드나드는 공북문(拱北門)과 공북루(拱北樓)가 있다. 그러기에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에 동문통(東門通), 서문통(西門通), 남문통(南門通), 북문통(北門通)을 두었고, 이후 1948년 4월 1일 기존의 41개 가·동(街·洞)을 600호를 기준으로 36동회(洞會) 운영동으로 개편할 때 북동회(北洞會)를 두었고 1952년 36동회제(洞會制)를 폐지하고 28개 운영동으로 폐합할 때 북동(北洞)을 두었으니 북동(北洞)은 북문(北門)에서 연유한 지명을 알 수 있다.

24) 향토문화연구회, 『광주동연혁지』 광주직할시, 1991. 31쪽.

▣ 누항(陋巷)

① 누항리(陋巷里) 각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② 누항리(陋巷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누문리(樓門里)>

위 누항(陋巷)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조에 누항리(陋巷里)라 했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조에 누항리(陋巷里)라 했는데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1872년 지방지도」(도엽:광주)에서이다.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년) 누항촌(陋巷村)

누항(陋巷)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대한한사전』을 보면 ‘陋’의 훈은 ‘좁을루’, ‘추할루’, ‘더러울루’, ‘고루할루’라 했고, ‘巷’은 ‘거리항’, ‘마을항’, ‘복도항’이라 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누항(陋巷)의 풀이를 보면 ① 좁고 지저분하며 더러운 거리나 마을. ② 자기가 사는 동네나 거리의 낮춤말이라 했다. 이로 보아 누항리(陋巷里)는 『우리말큰사전』의 풀이처럼 자기가 사는 동네나 거리를 낮추어 부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③의 누암리(陋菴里)와 ④의 누왕촌은 누항(陋巷)의 와전일 것이다.

한편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북동(北洞)에 수록된 지명들은 북동 지역의 지명이 아닌 것들이 있다. 아래에 보인 지명들은 광주 남구의 지명이들다. 당시 조사자의 잘못이거나 또는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동의 지명을 빠뜨리고 남구의 지명이 삽입되었

음을 알 수 있다.

- ⑥ 유안동(柳岸洞) 【마을】 광주시-북구-북동- → 외암동.
 - ㉠ 유안제(柳岸堤) 【못】 광주시-북구-북동- → 외암동못.
- ⑦ 조봉리(朝鳳里) 【마을】 광주시-북구-북동- → 조봉.
 - ㉠ 조봉(朝鳳) [종흔동, 조봉리] 【마을】 광주시-북구-북동- 유안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조 씨밋재 밑이 됨.
 - ㉡ 조봉제(朝鳳堤) [조봉못] 【못】 광주시-북구-북동- 조봉 동쪽에 있는 못.
- ⑧ 불로리(不老里) 【마을】 광주시-북구-북동- → 부체울.
- ⑨ 부체울 [불로리] 【마을】 광주시-북구-북동- 외암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 돌부처가 있었음.

2) 누문동(樓門洞)

(1) 연혁

- ① 상하촌(上下村) 일부.<『호구총수』 광주군 서면 공수방리(公須坊里)>
- ② 상촌리(上村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공수방면(公須坊面)>
- ③ 기례방면(奇禮坊面)의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
- ④ 누문동(樓門洞) 【동】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므로 누문리(樓門里)라 해서 광주면(光州面)(시)에 편입되었으며, 1927년 왜식으로 누문정이라 부르다가, 1935년 10월 유림촌(柳林村)을 갈라서 일부를 유정(柳町), 일부를 임정(林町)이라 하였는데,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정(町)을 동(洞)으로 고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유루동(柳樓洞)에 편입되었

- 다가, 1973년 동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누문동회가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0. 4. 1. 지적원부에 의하면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하기에 앞서 通, 里를 町으로 통일할 때 누문리(樓門里)는 분동되어 누문정(樓門町)과 북정(北町)으로 되었다.
 - ⑥ 1931. 4. 1. 부령(府令) 제112호에 의거 광주면(光州面)이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함에 광주읍(光州邑) 누문정(樓門町)이 되었다.
 - ⑦ 1947. 8. 15. 전라남도령 제7호에 의해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정(町)과 가(街)를 동(洞)으로 개칭할 때 누문정(樓門町)은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 ⑧ 1948. 4. 1. 41개 가(街)·동(洞)을 600호(戶)를 기준으로 36동회(洞會) 운영동(運營洞)으로



카카오맵(2024) 누문동 지역

로 개편할 때 누문동회(樓門洞會)가 되었다.

- ⑨ 1952년 36동회제(洞會制)를 폐지하고 28운영동으로 폐합할 때 충장로 5가동회와 누문동회(樓門洞會)는 충수동(忠須洞)이 되었다.
- ⑩ 1957. 12. 2. 122개 동(洞)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할 때 누문동(樓門洞)과 유동(柳洞)을 합한 행정동인 유루동(柳樓洞) 관할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 ⑪ 1961. 3. 10.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중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 8개 출장소를 두었다. 이때 서부출장소 유루동(柳樓洞) 관할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 ⑫ 1970. 6. 29. 광주시 조례 제348호에 의거 유루동(柳樓洞)은 유동(柳洞)과 누문동(樓門洞)으로 분동되었다.
- ⑬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어 따라 서구(西區)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는 관할이 됨.
 -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는 관할이 됨.
- ⑭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됨에 북구(北區)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 *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병합하여 북구(北區)를 설치함.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됨
- ⑮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광주직할시로 승격됨에 광주직할시 북구 누문동이 되었다.
-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이 되었다.
- ⑰ 1997. 3. 1.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406호에 의거 북동, 누문동, 유동이 통합되어 중앙동이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관할 누문동(樓門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와 어원

▣ 누문(樓門)

누문(樓門)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의 상루(上樓)와 공수방리(公須坊里)의 상하촌(上下村) 지역이었고, 1896년 행정 구역이 개편될 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의 상루(上樓)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 구역이 개편될 때는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 지역이었으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조에 “누문동(樓門洞)은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公須坊里)의 상촌리(上村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므로 누문리(樓門里)라 해서 광주면(光州面)(시)에 편입되었으며, 1927년 왜식으로 누문정(樓門町)이라 하다가, 1935년 10월 유림촌(柳林村)을 갈라서 일부를 유정(柳町), 일부를 임정(林町)이라 하였는데,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정(町)을 동(洞)으로 고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유루동(柳樓洞)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제 변경에 따라 다시 누문동회가 됨.”이라 했다.

하지만 『광주동연혁지』(1991:31)에 의하면 1930년 누문리(樓門里)는 누문정(樓門町)과 북정(北町)으로 갈라졌고, 유림촌(柳林村)은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갈라졌으며, 1947년 8월 15일 전라남도령 제7호에 의해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정(町)과 가(街)를 동(洞)으로 개편할때 누문정(樓門町)은 누문동(樓門洞)이 되었고 1952년 동회제(洞會制)가 폐지되고, 1957년 12월 2일 122개 동(洞)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절양루(1910년)<출전:광주민속박물관>

지산, 서창, 대촌 4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 유동(柳洞)과 누문동(樓門洞)은 유루동(柳樓洞)이 되었고, 1970년 유루동(柳樓洞)은 유동(柳洞)과 누문동(樓門洞)으로 분동 되었다 했다.

누문동(樓門洞)의 누문(樓門)은 절양루(折楊樓)라는 누문(樓門)에서 연유한 지명인지 절양루(折楊樓)의 누(樓)와 공북문(拱北門)의 문(門)을 합한 지명인지 알 수 없다. 현재 누문동(樓門洞)은 옛날 절양루(折楊樓)가 있었던 광주일고등학교 교정 옆 광주학생독립기념탑 옆 도로를 기준으로 동편은 수기동(須奇洞)이고 광주일고 방향인 서편은 누문동(樓門洞)이다.

절양루(折楊樓)는 충장로가 끝나는 지점인 충장로 5가 100번지 앞에 있었다고 전해온다. 건물은 2층 누각형태였으며, 17세기 광주 사또 오두인이 공북루(拱北樓)로 이름을 고쳐 불렀다 하는데 그런데도 예전 이름 그대로 절양루(折楊樓)로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이 누각은 조선시대에 읍내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읍내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관문으로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장소였던 셈이다. 그러기에 절양루(折楊樓)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다”라는 의미로 불렀다 하며 1916년 철거되었다.²⁵⁾

공북문(拱北門)은 광주읍성의 북문으로 충장로3가가 끝나는 지점(충장로 파출소)에 있었다. 이름은 ‘북쪽을 떠받든다’는 뜻이었는데, 북쪽은 서울 즉 임금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므로, 조선시대에 공북문 바깥쪽은 지금의 충장로 4가쪽인데 15세기 광주에 처음 생긴 장터였기에 마을 이름을 시리(市里)라 했다. 이후 장이 커지면서 시장은 광주천변으로 옮겨졌고 큰 장터 작은 장터 등 2개로 늘어났다. 조선후기지도(광주)에는 공북문(拱北門)과 공북루(拱北樓)가 표기되어 있다.

25) 광주민속박물관 2층 전시실 게시물 중 절양문 설명문에서

3) 유동(柳洞)

(1) 연혁

- ① 기례방면(奇禮坊面) 지역으로 마을이 없고 버드나무 길에 있었음. <『호구총수』>.
- ② 유림리(柳林里)²⁶⁾.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신안리(新安里)>
- ③ 유동(柳洞) [버드리, 유림촌] 【동】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의 지역으로서 버드나무가 많으므로 버드리 또는 유림촌(柳林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공수방면(公須坊面)의 상촌리(上村里) 일부를 병합하여 누문리(樓門里)라 해서 광주면에 편입되었으며, 1927년 왜식으로 누문정(樓門町)이라 하다가, 1935년 10월 유림촌(柳林村)을 갈라 일부를 유정(柳町), 일부를 임정(林町)이라 하였는데,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유동(柳洞)으로 고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유루동(柳樓洞)의 관할이 되었다가, 1973년 동제 변경에 따라 다시 유동회(柳洞會)로 고침.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④ 1923. 4. 1. 광주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서방면 유림촌(柳林村) 일부가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 ⑤ 1930. 4. 1. 지적원부에 의하면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하기에 앞서 通, 里를 町으로 통일할 때 유림촌(柳林村)은 갈라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분리되었다.
- ⑥ 1931. 4. 1. 조선총독부령(府令) 제112호에 의거 광주면이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⑦ 1935. 10. 1.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 ⑧ 1945. 8. 15. 일본 패망.
- ⑨ 1947. 8. 15. 전라남도령(道令) 제7호에 의거 일본식 정(町)을 가(街), 동(洞)으로 바꾸면

26)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신안리(新安里)조에 동각면 유림리라 있으나 동각면은 오기로 보임.

서 유정(柳町)은 유동(柳洞)이 되었다

- ⑩ 1948. 4. 1. 600호를 기준으로 통폐합할 때 광주부(光州府) 유동회(柳洞會)가 되었다.
- ⑪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⑫ 1952. 36동회제(洞會制)를 폐지하고 28운영동으로 폐합할 때 유동(柳洞)이 되었다.
- ⑬ 1957. 12. 2. 122개 동(洞)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할 때 누문동(樓門洞)과 유동(柳洞)을 합해 설치한 행정동인 유루동(柳樓洞) 관할 유동(柳洞)이 되었다.
- ⑭ 1961. 3. 10.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중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 8개



카카오맵(2024) 유동 지역

출장소를 두었다. 이때 서부출장소 유루동(柳樓洞) 관할 유동(柳洞)이 되었다.

⑮ 1970. 6. 29. 광주시 조례 제348호에 의거 유루동(柳樓洞)은 유동(柳洞)과 누문동(樓門洞)으로 분동 되었다.

⑯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었다. 광주시 서구(西區) 유동(柳洞)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

⑰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설치됨에 북구 유동(柳洞)이 되었다.

*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병합하여 북구(北區)를 설치함.

⑱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⑲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⑳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柳洞)이 되었다.

㉑ 1997. 3. 1.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406호에 의거 유동, 북동, 누문동이 통합되어 중앙동이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관할 유동(柳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유림촌(柳林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유동(柳洞)과 임동(林洞)조에 유림(柳林) 마을이 있다.

- ① 유림촌(柳林村) 【마을】 광주시-북구-유동- → 유동.
- ② 버드리 【마을】 광주시-북구-유동- → 유동.
- ③ 유림수(柳林藪) 【숲】 광주시-북구-임동-임동과 유동의 전역에 걸쳐 있던 숲.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가로 광주 어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또 광주천을 끌어 들인 수로의 뚝을 보호하려고 심었음.

유림촌(柳林村)은 『호구총수』에는 기례방면(奇禮坊面) 지역으로 마을이 없고 버드나무 길만 있었으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볼 수 없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1923년 서방면 유림촌(柳林村) 일부가 광주시에 편입되었고 1930년 유림촌 (柳林村)은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분리되었다가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유동(柳洞)과 임동(林洞)이 되었다. 1957년 유동(柳洞)과 누문동(樓門洞)을 합하여 행정동 유루동(柳樓洞)을 두고 관할했으며, 1970년 유루동(柳樓洞)은 누문동(樓門洞)과 유동(柳洞)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 유림숲

유림(柳林) 마을의 고유어 지명은 ‘버드리’를 훈차 표기한 지명이다.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한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1989:114쪽)에 의하면 광주의 서북단 장성가도(長城街道)에 이르는 광주천 동안(東岸) 일대가 숲을 이루었는데 교통에 장애가 있다 하여 1968년 유림 숲을 모두 베어 버렸다 한다. 이 책에는 유림숲의 옛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다.²⁷⁾ 또 박선홍은 『광주1백년』②에서 “원래 유림숲길은 한말에 개설된 목포-서울-신의주선인 국도1호선 가운데 누문동에서 유동, 임동을 거쳐 일신방직 앞까지 양편에 있었다 하며 팽나무, 참느릅나무, 귀목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버드나무 등의 울창한 가로수가 숲을 이루었다 했다.”²⁸⁾

이 숲은 마치 오늘날 담양읍에서 순창 방향의 도로변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아 숲길처럼 옛날 옛 광주에서도 버드나무숲(柳林藪)이 그 자태를 뽐냈다 했다. 또 이 숲은 규장각 소장 1872년 『조선후기지도』(광주)에도 유림수(柳林藪)란 표기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라우도광주지도(全羅右道光州地圖)에도 ‘柳林藪’[유림숲]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1999년 광주민속박물관에서 시행한 「광주의 역사와 문화」 기획전시회에 이 유림숲(柳林숲) 사진이 전시된 바 있다.

조선조 이시진의 『본초(本草)』에 “버드나무는 가지가 단단하여 위로 뻗으면 楊이라 하고 연약하여 아래로 드리우면 柳라 한다.” 하였다. 하지만 아래로 늘어진 것을 수양(垂楊)버들이라 하고, 왕버들(河柳)은 위로 뻗을지라도 柳(버들)라 하므로 꼭 맞는 설명은 아니라 한다. 그러므로 유림촌(柳林村)은 옛날 이곳에 심어진 왕버들과 팽나무 등의 유림숲(柳林藪村)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27) 광주광역시, 『사진으로 본 광주100년』, 광주직할시. 1989.114쪽.

28) 박선홍, 『광주1백년』②, 금호문화, 1994. 239쪽에서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3. 임동(林洞)

1) 연혁

- ① 기례방면(奇禮坊面) 지역으로 마을이 없고 버드나무 길이었음. <『호구총수』>.
- ② 유림리(柳林里)²⁹⁾.<『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신안리(新安里)>
- ③ 임동(林洞) [버드리, 유림촌] 【동】 본래 광주군 기례방면의 지역으로서 버드나무가 많으므로 버드리 또는 유림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누항리 일부과 공수방면의 상촌리 일부를 병합하여 누문리라 하여 광주면(시)에 편입되었는데, 1927년 왜식으로 누문정이라 하다가 1935년 10월 유림촌을 갈라 일부를 유정, 일부를 임정이라 하였는데, 1948년 왜식 동명변경에 의하여 임동회로 고침(유동 및 누문동 참조).<『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④ 1923. 4. 1. 광주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서방면 유림촌(柳林村) 일부가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 ⑤ 1930. 4. 1. 지적원부에 의하면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하기에 앞서 通, 里를 町으로 통일할 때 유림촌(柳林村)은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분리되었다.
- ⑥ 1931. 4. 1. 조선총독부령(府令) 제112호에 의거 광주면이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⑦ 1935. 10. 1.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 ⑧ 1945. 8. 15. 일본 패망.
- ⑨ 1946. 4. 5. 일제의 잔영을 없애기 위해 법적 조치를 밟지 않고 잠정조치로 41정을 41동으로 고치면서 임정1구(林町1區)는 진동(鎭洞), 임정2구(林町2區)는 탁동(卓洞)으로 바꾸었다(1946. 3. 13. 光民日報).

29)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 신안리(新安里)조에 동각면(東角面) 유림리(柳林里)라 하였으나 동각면(東角面)은 오기로 보인다.

- ⑩ 1947. 8. 15. 전라남도령(道令) 제7호에 의거 광주부(光州府) 임정(林町)은 임동(林洞)이 되었다.(町을 街와 洞으로 개칭)
- ⑪ 1948. 4. 1. 41가(街)·동(洞)을 600호를 기준으로 36동회(洞會) 운영동으로 개편함에 임동(林洞)은 임동회(林洞會)가 되었다.(府勢一斑, 1948년판)
- ⑫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⑬ 1952. 36동회제(洞會制)를 폐지하고 28 운영동제를 실시할 때 임동회(林洞會)는 임동(林洞)이 되었다.
- ⑭ 1961. 3. 10.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중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 8개 출장소를 둘 때 서부출장소 관할 임동(林洞)이 되었다.
- ⑮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의 실시로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눌 때 광주시 서구(西區) 임동(林洞)이 되었다.
-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
- ⑯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
- *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병합하여 북구(北區)를 설치함. 광주시 북구(北區) 임동(林洞)이 되었다.
- ⑰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 ⑱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⑲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林洞)이 되었다.



카카오맵(2024) 임동 지역

▣ 임동(林洞)

위 임동(林洞)은 광주(光州) 기례방면(奇禮坊面) 지역으로 광주읍성의 북문과 공북루가 있었던 누문동에서 유동, 임동을 거쳐 일신방직 앞까지 양편에 있었던 유림숲[柳林藪] 즉 팽나무, 참느릅나무, 귀목나무, 이팝나무, 뽕나무, 버드나무의 가로수가 밀집하여 울창한 숲을 이룬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을 형성되지 않아 1789년 『호구총수』와 1896년 행정 구역이 개편된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기록을 볼 수 없다.



유림숲(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이후 일제 강점기 초기인 1912년 광주공립농업학교가 임동 92번지로 이전(1976년 오치동 이전)함을 필두로 종묘장(種苗場)이 들어서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³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광주면조를 보면 신안리(新安里)는 오치면 청계리, 서양면 이동리(泥洞里), 동각면(東角面) 유림리(柳林里)를 병합한 곳이라 했다. 그러나 동각면(東角面) 유림리(柳林里)는 지금의 광산구 평동 지역의 마을이므로 이 곳 임동(林洞)과는 무관한 곳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누문동에서 유동, 임동을 거쳐 일신방직 앞까지 양편에 있었던 유림숲[柳林藪] 인근에 형성되었던 마을의 영향으로 착오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이후 1923년에 서방면 瑞坊面) 신안리의 유림촌(柳林村)이 광주시에 편입되었고, 1935년 유림촌(柳林村)은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학동에 있던 가네보 공장(種淵紡績), 후에 일신방직(주), 전방(주) 공장으로 확장이 옮겨오면서 본격적으로 시가지화되었다 하며, 1948년 일본식 지명 후부요소인 정(町)을 가(街)와 동(洞)으로 통일하면서 임

30) 이종일 전) 광주남구문화원장님의 전언

정(林町)은 임동(林洞)이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시계획에 의해 저습지를 매립하여 1965년 건설된 무등경기장의 전신인 공설운동장이 들어섰고, 이후 야구장, 수영장이 부설되고 2014년 기아챔피언스필드가 들어섰고, 인근의 전남고등학교가 2003년 상무지구로 이전함에 주거지(아파트촌)가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유림촌(柳林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유동(柳洞), 임동(林洞)조에 유림(柳林) 마을이 있다.

- ① 유림촌(柳林村) 【마을】 광주시-북구-유동- → 유동.
- ② 버드리 【마을】 광주시-북구-유동- → 유동.
- ③ 유림수(柳林藪) 【숲】 광주시-북구-임동- 임동과 유동의 전역에 걸쳐 있던 숲.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가로 광주 어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또 광주천을 끌어 들인 수로의 뚝을 보호하려고 심었음.

위 유림(柳林) 마을은 고유어 지명인 ‘버드리’를 차자 표기한 지명이다. 이곳은 기레방면의 지역으로서 광주읍성의 북문과 공북루로부터 서울 가는 가로변에 조성된 버드나무 숲에서 유래했다. 유림촌(柳林村)은 『호구총수』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공수방면(公須坊面)에는 마을 이름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1935년 행정구역개편 때 유정(柳町)과 임정(林町)으로 나뉘었고,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유동(柳洞)과 임동(林洞)이 되었다. 그러나 유림숲은 도로의 통행에 장애가 된다 하여 1968년 모두 베어져 없어졌다. 하지만 유림숲[柳林藪]은 유동(柳洞)과 임동(林洞)의 유래가 되었다.

4. 신안동(新安洞)

1) 연혁

- ① 신촌(新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
- ② 신촌리(新村里), 누암리(樓巖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 ③ 청계리(淸溪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④ 이동리(泥洞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⑤ 오치면(梧峙面) 청계리(淸溪里), 서양면 이동리(泥洞里), 동각면(東角面) 유림리(柳林里), 기례방면(奇禮坊面)의 누항리(陋巷里) 각 일부, 신촌리(新村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신안리(新安里)>
- ⑥ 신안동(新安洞) 【동】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청계리(淸溪里) 일부와 서양면(瑞陽面)의 이동리(泥洞里) 일부, 동각면(東角面)의 유림리(柳林里) 일부와 기례방면(奇禮坊面)의 신촌리(新村里), 누암리(樓巖里) 일부를 병합하여 신안리(新安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신룡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⑦ 1931. 4. 1. 총독부령 제103호(1930. 12. 29)에 의거 광주면이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⑧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군(光州郡)을 광산군(光山郡)으로 개칭함에 따라 전라남도 광산군 서방면 신안리(新安里)가 되었다.
- ⑨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광산군 서방면(瑞坊面) 11리가 광주시에 편입됨에 광주시 서방면 신안리가 되었다.
- ⑩ 1955. 7.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풍향(후에 서방), 망월(후에 석곡) 덕림(후에 극락), 진월(후에 효지)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하여 36개 동(洞)을 관할함에 따라 전라

남도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⑪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고 석곡출장소(충효·청옥·장운),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서창출장소(서호, 방하, 신호), 대촌출장소(송석, 등룡, 학승) 등 4개 출장소를 두었다. 51개 운영동 중 효죽동, 문화동, 서산동, 신룡동(新龍洞)의 관할 법정동은 다음과 같다.

* 효죽동(孝竹洞) : 우산동, 풍향동, 중흥동.

* 문화동(文化洞) : 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카카오맵(2024) 신안동 지역

* 서산동(瑞山洞) : 오치동, 매곡동, 삼각동.

* 신룡동(新龍洞) : 신안동, 용봉동.

⑫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시 서부출장소 신룡동(新龍洞) 관할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⑬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로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어 따라 서구(西區)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운영동 32, 법정동 53)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운영동 26, 법정동 46)

⑭ 1973. 7. 1. 광주시 조례 540호(1973. 6. 12)에 의거 신룡동(新龍洞)은 태봉동(胎峯洞)으로 개칭하고 신안동(新安洞), 용봉동(龍鳳洞)을 관할했다.(운영동으로 신룡동 명칭은 없어짐)

⑮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신설됨에 따라 북구 태봉동(胎峯洞) 관할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 동구(東區) 관할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과 석곡출장소 관할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새로 북구(北區) 관할이 되었다.

⑯ 1983. 10. 1. 광주시 조례 제1197호(1983. 9. 7)에 의거 태봉동(胎峯洞)은 신안동(新安洞)과 용봉동(龍鳳洞)으로 분동되었다.(태봉동은 없어짐)

⑰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북구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⑱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⑲ 1995. 1. 1. 법률 제4789호로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新安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청계(淸溪) 마을

위 청계(淸溪) 마을은 『구한국지방 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조에 청계리(淸溪里)라 하였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조에 오치면(梧峙面) 청계리(淸溪里) 지역이라 하였다.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을 보면 청계리(淸溪里)는 봉곡리 남쪽 으로 전남대 농대 서편으로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신안동 청계리

흐르는 하천과 전남대 정문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합수하는 곳의 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①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신안리조에서 청계(淸溪) 마을은 “자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청계(淸溪) 마을을 찾아 보면 전남대 농대 서편으로 흐르는 하천과 전남대 정문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합수한 후 광천동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북쪽에 ‘신안2구’로 표기된 마을이다. 그리고 ②의 ‘자미’ 마을은 신안사거리에서 앞의 두 물이 합수된 후 광천동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와 맞닿기 직전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자미’는 ‘들자미’와 ‘맷저매’가 있는데 청계(淸溪) 마을은 봉정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서 ‘맷저매’라 불렸던 곳이다. 그리고 ③에서 ‘자미’ 마을에는 자산(紫山)이라는 산이 있다 했다. 이 산은 ④에서 봉정산이라 했다. 봉정산은 청계 마을 뒷산으로 주위에 광주기상청과 경신여고가 있다.

- ① 청계(淸溪) [청계, 청계리]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자미 북쪽에 있는 마을.
- ② 자미1 [저매, 재매]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신안동에서 으뭉되는 마을.
- ③ 자산(紫山) 【산】 광주시-북구-신안동→자미2.

④ 봉정산(鳳頂山) 【산】 광주시-북구-신안동→자미2.

⑤ 들자미 [들재메]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자미 남쪽, 들가에 있는 마을.

그렇다면 청계(淸溪)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청계(淸溪)라 불리는 지명을 살펴보면

⑥ 청계리(淸溪里) [맑은재, 청계골, 청계] 【리】 경기도-화성군-동탄면- 본래 수원(화성)군 동북면의 지역으로서, 신갈천(경기도 산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되므로 맑은내 또는 청계라 하였는데,

⑦ 청계리(淸溪里) [청계] 【리】 전남-무안군-청계면- 본래 무안군 일서면의 지역으로서 냇물이 어떠한 한발에도 마르지 않고 맑기로 유명하다 하여 청계라 하였는데,

⑧ 청계리(淸溪里) [청계] 【리】 경북-영일군-청하면- 본래 청하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맑은 시내가 있으므로 청계라 하였는데,

⑨ 청계동(淸溪洞) [청계리] 【마을】 충남-아산군-음봉면-송촌리- 송오촌 남서쪽에 있는 마을. 수한성, 꾀꼬리성(충남-아산)에서 흐르는 맑은 시내가 있음.

⑥-⑨에서 청계(淸溪)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므로 불렸다 했다.

이로 보아 이곳 광주시 북구 ①-②의 청계리(淸溪里)도 삼각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에 연유해서 ‘맑은 시내라’라는 의미에서 ‘淸’(맑을청)자와 ‘溪’(시내계)를 합해 불린 지명으로 추정한다.

▣ 자미[紫山] 마을

『한국지명총람』 광주 북구 신안동조에 자미[紫山] 마을을 볼 수 있다.

- ① 자미1 [저매, 재매]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신안동에서 으뜸 마을.
- ② 자미2 [자산, 봉정산] 【산】 광주시-북구-신안동-멧저매 북쪽에 있는 산.
- ③ 자산(紫山) 【산】 광주시-북구-신안동-→ 자미2.
- ④ 봉정산(鳳頂山) 【산】 광주시-북구-신안동-→ 자미2.
- ⑤ 들자미 [들재매]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자미 남쪽, 들가에 있는 마을.
- ⑥ 멧저매 【마을】 광주시-북구-신안동- 자미 북쪽, 산 밑에 있는 마을.

위 ①의 ‘자미’ 마을은 이칭이 ‘저매’ 또는 ‘재매’로 불린다. ②의 ‘자미’의 한자 표기는 ③의 자산(紫山)이다. 이칭은 ④의 봉정산(鳳頂山)이다. ‘자미’ 마을은 ⑤의 ‘들자미(들재매)’와 ⑥의 ‘멧저매’로 나뉜다. ‘멧저매’의 ‘멧’은 산(山)의 옛말 ‘매’에 사이시옷이 붙은 어사이고 ‘저매’는 ‘자매’가 변한 지명인데 ‘자’는 성(城)의 옛말 ‘жат’의 스음이 탈락한 어형이고, ‘매’는 산(山)의 옛말이다. 산(山)의 옛말 ‘매’는 ‘미’, ‘메, 매’, ‘뫼’의 이형태(異形態)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미’, ‘자매’, ‘재매’는 모두 성산(城山)을 뜻한다. 그러기에 ‘들자미(들재매)’는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 ‘자미’로 불리는 마을이고, ⑥의 ‘멧저매’는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 ‘신안2구’라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예전의 청계(淸溪) 마을로 불리는 지금의 봉정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마을이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 신안동 ‘자미’ 마을

그렇다면 ‘자미’는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자미’로 불

리는 지명은 약 15개를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그 유래가 성(城)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명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⑦ 자미산(紫微山) [부성산, 성성산] 【산】 전남-나주군-산천-반남면 대안리, 신 촌리와 석천리 경계에 있는 산. 봉우리에 용황천과 옛 성터 및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금동관은 백제의 것으로 유명함.
- ⑧ 자미성터【터】 전북-진안군-부귀면-황금리-노래재 동쪽에 있는 성터.
- ⑨ 자미들 【마을】 경북-달성군-구지면-내동- → 성땀.
 - ㉠ 성산1(城山) 【마을】 → 성땀.<상동>
 - ㉡ 성산2(城山) [성터] 【터】 성땀 뒤에 있는 성터.<상동>
 - ㉢ 성산동(城山洞) 【마을】 → 성땀.<상동>
 - ㉣ 성터【터】 → 성산.<상동>

위 ⑦의 자미산(紫微山)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신촌리와 석천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이칭이 ‘부성산’ 또는 ‘성성산’으로 불리며, 정상에 옛 성터 및 고분군이 밀집된 곳이다. 이곳 고분군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었으며, 목포대학교와 나주시에서 시굴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³¹⁾ ⑧의 ‘자미성터’도 ‘성터’라 했으며, ⑨의 ‘자미들’도 이칭이 ‘성땀’이라 했고, 이곳에는 ⑨-㉠-㉡의 성산(城山), 성산동(城山洞), 성터 등의 지명이 공존함을 볼 때 성과 관련된 지명이다.

그러면 ③의 자산(紫山)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는 전국에 자산(紫山)이 약 30여 곳에서 불리고 있다. 이들 중에서 그 유래가 성(城)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명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31)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4. 18쪽.(이 책은 백제학회에서 2013년 12월 5일-6일에 걸쳐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글과 토론문을 엮은 것임)

- ⑩ 자산(紫山) 【마을】 경북-김천시-성내동- 성내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성내(城內) 【마을】 경북-김천시-성내동- → 성내동.
- ⑪ 자산 【마을】 경북-울진군-기성면-척산리- → 척산리.
- ㉠ 객사터【터】 경북-울진군-기성면-척산리- 자산 안, 곧 척산리 165번지에 있는 옛 기성현의 객사터.
- ㉡ 동헌터(東軒一) 【터】 경북-울진군-기성면-척산리-자산 안, 곧 척산리 14의 9번지에 있는 옛 기성현의 동헌 터.
- ⑫ 자산동(慈山洞)[자산, 척산] 【동】 경남-마산시-합포구- 본래 합포현의 지역으로서 고개가 있는 산 밑이 되므로 자산 또는 척산이라 하였는데,
- ㉠ 척산(尺山) 【마을】 경남-마산시-합포구-자산동- → 자산동.
- ㉡ 정상수옹(1982:171) 마산 자산에 자산동성(慈山洞城)이 보고 되고 있다.
- ⑬ 자산【산】 대구시-수성구-옥수동- → 시리봉.
- ㉠ 시리봉 [자산, 자양산] 【산】 대구시-수성구-옥수동-봉암 북동쪽에 높이 솟아 있는 봉우리. 높이 471m. 모양이 시리(시루)를 얹어 놓은 것 같음. 석성터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박응성장수가 왜적을 방비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 함.
- ㉡ 정상옹(1982:131) 수성현 서 10리에 성선산고성(成仙山古城)이 보고 되고 있다.

⑩의 자산(紫山)은 “성내동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으며, ㉠에서 성내동에는 성내(城內) 마을이 불리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산(紫山)의 ‘紫’는 성(城)의 옛말 ‘жат’의 말음 ‘시’가 탈락된 어형이다. ⑪의 ‘자산’은 척산리(尺山里)라 하였으니 ‘尺’은 훈이 ‘자’이나 본래 성(城)의 옛말 ‘жат’의 말음 ‘시’가 탈락한 ‘жат’을 훈차(訓借) 표기한 어사다. ⑫의 자산동(慈山洞)도 이칭이 척산(尺山)이라 하였다. 정상수옹(1982:171)³²⁾에서 마산 자산에 자산동성(慈山洞城)이 보고 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산(慈山)의 ‘慈’는 성(城)의 옛말 ‘жат’의 말음인 ‘시’가 탈락한 ‘자’를 음차 표기한 어사로 보인다. ⑬의 ‘자산’도 이칭이 ‘시리봉’이라 하였는데 ㉠에서 ‘시리봉’에는 석성터가

32) 정상수옹(1982:171), “조선성곽일람-경상남북도편-”, 『조선학보』 103집, 조선학회, 131쪽

있다 했고, 정상수웅(1982:131)에서 수성현 서쪽 10리에 성선산고성(成仙山古城)이 보고 되고 있음을 볼 때 성(城)에 연유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자산(紫山)은 자미산(紫微)의 ‘微’(미)가 ‘山’으로 표기된 지명일 것이다.

이로 보아 광주 북구 ①, ②의 ‘자미’는 ‘жат+미’로 분석되며, ‘жат’은 성(城)의 옛말이고, ‘미’는 산(山)의 옛말 ‘뫼’, ‘메’의 이형태이며, ③의 자산(紫山)은 성(城)의 옛말 ‘жат’의 ㅅ 말음이 탈락한 ‘자’를 음이 같은 ‘紫’(자줏빛 자)로 표기한 음가자(音假字)로 보이고,³³⁾ ‘山’은 산의 옛말 ‘미’의 훈독자(訓讀字)로 여겨진다.³⁴⁾ 따라서 위 ①, ②의 ‘자미’는 이곳에 성(城)이 있었다는 증거는 볼 수 없지만 분명 성(城)에 연유한 지명으로 추정한다.

5. 용봉동(龍鳳洞)

1) 연혁

- ① 반룡리(盤龍里),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와지리(蛙只里)>
- ② 반룡리(盤龍里), 용주리(龍珠里), 봉곡리(鳳谷里), 청계리(淸溪里), 하촌리(下村里)의 각 일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悟峙面)>
- ④ 오치면(悟峙面) 반룡리(盤龍里), 용주리(龍珠里), 봉곡리(鳳谷里), 청계리(淸溪里), 하촌리(下村里)의 각 일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
- ⑤ 용봉동(龍鳳洞) 【동】 본래 광주군 오치면(悟峙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반룡리(盤龍里), 용주리(龍珠里), 봉곡리(鳳谷里), 청계리(淸溪里), 하촌리(下

33) 음가자(音假字)는 한자의 원 뜻을 버리고, 차자(借字)를 음(音)으로 읽는 차자법. 예) 서동방을(薯童房乙)의 ‘乙’은 ‘새’라는 한자의 뜻은 버리고 ‘을’이라는 음만을 취해서 ‘을’로 읽는 차자법이다.(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출판부, 1986. 15쪽)

34) 훈독자(訓讀字)는 차자를 훈(訓)으로 읽고 그 원 뜻을 살리는 차자법. 예) 산(山)의 옛훈이 ‘뫼’, ‘매’, ‘메’, ‘미’였는데 그 중 ‘미’로 읽어 산(山)이라는 뜻을 살리는 차자법이다.(남풍현(1986:15) 앞 책)

村里)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반룡과 봉곡의 이름을 따서 용봉리(龍鳳里)라 하여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는데,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로 신룡(태분)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⑥ 1931. 4. 1. 총독부령 제103호(1930. 12. 29)에 의거 광주면은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⑦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군(光州郡)이 광산군(光山郡)으로 개칭되고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함에 따라 전라남도 광산군 서방면 용봉리(龍鳳里)가 되었다.
- ⑦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⑰ 1947. 8. 15. 도령(道令) 제7호에 의거 정(町)을 가(街)와 동(洞)으로 통일했다.
- ⑰ 1948. 4. 1. 종전의 41개 가동(街洞)을 600호를 기준으로 36동회(洞會) 운영동으로 개편했다.



카카오맵(2024) 용봉동 지역

- ⑧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光州府)를 광주시(光州市)로 개칭하였다.
- ⑨ 1952년 36동회(洞會)제를 폐지하고 28개 운영동으로 폐합하였다.
- ⑨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광산군 서방면(瑞坊面) 전역(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 등 11리)이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 ⑨ 1955. 7.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풍향(후에 서방), 망월(후에 석곡) 덕림(후에 극락), 진월(후에 효지)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하여 36개 동(洞)을 관할할 때 전라남도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용봉동이 되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고 석곡출장소(충효·청옥·장운),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서창출장소(서호, 방하, 신호), 대촌출장소(송석, 등룡, 학승)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51개 운영동 중 효죽동, 문화동, 서산동, 신룡동(新龍洞)의 관할 법정동은 다음과 같다.
- * 효죽동(孝竹洞) : 우산동, 풍향동, 중흥동.
 - * 문화동(文化洞) : 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 * 서산동(瑞山洞) : 오치동, 매곡동, 삼각동.
 - * 신룡동(新龍洞) : 신안동, 용봉동.
- ⑫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가 실시되었다.
- * 서부출장소 운영동 신룡동(新龍洞) 관할 용봉동(龍鳳洞)이 되었다.
- ⑬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눌 때 서구(西區) 신룡동(新龍洞) 관할 용봉동(龍鳳洞)이 되었다.
-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운영동 32, 법정동 53)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운영동 26, 법정동 46)

- ⑮ 1973. 7. 1. 광주시 조례 540호(1973. 6. 12)에 의거 신훈동(新龍洞)을 태봉동(胎峯洞)으로 개칭하고 용봉동(龍鳳洞)과 신안동(新安洞)을 관할했다.
- ⑯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에 북구(北區) 설치됨에 북구 태봉동(胎峯洞) 관할 용봉동(龍鳳洞)리 되었다.
-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과 석곡출장소 관할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 ⑰ 1983. 10. 1. 광주시 조례 제1197호(1983. 9. 7)에 의거 태봉동(胎峯洞)은 신안동(新安洞)과 용봉동(龍鳳洞)으로 분동되었다.(태봉동 명칭은 사라짐)
- ⑱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이 되었다.
- ⑳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㉑ 1995. 1. 1. 법률 제4789호로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와 어원

▣ 반룡(盤龍)

- ① 반룡리(盤龍里),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와지리(蛙只里)>
- ② 반룡리(盤龍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④ 오치면(梧峙面) 반룡리(盤龍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
- ⑤ 반룡(盤龍) [반룡리]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용주 서북쪽에 있는 마을.

반룡리(盤龍里)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반룡.

위 반룡(盤龍) 마을은 ①에서 와지리(蛙只里) 반룡리(盤龍里)라 하였고, ②에서 오치면(梧峙面)에 반룡리(盤龍里)라 하였으며, ③에서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의 반룡리(盤龍里)라 하였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에서 용봉동 반룡(盤龍) 마을을 살펴보면 전남대학교 경영대와 인문대학의 뒤쪽 마을이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변봉, 반룡, 용주

그렇다면 반룡(盤龍)은 어떤 의미로 불렸을까?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을 보면

표제어로 반룡(盤龍)은 볼 수 없고 반룡경(盤龍鏡)과 반룡(蟠龍), 반룡(攀龍)을 볼 수 있다.

* 반룡경(盤龍鏡) : 용이 서려 있는 무늬가 있는 옛 구리거울. 머리에 범을 나타낸 것도 있어 ‘용호경’이라고도 한다.

* 반룡(蟠龍) :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서려 있는 용.

* 반룡(攀龍)³⁵⁾ : ‘용의 비늘을 끌어 잡음’이란 뜻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함이라는 말.

이를 보면 반룡경(盤龍鏡)은 “용이 서려 있는 무늬가 있는 옛 구리거울”이라 했다. 그리고 머리에 범을 나타낸 것은 용호경(龍虎鏡)이라 했다. 반면 반룡(蟠龍)은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서려 있는 용”이라 했다. 이를 보면 반룡(盤龍)이나 반룡(蟠龍)은 ‘서려 있는 용’에서 연유한 말임을 알 수 있다.

35) 攀 : 더위잡다. 무엇을 붙들고 오르다.

하지만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전국에 반룡(盤龍)으로 불리는 지명이 상당하다.

- ⑥ 반룡리(盤龍里) [반룡] 【리】 경남-사천군-축동면- 본래 진주군 부화곡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이 서리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반룡이라 하였다 하는데,
- ① 용소 【소】 경남-사천군-축동면-반룡리- 신촌 마을 앞 동쪽에 있는 소. 귀 달린 장어가 나왔었다 함.
- ① 용머리 【산】 경남-사천군-축동면-반룡리- 용소 위쪽에 있는 산. 용머리형으로 우뚝 솟아 있음.

⑥의 반룡(盤龍) 마을은 가화천이 사천강에 합류하는 북쪽 지역으로 가화천 서편 마을이며, ⑥-①에서 ‘용소’가 있고. 마을에서 서쪽인 신촌 마을 북편에는 ⑥-①의 ‘용머리’ 즉 지금의 용두산이 있다 했다.

- ⑦ 반룡(盤龍) 【마을】 → 용동.<경북-고령군-쌍림면-용동>
- ① 용동(龍洞) [반룡, 반룡골, 반룡리, 반룡동] 【리】 본래 고령군 고곡면의 지역으로서, 반룡사 밑이 되므로, 반룡리라 하였는데,<상동>
- ① 반룡사(盤龍寺) 【절】 반룡동 뒤 미승산(경상북도 산천)에 있는 절. 지형이 용이 서리고 앉은 것 같다 함.<상동>

⑦의 반룡(盤龍) 마을은 이칭이 용동(龍洞)인데 ⑦-①에서 용동(龍洞)은 반룡사 밑이므로 불린다 했고, ⑦-①에서 반룡사(盤龍寺)는 “반룡동 뒤 미승산에 있는 절”로 “지형이 용이 서리고 앉은 것 같다.” 했다.

용(龍)은 상상의 동물이다. 용(龍)은 물에 사는 동물이다. 그리기에 용(龍)의 훈은 『천자

문』이나 『훈몽자회』, 『유합』에 ‘미르’라 했고³⁶⁾ ‘水’의 훈도 여러 옛 문헌에서 ‘물’(>물)이라 했다.³⁷⁾ 이를 보면 용(龍)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지명학의 권위자이신 도수희 교수님은 ‘미르’는 ‘물’(>물)에서 파생된 어사라 했다.³⁸⁾ 따라서 이곳에 ㉗-㉘의 용소(龍沼)란 지명과 ㉗-㉘의 ‘용쏘뭇’, 반룡(盤龍)은 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긴다.

⑧ 반룡(盤龍) 【마을】 전북-고창군-부안면-수양리-용현 북쪽 마을. 마을 지형이 소반에 앉은 용과 같음.

㉗ 용현1(龍峴) 【마을】 전북-고창군-부안면-수양리-수양리 으뜸 마을. 용고개 밑임.

㉘ 용고개 [용현] 【고개】 전북-고창군-부안면-수양리-용현 남쪽에서 수동리로 가는 고개. 고개 위에 큰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고, 그 위에 흔적이 나 있는데 용이 지나간 자국이라 함.

⑧의 반룡(盤龍)은 “지형이 소반에 앉은 용과 같음”이라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⑧-㉗의 용현(龍峴)은 ⑧-㉘에서 용고개(용현) 남쪽에서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고 그 위에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용(龍)이 지나간 자국이라 했다.

⑨ 반룡리(盤龍里) 【마을】 동곡 북쪽에 있는 마을. 앞산에 용혈이 있다 함.<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

㉗ 추천교(楸川橋) [龍山橋] 【다리】 신교리 동쪽 다리. 덕진동 용산평과 가까움.

㉘ 추천원터(楸川院-) 【터】 가리내 역원의 터.

36) 龍 : 미·르룡(예산본훈몽자회 上10 뒤), 미르 룡(광주판천자문 4 앞), 미르룡(내각본천자문 4 앞), 미·르룡(동경각본훈몽자회 上20 앞) / 미르룡(존경각본훈몽자회 上20 앞).<단국대학교 동양학총서 『훈몽자회』(1971), 『천자문』(1973), 『유합』(1972) 영인본>

37) 水 : ·물·슈(예산본훈몽자회 下15 앞), 물슈(광주판천자문 2 뒤), 물슈(라손본신증유합 上6 앞), 물슈(내각본천자문 2 뒤), 물·수[슈](동경대본훈몽자회 下35 뒤), ·물·슈(존경각본훈몽자회 下35 뒤).<단국대학교 동양학총서 앞 책>

38) 한국지명학회 초대회장이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학술원상을 수상하신 도수희 교수님의 말씀이다.

⑨의 반룡리(盤龍里)는 앞산에 용혈이 있기에 붙었다 했다. 이곳에는 추천교(楸川橋)와 추천원터(楸川院-)가 있다. 이곳은 삼천천과 전주천이 합류하는 곳이라서 물줄기가 합류하는 물줄기를 하류에서 바라보면 갈라지는 곳으로 보이기에 ‘가르+이’가 ‘가리>가래’로 변한 것을 ‘楸’로 훈차 표기한 지명일 것이므로³⁹⁾ 반룡리(盤龍里)라는 물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⑩ 반룡산(蟠龍山) 【산】 경북-달성군-현풍면-신기동- 신기 남쪽에 있는 산. 용이 서리고 앉은 형국이라 함.
- ㉠ 반송정(盤松亭) 【들】 경북-달성군-현풍면-신기동- → 방성징이.
- ㉡ 성터(城—)[서산성, 반월성공원] 【공원】 경북-달성군-현풍면-성하동- 성하동 중앙에 있는 공원. 둘레 1,823자, 높이 6자. 조선의 현풍현 사직단이 있었으며, 현재 충혼탑이 있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좋은 놀이터가 됨.

⑩의 반룡산(盤龍山)은 용(龍)이 서리고 앉은 형국이라 했고 이곳에는 반송정(盤松亭)이란 들이 있다. 이곳 성하동(城下洞)에는 반월성 공원이 있다. 그러므로 반룡(蟠龍)은 반월성의 영향 아래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

- ㉢ 반룡(盤龍) [용회리] 【마을】 전북-진안군-성수면-용포리- 개울 동쪽에 있는 마을. 운중반룡의 명당이 있다 하며, 섬진강의 상류인 내가 마을을 감아 돌고 있음.
- ㉣ 용소 【소】 전북-진안군-성수면-용포리- 조개방죽 위 서쪽에 있는 소.
- ㉤ 용회리(龍回里) 【마을】 전북-진안군-성수면-용포리- → 반룡.
- ㉥ 바랑골 【골】 전북-진안군-성수면-용포리- 새암골 옆에 있는 골짜기.

㉢의 반룡(盤龍) 마을은 ‘운중반룡’의 명당이 있고, ㉣-㉤의 ‘용소’가 있다. 그리고 이곳은 섬진강의 상류의 물줄기가 마을을 감아 도는 곳이라서 용회리(龍回里)로 불리는 듯하다. 이

39) 조강봉, 『한국지명의 어원 연구』, 태학사, 2020. 365쪽.

를 보면 물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⑫ 반룡티(盤龍峙) 【고개】 경남-고성군-하일면-오방리- → 서르태.

㉠ 서르태[서리재, 반룡티, 상티] 【고개】 경남-고성군-하일면-오방리-오방 북서쪽에서 하이
면 와룡리로 가는 고개.

⑫의 반룡티(盤龍峙)는 이칭이 ‘서르태’라 하였는데 이칭 ‘서르태’, ‘서리재’ 또는 ‘상티’(霜峙)
라 하여 가을에 내리는 서리라 하면서도 이를 용(龍)이 서려 있는 반룡(盤龍)과 연관 짓고 있
다. 이를 보면 반룡(盤龍)은 실제 용(龍)과는 무관하며 물줄기의 흐름을 용(龍)으로 인식하여
부른 촌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 ①의 반룡(盤龍) 마을은 이곳으로 구불구불 흘러내
리는 물줄기를 용(龍)으로 인식하는 불렀던 관습에 따라 불린 촌명이 아닐까 한다.

▣ 용주(龍珠) 마을

① 용주리(龍珠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悟峙面)>

② 오치면(悟峙面) 용주리(龍珠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
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

③ 용주(龍珠)[용주리]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 용봉동 으뜸마을. 반룡희주형의 명당
이 있다 함.

위 용주(龍珠) 마을은 ①에 광주군 오치면(悟峙面)조에 용주리(龍珠里)라 하였고, ②의 광
주군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조에 오치면(悟峙面)의 용주리(龍珠里)라 하였으며, ③
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용봉리(龍鳳里)조에 용주(龍珠) 마을은 달리 용주리인데
“용봉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반룡희주형의 명당이 있다 함.”이라 하였다.

김경수는 『광주 땅이야기』 (2005:88)⁴⁰⁾에서 전남대학신문에 실린 유기춘 총장의 말을 인용하여 “용주(龍珠) 마을은 용봉동이 자리 잡은 이곳은 삼각산의 지맥이 흘러 내려와 임금왕(王) 자를 써 놓았는데 그 형세가 용의 피로 쓴 ‘王’ 자 같고 그 앞에 태봉산을 비롯한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용주(龍珠)

세 개의 구슬이 구르고 있어 마치 용반희주(龍盤戲珠)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했다. 그리고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길지라서 주변에 용(龍)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이 불린다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용주(龍珠)는 약 20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중 용(龍)과 관련된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④ 용주골 [용지리] 【마을】 충남-청양군-사양면-용마리- 맛다실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남쪽에 용못이 있음.
- ⑦ 용못 【못】 충남-청양군-사양면-용마리- 용주골 남쪽 끝의 못. 용이 등천했다 함.
- ⑤ 용주골 【골】 경북-금릉군-어모면-은기동- 은석 북쪽 골짜기.
- ① 용주골못 【못】 경북-금릉군-어모면-은기동- 용주골 안쪽에 있는 못.

④의 ‘용주골’은 마을 남쪽에 용못이 있고, ‘용못’에서 용이 등천했다 했으며, ⑤의 ‘용주골’도 이곳의 ‘용주골못’은 용주골 안쪽의 못이라 한 점을 보면 ‘용주골’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연관된 지명인 듯하다.

위 ①의 광주 북구 용주리(龍珠里) 마을은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약 100여m를 앞 왼편 마을이다. 필자가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던 1976년까지도 이곳에는 민가가 있었다. 용주(龍

40) 김경수, 『광주 땅이야기』, 향지사, 2005, 88쪽.

珠) 마을의 북쪽인 인문대학교 담장 뒤편에는 반룡(盤龍) 마을이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삼각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중 하나는 전남대학교의 농과대학 서쪽으로 흘러내리고 다른 하나는 전남대학 정문 앞으로 흘러내리다가 두 물줄기가 합류한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물줄기가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모습을 용(龍)으로 인식하여 반룡(盤龍)과 용주(龍珠)라는 마을이 불린 듯하다. 그리고 두 물이 합류한 곳에는 청계(淸溪)라는 마을이 불리고 있다. 따라서 용주(龍珠) 마을은 물줄기에 연유한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 봉곡(鳳谷) 마을

- ① 봉곡리(鳳谷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悟峙面)>
- ② 오치면(悟峙面) 봉곡리(鳳谷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
- ③ 봉곡(鳳谷)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저불.
- ④ 저불[봉곡, 봉곡리]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반룡 서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

위 봉곡(鳳谷) 마을은 ①의 오치면(悟峙面)조에 봉곡리(鳳谷里)라 하였고, ②의 서방면(瑞坊面) 용봉리(龍鳳里)조에 봉곡리(鳳谷里)라 하였으며, ③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용봉리(龍鳳里)조에 이



국토정보맵(1960년대) 상봉, 중봉 변봉

칭이 ‘저불’이라 하였다.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을 보면 용봉리(龍鳳里) 옆에 봉곡리(鳳谷里)가 있다. 하지만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과 그 이후의 지도를 보면 봉곡리(鳳谷里)는 볼 수 없고, 상봉(上鳳), 중봉(中鳳), 변봉(邊鳳)으로 분촌되었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았던 한백년(78세)에 의하면 예전에는 상봉, 중봉, 변봉을 합하여 봉곡(鳳谷)이라 불렀다 했고, 봉곡(鳳谷)의 고유어 지명은 ‘저불’이라 했다. ‘저불’은 ‘赤’(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사기』(권36, 지리3)의 적조현(赤鳥縣)은 『고려사』(권56, 지리1)에 적오현(赤烏縣)이라 했다.

* 적조현(赤鳥縣)은 본래 백제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했다. 지금은 덕진현(德津縣)이다.<『삼국사기』>⁴¹⁾

* 덕진현(德津縣)은 본래 백제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오현(赤烏)로 개명하여 비풍군(比豐郡)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 개명하여 지금 이름이 되었다.<『고려사』>⁴²⁾

위 두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권36, 지리3)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은 경덕왕 때 적조현(赤鳥縣)이 되었고, 『고려사』(권56, 지리1)를 보면 소비포현(所比浦縣)은 경덕왕 때 적오현(赤烏縣)이 되었다 했다. 즉 두 문헌의 기록이 ‘鳥’와 ‘烏’로 달리 표기되었다.

도수희(1999:205)는 소비포현(所比浦縣)의 주성(主城)인 덕진산성(德津山城)은 옛 이름이 적오산성(赤烏山縣) 또는 적오산성(赤鰲山城)이라 했고, 이 옛 성이 있었던 산명도 적오산(赤烏山) 또는 적오산(赤鰲山)이므로 ‘鳥’(오)가 바름(正)이요, ‘鳥’(조)가 틀림(誤)임을 알 수 있

41) “적조현(赤鳥縣)(註112)은 본래 백제(百濟)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註112: 적조현(赤鳥縣)은 덕진현(德津縣)이며, 지금의 충청남도(忠淸南道) 연기군(燕岐郡) 금남면(錦南面) 감성리(柑城里)로 비정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권36, 지리3)의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10쪽>

42) “덕진현(德津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소비포현(所比浦縣)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이름을 적오(赤烏)로 고치고, 비풍군(比豐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高麗)에 와서 지금 이름으로 바꾸고, <공주에> 내속(來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권56, 지리1)>

다 하였다.⁴³⁾ 그러나 지금은 적오산(赤烏山) 또는 적오산(赤鰲山)이란 이름은 전혀 볼 수 없고 별 지명으로 초오개(草五介)가 불리는데 ‘草’의 옛 새김이 ‘새’이므로 ‘草’를 훈음차자로, ‘五介’를 음차자로 풀이하면 ‘새오개’가 된다 했다. 필자는 적오(赤烏) 또는 적오(赤鰲)는 ‘새오개’의 ㄱ 탈락형 ‘새오개’의 ‘새오’일 것이며, 초오개(草五介)는 ‘새오개’의 표기로 보이며, ‘赤’은 훈이 ‘붉다’이지만 날이 새면 붉어지다가 밝아지므로 ‘새’를 표기한 어사로 여긴다.

또 『삼국사기』을 보면 굴화군(屈火郡)과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과 음즙벌국(音汁伐國)을 볼 수 있다.

* 곡성군(曲城郡)은 본래 고구려의 굴화군(屈火郡)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다. 지금은 임하군(臨河郡)이다.⁴⁴⁾

* 고창현(高敞縣)은 본래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⁴⁵⁾

* 음즙화현(音汁火縣)은 파사왕 때 음즙벌국(音汁伐國)을 취하여 성치한 현(縣)이다. 지금은 안강현(安康縣)에 합속(合屬)했다.⁴⁶⁾

위 굴화군(屈火郡)의 ‘火’는 음이 ‘화’이지만 훈이 ‘불’이고,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의 ‘夫里’는 음이 ‘부리’이며, 음즙벌국(音汁伐國)의 ‘伐’은 음이 ‘벌’이다. 이승녕(1967:334)⁴⁷⁾은 ‘火’는 반드시 ‘불·불’로 불리었을 것이니, 그 뜻은 촌락, 市, 주택의 집단”이라 했고, ‘夫里’는 신라어 ‘火’와 같은 것으로 그 음은 puri일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火’는 훈 ‘불’을 표기하기 위한 차차

43) 도수희, 『한국지명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9, 205쪽.

44) “곡성군(曲城郡)(註 451)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굴화군(屈火郡)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임하군(臨河郡)이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1개이다.” 註 451: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시(安東市) 임하면(臨河面)으로 비정한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7쪽).

45) “고창현(高敞縣)(註 395)은 본래 백제(百濟)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까지 그대로 따른다.” 註 395: 지금의 전라남도(全羅南道) 고창군(高敞郡) 고창읍(高敞邑)으로 비정한다(이병도,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1996, 248쪽).

46) 음즙화현(音汁火縣)(註 257)은 파사왕(婆娑王) 때 음즙벌국(音汁伐國)을 취하여 현을 설치한 곳인데 지금 안강현(安康縣)에 합쳐 속하게 하였다. 註 257: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안강읍(安康邑) 검단리(檢丹里) 일대.(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0쪽)

47) 이승녕(1967), 『韓國文化史大系』 9. 언어·문학사(上), 고대민족문화연구출판부, 334쪽

로 여기며, ‘夫里’, ‘伐’, ‘火’는 모두 ‘p-l’(ㅂ+모음+리)을 표기한 차자로 여긴다.

위 ①-⑤의 봉곡(鳳谷)은 그 고유어 지명이 ‘저불’임을 볼 때 ‘저불’의 ‘저’는 ‘赤’으로 보이므로 이는 ‘새’의 음차일 가능성이 있고, ‘불’이 ‘火’의 고유어라면 이는 ‘赤火’로 혼차될 수 있고, 이는 ‘새불’의 혼차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 까닭은 봉곡(鳳谷)의 ‘鳳’은 지금은 ‘봉황’을 뜻하지만 옛훈은 ‘새’였기 때문에 ‘赤’으로 표기된 것을 ‘적’으로 불리다가 ‘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火’는 촌락을 뜻하는 흔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불’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곳에서 불리는 상봉(上鳳), 중봉(中鳳), 변봉(邊鳳)으로 나누어진 마을들이 오래전에 ‘赤火’의 ‘赤’이 ‘새’로 읽혔기에 ‘새’를 훈으로 한 ‘鳳’으로 바뀌어 표기된 지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아래 지명에서도 봉곡(鳳谷)의 고유어 지명이 ‘새울’이므로 ‘鳳’의 훈이 ‘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봉곡(鳳谷) 【마을】 충남-부여군-초촌면-초평리- → 새울.
- ⑥ 봉곡(鳳谷) 【마을】 경남-하동군-양보면-박달리- → 새실.
- ⑦ 봉곡(鳳谷) 【마을】 경북-봉화군-재산면-갈산리- → 새골.
- ⑧ 봉곡동(鳳谷洞) 【마을】 경북-영천군-자양면-보현리- → 황새골.
- ⑨ 봉곡동(鳳谷洞) 【마을】 경남-창령군-이방면-초곡리- → 초곡리.

위 ⑤-⑨의 봉곡(鳳谷)을 보면 ‘鳳’이 모두 ‘새’로 혼차 되었고, ‘谷’은 ‘울’ 또는 ‘실’로 혼차 되었다. 다만 ⑧의 봉곡동(鳳谷洞)은 고유어 지명이 ‘황새골’이라 한 것은 ‘황새’는 ‘큰새’를 뜻하는 ‘한새’에서 변한 것이며, ⑨의 봉곡동(鳳谷洞)도 고유어 지명이 ‘초곡리’라 하였으니 ‘草’의 옛 훈이 ‘새’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의 봉곡(鳳谷)은 ‘새’에 어원을 둔 지명이라 여긴다.

6. 운암동(雲岩洞)

1) 연혁

- ① 대내리(大內洞), 대자리(大自里),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
- ② 대내리(大內里)와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⁴⁸⁾ 각 일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신방리(新坊里)⁴⁹⁾.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군분면(軍盆面)>
- ④ 황계면(黃界面) 대내리(大內里),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 각 일부와 군분면(軍盆面)의 신방리(新坊里) 각 일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
- ⑤ 운암동(雲岩洞) 【동】 본래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대내리(大內里)와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의 각 일부와 군분면(軍盆面)의 신방리(新坊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운암산(광주-) 밑이 되므로 운암리(雲巖里)라 해서 극락면(極樂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동운동회의 관할이 됨.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⑥ 1930. 4. 1.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에 앞서 通, 里란 명칭을 없애고 33町을 설치했다. <지적원부>.
- ⑦ 1931. 4. 1. 총독부령 제103호(1930. 12. 29)에 의거 광주면은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⑧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읍(光州邑) 이외의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됨에 따라 광산군 극락면 운암리(雲岩里)가 되었다.

48) 일부는 광천동, 양산동, 내방동, 동림동에 편제됨.

49) 일부는 광천동, 내방동에 편제됨.

- ⑨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⑩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의거 광산군의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 전지역(동림, 운암), 석곡면(5리)가 광주시에 편입됨에 광주시 운암동이 되었다.
- ⑪ 1955. 7. 1. 편입지역의 편의를 위해 풍향, 망월, 유림, 잔월 등 4개 출장소를 설치됨에 유림(柳林)출장소 관할 운암동이 되었다.
- ⑫ 1957. 12. 2. 광주시 122개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둘 때 본청직할 동운동(東雲洞) 관할 동림동과 운암동이 되었다.
- ⑬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할 때 서부출장소 동운동 관할 운암동이 되었다.
- ⑭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



카카오맵(2024) 운암동 지역

區)로 나뉘에 따라 광주시 서구(西區) 동운동(東雲洞) 관할 운암동(雲岩洞)이 되었다.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는 관할이 됨.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는 관할이 됨.

⑮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시 북구(北區) 동운동(東雲洞) 관할 운암동(雲岩洞)이 되었다.

⑯ 1982. 9. 1. 광주시 조례 제1147호에 의거 동운동은 동운1동과 동운2동으로 분동 되었다.

⑰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⑱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⑲ 1993. 12. 1. 동운1동(東雲1洞)은 동운1동과 동운3동으로 분동되었다.

⑳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㉑ 1997. 3. 1. 동운1동은 운암1동으로 동운2동은 운암2동으로 동운3동은 운암3동과 독립동으로 분동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황계(黃溪, 黃鷄)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운암동(雲岩洞)조에 황계(黃溪, 黃鷄) 마을이 있다.

① 대자리(大自里),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황계리(黃界里)>

② 대자리(大自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③ 대자리(大自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

④ 황계(黃溪, 黃鷄)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위 황계(黃溪, 黃鷄)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황계리(黃界里) 마을인데,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조를 보면 대자리(大自里)라 했는데 그것은 황계리(黃界里)가 황계면(黃界面)이 되면서 면소재지 마을은 황계리(黃界里)에서 대자리(大自里)로 바뀐 듯하다. 이후 1914년에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을 보면 광주군 극락면(極樂面)은 황계면, 덕산면, 내정면, 군분면의 각 일부를 합한 곳이고,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는 황계면의 대내리(大內里), 용산리(龍山里), 대자리(大自里)의 각 일부를 합한 곳이라 했다.

그러기에 ④의 『한국지명총람』에 황계(黃溪, 黃鷄) 마을은 달리 ‘대자실’이라 했고, ⑤에서 ‘대자실’은 대자리(大自里)인데, ⑥에서 ‘대자실’은 이칭이 황계(黃溪, 黃鷄)로 운암동의 으뜸 마을이며 뒷산에 황계포란형의 명당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카카오맵(2024) 운암동 황계(대자)

⑤ 대자리(大自里)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⑥ 대자실 [대자리, 황계]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운암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에 황계포란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황계라 했으며,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황계면이라 하여 동배, 죽림, 사산, 대내, 대자, 울곡, 신촌의 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극락면에 편입되어 운암, 동림의 2개 리로 개편되었다가, 1955년 7월 1일 광주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광주시로 편입되어 운암동과 동문동의 지역이 됨.

대자-리(大自里)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그렇다면 황계(黃溪, 黃鷄)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호구총수』에 황계리(黃界里)로 기록되어 황계(黃溪, 黃鷄)와는 한자 표기가 약간 다르다.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에는 황계(黃鷄) 마을은 볼 수 없으나 현행 카카오맵(<https://map.kakao.com/2024>)을 보면 황계(黃溪) 마을은 서영대학교 정문 바로 앞 운암주공아파트1단지가 되었다.

이곳의 지형적 특징을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에서 살펴보면 운암산 자락인 용산(龍山) 마을 옆으로 흘러내리는 골물과 매곡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중외공원을 지나 합류한다. 황계(黃溪, 黃鷄)의 ‘黃’은 훈이 ‘누르다’이고, ‘溪’는 훈이 ‘시내’를 뜻하므로 ‘黃’과 ‘溪’가 합한 말은 어쩐지 어색하다. 그러나 우리 옛 지명은 물줄기의 합류와 분기에 의해서 불린 지명이 많다. 대지에 비가 내리면 물줄기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르면서 다른 골물을 합하고 합하여 내가 되고 강이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물을 건너지 못하게 하므로 자연히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되므로 결국 대지를 둘로 가르는 효가를 가져다 준다. 그러기에 이러한 곳에는 ‘나누다’를 뜻하는 ‘누르’는 ‘누르+이>누리’가 되고 ‘누르’는 ‘나루’(津)이 되고 ‘나루’는 ‘노루’, ‘누루’로 바뀌면서 ‘獐’(누르장), ‘黃’(누르황)이 글자가 쓰이게 되었다. 이후 황계(黃溪, 黃鷄)는 ‘溪’를 음이 같은 ‘界’로 바꾸어 불린 지명일 것이다.

▣ 대자(大自)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운암동(雲岩洞)조에 대자(大自) 마을이 있다.

- ① 대자리(大自里),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황계리(黃界里)>
- ② 대자리(大自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대자리(大自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
- ④ 대자리(大自里)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 <『한국지명총람』>

⑤ 황계(黃溪, 黃鷄)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대자실.<『한국지명총람』>

위 대자(大自) 마을은 ①의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조에 대자리(大自里)라 하였고, ②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조에 대자리(大自里)라 했으며, ③의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운암리(雲巖里)조에 대자리(大自里)라 했다. 『한국지명총람』 ④에서 대자리(大自里)는 이칭이 ‘대자실’이라 했고, ‘대자실’은 달리 황계(黃溪, 黃鷄)라 했다.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운암동(대자, 대내)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대자리(大自里) 마을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운암산 자락에 자리한 용산(龍山) 마을 옆으로 흘러내리는 골물과 매곡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상봉 마을 인근 중외공원 호수로 흘러들었다가 대자(大自) 마을 아래에서 합류한다.

그렇다면 대자(大自)는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린 대자(大自)라는 지명을 살펴보면

⑥ 대자울 [척동] 【마을】 충남-보령군-남포면-월전리-댕월 북쪽에 있는 마을.

① 척동(尺洞) 【마을】 충남-보령군-남포면-월전리-> 대자울.

⑦ 대자 [대재, 대티] 【마을】 충남-연기군-전동면-청송리-아래배일 서북쪽에 있는 마을. 서쪽에 큰 고개가 있음.

① 대티(大峙) 【마을】 충남-연기군-전동면-청송리-> 대자.

㉔ 배일[배울, 이곡, 이일] 【마을】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운주산 남쪽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울’, ‘배일’ 또는 ‘이곡’이라 하였는데,

이라 하여 ⑥의 ‘대자울’은 이칭이 ‘척동’이라 했다. 척동(尺洞)의 척(尺)은 훈이 ‘자’이므로 성(城)의 옛말 ‘жат’의 훈차 표기로 보인다. ⑦의 대자(大自)는 이칭이 ‘대재’ 또는 ‘대티’라 했는데 이는 한자로는 ‘大峙’로 표기되는 지명으로 고유어 지명은 ‘큰재’ 즉 ‘큰жат’이므로 ‘재’가 성(城)을 뜻하므로 ‘жат’이 ‘자’로 바뀐 ‘대자’(大+自)는 ‘大+峙’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성(城)의 옛말은 ‘жат’이라 불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 고성군(固城郡)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지리1)

* 추성군(秋成郡) 본래 백제(百濟)의 추자혜군(秋子兮郡).(지리3)

이라 하였으니 고성군(固城郡)은 고자군(古自郡)을 개칭한 지명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서 성(城)은 자(自)로 대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추성군(秋成郡)의 성(成)은 성(城)의 오자인 듯한데 유재영은 고자군(古自郡)은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되었으니 “子兮와 自는 우리말의 ‘жат’을 표기한 것”이라 했다.⁵⁰⁾

이를 보면 ①-④의 대자리(大自里)는 ‘大+自+里’로 분석되며, ‘自’는 성(城)의 옛말 ‘жат’의 훈차 표기라 생각한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대자(大自) 마을을 보면 산 아랫마을이다. 이곳은 큰 산고개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어떤 작은 성(城)이나 고개가 있었기에 이런 지명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50) 유재영, 『전래 지명 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1982. 168쪽.

▣ 용산(龍山)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에 운암동(雲岩洞)조에 용산(龍山) 마을이 있다.

- ① 사산촌(蛇山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
- ② 용산리(龍山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용산리(龍山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 동림리(東林里)>
- ④ 용산(龍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사산.
- ⑤ 사산(蛇山, 巳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지아막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뱀 또는 용처럼 생겼다 함.
- ⑥ 구사산(舊巳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사산 동쪽에 있는 옛 사산 마을.
- ⑦ 신사산(新巳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사산의 새로 된 마을.

위 용산(龍山)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조에 사산촌(蛇山村)이라 하였으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조에는 용산리(龍山里)라 했다. 이후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광주군 극락면 동림리(東林里)에 속하게 되었고, 1957년 12월 동림동과 운암동이 병합되어 동운동이 되었다가, 1997년 3월 1일부터는 운암1동에 속했다.

이를 보면 용산(龍山)은 본래 1789년 『호구총수』에 사산(蛇山)이라 했고, 이후 1896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용산(龍山)으로 바뀌었는데, ④-⑤에서 사산(蛇山, 巳山)은 “마을 뒷산이 뱀 또는 용처럼 생겼다.” 했으며, 이곳은 ⑥-⑦과 같이 구사산(舊巳山)과 신사산(新巳山)으로 불렸다 했다. 그러나 도시화가 완성되어 구사산(舊巳山)과 신사산(新巳山)은 지금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뱀(巳)을 용(龍)으로 바꾸어 사산(蛇山)이 용산(龍山)으로 바뀐 듯하다.

그러면 사산(蛇山, 巳山)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사산(蛇山, 巳山)의 유래를 살펴보면,

⑧ 사산(蛇山) 【산】 → 배밋장.<경북-경산군-산천>

⑦ 배밋산 [사산] 【마을】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 함.<상동>

⑨ 사산(蛇山) 【산】 경북-산천- → 배미산.

① 배미산 [범산, 사산, 선암산] 【산】 경북-산천- 군위군 고로면, 의흥면과 의성군 가음면 경계에 있는 산. 모양이 뱀처럼 생겼다 함.

⑧의 사산(蛇山)은 고유어 지명이 ‘배밋산’이라 했고, ‘배밋산’은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 했고, ⑨의 사산(蛇山)도 고유어 지명이 ‘배미산’이라 했는데 역시 “모양이 뱀처럼 생겼다.” 했다. 이를 보면 위 용산(龍山)은 본래 사산(蛇山)에서 바뀐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 용산

박영섭(2000:125)은 『초간본 두시언해 한자대역어 연구』에서 아래의 예문을 제시하고 ‘벽, 石壁, 城壁’은 ‘壁’에 대한

대역어인데, 『석보상절』과 『훈몽자회』 그리고 『천자문』 광주본에는 ‘벽’으로, 석봉주해본과 『유합』에는 ‘벽’으로 자석(字釋)되고, 『두시언해』에서는 석벽(石壁), 성벽(城壁)이 나타난다 했다.⁵¹⁾

壁 : 벽, 石壁, 城壁

: 구름 氣運은 뵈 벽에서 나고(雲氣生處壁)<두초6. 26a>

51) 박영섭(2000), 『초간본 두시언해 한자대역어 연구』, 박이정, p. 125.

: 고들파 밥먹고 비례와 石壁 서리로 取ᄃ야 가리라(強飯取崖壁)

: 겿t 왕이 7장 城壁을 기피 ᄃ엿더니라(其王轉深壁)<두초24. 12a>

위에서 ‘壁’은 ‘벽’으로 대역되었는데 『두시언해』에서는 ‘壁’을 ‘石壁.城壁’으로 대역하였으니, ‘石壁’, ‘城壁’은 ‘벽’으로 읽었음을 알게 한다. 또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 ‘바리개’는 “타작할 때 사방으로 둘러치는 것.(제주)”이라 하였으니 보리타작이나 벼를 타작할 때 사방으로 알곡식이 튀지 않도록 사방을 둘러막은 물건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방을 둘러막는 것은 우리의 집을 둘러싼 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바리개’의 ‘바리’는 ‘pVrV’의 형태인데 이는 ‘발’과 동일한 어형을 가졌으며, 이는 ‘鉢’과 같이 사방이 둘러막힌 물건과 비슷하다.

우리에게는 마루나 방문 앞에 ‘발’을 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발’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가지런히 엮어 만든 물건이다. 이 ‘발’은 결국 무엇을 가리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鉢山’은 적을 막을 목적으로 산의 중심은 낮고 주변은 높아 밥그릇처럼 생긴 산명이라 생각하며, ‘鉢山’은 ‘鉢+山’으로 ‘鉢’은 두시언해 자료에서 제시한 ‘壁’의 대역어 ‘벽’에 어원을 둔 ‘벽+메>벽메>불메’로 변한 ‘발’의 음차표기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발’은 ‘밤’으로 다시 ‘뱀’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벼농사를 할 때 논에 물을 가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둑의 가장자리에 독을 쌓아 물이 논바닥에서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논을 ‘논배미’라 하는데 이는 ‘논+밤+이’로 분석할 수 있고 ‘뱀’은 ‘발’에서 파생된 어사가 아닐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용산(龍山) 마을의 『호구총수』 시대의 촌명은 사산(蛇山)이었고 사산(蛇山)의 고유어 지명은 ‘뱀산’이므로 이는 이곳에 성(城)과 같은 무엇이 있었기에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여긴다.

7. 동림동(東林洞)

1) 연혁

- ① 동배곡(東背谷), 죽림촌(竹林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황계리(黃界里)>
- ② 동배리(東背里), 죽림리(竹林里).⁵²⁾<『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동배곡(東背谷), 죽림촌(竹林村).<『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동림리(東林洞)>
- ④ 동림동(東林洞) 【동】 본래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동배리(東背里), 죽림리(竹林里), 용산리(龍山里)의 각 일부와 군분면(軍盆面)의 쌍촌리(雙村里) 일부, 덕산면(德山面)의 동작리(東作里) 일부, 석제면(石堤面)의 외촌리(外村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동배리(東背里)와 죽림리(竹林里)의 이름을 따서 동림리(東林洞)라 하여 극락면(極樂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동운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1. 4. 1. 총독부령 제103호(1930. 12. 29)에 의거 광주면은 광주읍(光州邑)으로 승격되었다.
- ⑥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읍(光州邑) 이외의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됨에 따라 광산군 극락면 동림리(東林里)가 되었다.
- ⑦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의거 광산군의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 전지역(동림, 운암), 석곡면(5리)가 광주시에 편입되었기에 광주시 동림동이 되었다.

52) 동배리, 죽림리 일부는 서구 유촌리에도 편제되었다.

- ⑨ 1955. 7. 1. 편입지역의 편의를 위해 풍향, 망월, 유림, 잔월 등 4개 출장소를 설치할 때 유림(柳林)출장소 관할 동림동이 되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둘 때 본청직할 동운동(東雲洞)을 두고 동림동(東林洞)과 운암동(雲岩洞)을 관할했다.
-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할 때 서부출장소 동운동(東雲洞) 관할 동림동이 되었다.
- ⑫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어 따라 광주시 서구 동운동(東雲洞) 관할 동림동이 되었다.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는 관할이 됨.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는 관할이 됨.



카카오맵(2024) 동림동 지역

-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북구(北區)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시 북구 동운동(東雲洞) 관할 동림동(東林洞)이 되었다.
- ⑭ 1982. 9. 1. 광주시 조례 제1147호에 의거 동운동은 동운1동과 동운2동으로 분동 되었다.
- ⑮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다.
- ⑯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⑰ 1993. 12. 1. 동운1동은 동운1동과 동운3동으로 분동되었다.
- ⑱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㉑ 1997. 3. 1. 동운3동이 운암3동과 동림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림동(東林洞)이 신설되었다.

2) 지명의 유래와 어원

▣ 죽림(竹林)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동림동(東林洞)조에 죽림(竹林) 마을이 있다.

- ① 죽림촌(竹林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
- ② 죽림리(竹林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죽림리(竹林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동림리(東林洞)>
- ④ 죽림(竹林)[죽림리]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동림동 으뜸 마을. 숲이 있었음.
- ⑤ 죽림리(竹林里)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 죽림.

위 죽림(竹林)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황계리(黃界里)조에 죽림리(竹林里)라 하였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조에 죽림리(竹林

里)라 하였으며, 『한국지명총람』 광주 시 북구 동림동(東林洞)조에 죽림(竹林) 마을은 숲이 있었기에 불렀다 했다.

그렇다면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죽림(竹林)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 동배, 죽림, 불공, 울곡

- ⑥ 죽림(竹林) 【마을】 충남-당진군-우강면-세류리- → 대숲말.
- ⑦ 죽림(竹林) 【마을】 경남-의령군-낙서면-정곡리- → 대숲.
- ⑧ 죽림(竹林) 【마을】 전남-함평군-손불면-죽암리- 대나무가 많음.
- ⑨ 죽림(竹林) 【마을】 전북-완주군-고산면-양야리- 대나무가 많음.

⑥-⑦의 죽림(竹林)은 고유어 지명이 ‘대숲’이라 하였고, ⑧-⑨의 죽림(竹林)은 “대나무가 많다.” 하였다. 옛날에 대나무는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나무였다. 곧고 단단하고 곧게 쪼개지고 얇게 다듬을 수 있는 성질 때문에 많은 제품으로 만들어 쓸모 있어 마을마다 대나무 숲이 없는 곳이 없었다. 옛날에는 대나무로 방안의 시렁을 만들어 이 불이나 물건을 얹게 하였고, 지붕을 이을 때 처마 끝부분을 돌려 마무리하는데도 쓰였다. 그리고 방바닥에 까는 죽석이나 대자리, 다양한 바구니, 젓가락, 바다에서의 말뚝이나 발, 방문 가리개, 부채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대나무 숲은 말할 것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대나무는 전국에 없는 곳이 없으므로 위 ①-⑤의 죽림(竹林)은 마을에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라서 불린 촌명이라 여겨진다.

▣ 동배(東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동림동(東林洞)조에 동배(東背) 마을이 있다.

- ① 동배곡(東背谷).<『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
- ② 동배리(東背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
- ③ 동배리(東背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동림리(東林洞)>
- ④ 동배(東背)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 동배실.
- ⑤ 동배실 [동배, 동배리]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죽림 동북쪽에 있는 마을. 동, 남, 북쪽으로 산이 둘러 있음.

위 동배(東背)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조에 동배곡(東背谷)이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황계면(黃界面)조에 동배리(東背里)이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동림리(東林洞)조의 동배리(東背里) 마을이다. 그리고 ④의 『한국지명총람』에서 동배(東背) 마을은 고유어 지명이 동배실이라 하였는데 ⑤에서 ‘동배실’은 “죽림 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동, 남, 북쪽으로 산이 둘러 있음.”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동배(東背)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 ⑥ 동배 【마을】 경북-고령군-고령면-연조동-연줄 동쪽에 있는 마을.
- ⑦ 동배산 【산】 전북-순창군-동계면-관전리-관전 남쪽에 있는 산.
 - ① 관전리(官田里) [가라울, 관전, 발산] 【리】 전북-순창군-동계면-본래 임실군 영계면의 지역으로서 가라울 또는 관전, 발산이라 하였는데,
- ⑧ 동배섬 [동백도] 【섬】 전남-고흥군-대서면-화산리-평촌 남쪽에 있는 섬. 동백나무가 많음.

▣ 불공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동림동(東林洞)조에 불공 마을이 있다.

- ① 불공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 불굉이.
- ② 불굉이[불공]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울곡 북서쪽에 있는 마을.
- ③ 울곡(栗谷) 【마을】 광주시-북구-동림동-→ 밤숫굴.

위 ‘불공’ 마을은 1896년 행정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이나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극락면(極樂面) 동림리(東林洞)조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다. 하지만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 동운동 지역에 불공 마을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이전에 새로 생긴 마을로 보이며, ②에서 이칭으로 불굉이라 불리며, ③에서 울곡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는데 현행지도에서 살펴보면 불공 마을은 푸른마을주공아파트 지역이 그 주변에 동림초등학교가 있으며, 불공 마을에 대한 한자 표기는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불공으로 불리는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불곡(佛谷) 【마을】 경남-거제군-연초면-다공리-→ 부첫골

불곡(佛谷) 【마을】 충남-연기군-금남면-영치리- → 부첫골.

불공 마을은 이곳이 유일하다. 그리고 비슷한 지명으로 불곡(佛谷)을 볼 수 있는데 고유어 지명이 ‘부첫골’이라 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부처 모양의 돌이나 마애불이 있는지는 필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불공’은 ‘불골’에서 파생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는 성(城)에 연유한 지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자리(大自里), 울곡(栗谷), 용산(龍山)이 공존한다. 대자리(大自里)의 ‘自’는 성(城)의 옛말 ‘쟈’의 말음 ‘스음이 탈락한 어형으로 보이고, 울곡(栗谷)의 고유어 지명 ‘밤실’의 ‘밤’도 『두시언해』에서 벽(壁), 성벽(城壁)으로 대응하여 번역된 ‘브름’의 ‘불’에서 파생된 어사일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성(城)에 연유한 지명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대마산(大馬山)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동림동조에 대마산(大馬山)이 있다.

- ① 대마산(大馬山) 【산】 광주시-북구-동림동-→ 뱀산.
- ② 뱀산 [배미산, 대마산] 【산】 광주시-북구-동림동-죽림 서남쪽에 있는 산. 높이 86m.① 뱀이 많았다 함. ② 말 형국임.

위 대마산(大馬山)은 이칭이 ‘뱀산’, ‘배미산’으로 불리는 산으로 ‘뱀이 많다’ 또는 ‘말형국’이라 했다.

- ③ 사산촌(蛇山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
- ④ 사산(蛇山, 巳山) [용산]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지아막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뱀 또는 용처럼 생겼다 함.
- ⑤ 구사산(舊巳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사산 동쪽에 있는 옛 사산 마을.
- ⑥ 신사산(新巳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사산의 새로 된 마을.
- ⑦ 용산(龍山) 【마을】 광주시-북구-운암동-→ 사산.

이곳에는 ③의 『호구총수』 동면(東面) 황계리(黃界里)에 사산촌(蛇山村)이 있다 했다. 사산촌(蛇山村)은 ④의 『한국지명총람』에서 지금도 사산(蛇山, 巳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마을은 ⑤의 구사산(舊巳山)과 ⑥의 신사산(新巳山)으로 나뉘었다 했다. 그리고 ④와 ⑦에서 사산(蛇山, 巳山)은 달리 용산(龍山)으로 불린다 했다. 이를 보면 ①의 대마산(大馬山)은 ②에서 ‘뱀산’, ‘배미산’이라 했음을 볼 때 ③-⑥의 사산(蛇山)과 ⑦의 용산(龍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⑧의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백마산(白馬山)의 이칭이 ‘배암산’이라 했다.

⑧ 백마산 【산】 충남-청양군-대티면-장곡리- → 배암산.

이를 보면 사산(蛇山)의 고유어 지명은 ‘뱀산’은 달리 ‘배미산’이라 하였고, ‘뱀’의 방언 ‘배암’이 쓰인 ‘배암산’이 발음의 유사로 백마산(白馬山)으로 파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이곳의 사산(蛇山)은 고유어 지명이 ‘뱀산’, ‘배미산’으로 불렸고 ‘뱀’을 용(龍)으로 미화하여 용산(龍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8. 우산동(牛山洞)

1) 연혁

- ① 상촌(上村), 평촌(平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경양리(景陽里)>
- ②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③ 서양면(瑞陽面)의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 ④ 우산동(牛山洞)은 본래 광주군 서양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관전리, 치동리와 대가리, 효죽리, 병문리, 계천리, 신흥리의 각 일부와 두방면의 두암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뒷산이 와우형국으로 되었다 하여 우산리라 하여 서방면에 편입되었다.<『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따라서 광주군(光州郡) 서방면(瑞坊面) 우산리(牛山洞)는 광산군(光山郡)에 속했다.
- ⑥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전지역), 석곡면(5리)를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풍향출장소는 옛



카카오맵(2024) 우산동 지역

서방면 지역인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우산동(牛山洞)이 되었다.

- ⑨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두면서 본청직할의 효죽동(孝竹洞)의 관할 우산동(牛山洞), 풍향동(豐鄉洞), 중흥동(中興洞)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 ⑩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하면서 북부출장소 내 효죽동(孝竹洞) 관할 우산동(牛山洞)이 되었다. (광주시사: 1980)
- ⑪ 1970. 6. 29. 시조례 제348호에 의거 효죽동(孝竹洞)에서 우산동(牛山洞)이 분리 독립했다.(효죽동 명칭 사라짐)
 - * 1966. 1. 8.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중흥동이 분리 독립.
 - * 1970. 1. 1.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풍향동이 분리 독립.
- ⑫ 1973. 7. 1. 광주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됨.(대통령령 제6544호)
 -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관할 동.
 -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관할 동.
-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
 - * 동구(東區) 관할이던 우산동은 북구(北區) 관할이 되었다.
 -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전라남도에서 분리)
- ⑮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와 어원

▣ 관전(官前)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관전(官前) 마을이 있다.

- ① 관전리(官前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서양면(瑞陽面) 관전리(官前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 ③ 관전리(官前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괴약걸.
- ④ 괴약걸[고야걸. 관앞걸. 관전리]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잿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 경양역관이 있었음.

위 관전(官前)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관전리(官前里)이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의 관전리(官前里)이다. ‘官’은 훈이 ‘관청’이고 ‘前’은 훈이 ‘앞’이다. 그러므로 관전(官前)은 ‘관청 앞’의 마을이었을 것이다.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경양역(景陽驛)이라 표기된 곳 아래 관청(官廳), 관사(官舍), 일수청(日守廳)이 표기



『1872년 지방지도』 관청, 관사, 일수청

되어 있다.⁵³⁾ 그리고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역원조를 보면 경양역(景陽驛)은 현의 동쪽 8리에 있었고, 역(驛)을 관리하는 관리로 승(丞)을 두었다 했다. 이로 보아 관전리(官前里)는 경양역(景陽驛) 앞에 있었던 관청(官廳)에 연유한 마을일 것으로 여겨진다.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6)를 보면 광주에 경양 마을과 풍동 마을은 인접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양 마을에 관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6) 광주 경양과 풍동

한편 『한국지명총람』의 위 ③에 관전리(官前里)는 고유어 지명이 ‘괴약걸’이라 했다 그리고 ④를 보면 ‘괴약걸’은 달리 ‘고야걸’, ‘관앞걸’, ‘관전리’라 했다.

그렇다면 ‘괴약걸’, ‘고야걸’, ‘고야골’은 어떤 연유로 불린 어사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관전(官前)을 지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⑤ 관전동(館前洞) 【마을】 서울시-종로구-교북동- → 관앞골.
- ⑥ 관전동(館前洞) 【마을】 서울시-서대문구-영천동- → 관앞골.
- ⑦ 관전리(官前里) 【마을】 충북-제천군-제천읍-신백동- → 관앞.
- ⑧ 관전교(館前橋) 【다리】 충북-제천군-제천읍-신백동- → 관앞다리.

53) 지방의 각 관이나 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자로 일수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관일수(官日守)와 역일수(驛日守)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 병전 외아전조에 의하면, ‘부(府)에 44인, 대도호부에 40인, 목에 40인, 도호부에 36인, 군에 32인, 현에 28인’이라 하여 전국 330여 개에 달하는 지방관아에 총 1만여 인의 관일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역시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로에 20인, 종로에 15인, 소로에 10인’이라 하여 전국 540여개를 상회하는 각 역참에는 약 6,000여 인의 역일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이 부담하였던 역의 형태는 지방관아의 영조(營造)와 영선, 수령 및 국내외 사객의 접대와 영송, 국둔전·관둔전·제역전 등의 경작, 답험손실 및 향역의 보조업무 수행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고역화되어 가장 대표적인 천역인 칠반천역(七班天役)의 하나가 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사전>

⑤-⑧의 관전동(館前洞), 관전리(官前里), 관전교(館前橋)은 모두 ‘관앞’이라 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옛말>에서 관(官)의 옛말을 살펴보면

* 그위 [이] <옛> 관칭, 공공(公共)

예) 그위에 결(決)하라 가려 헛더니<석 六 24>

* 그위실 [이] <옛> 공직, 관직.

‘관칭’은 ‘그위’라 했고, 공직(公職), 관직(官職)을 ‘그위실’이라 했다. 또 『훈몽자회』, 『천자문』에서 ‘官’, ‘公’의 훈[字釋]을 살펴보면

* 官 구의관.<예산본훈몽자회- 中, 4 뒤>.

* 官 귀관.<광주판천자문>

* 公 구의공.<동경대본훈몽자회 中, 1>

위에서 ‘官’은 ‘구의관’, ‘귀관’이라 했고, ‘公’도 ‘구의공’이라 했다. 그러므로 관전(官前)의 고유어 지명은 ‘그위앞’ 또는 ‘그의앞’이 될 것이다. 따라서 ④에서 관전리(官前里)의 고유어 지명인 ‘고야걸’로 불린 것은 ‘구의’에 관형사형어미 ‘이’와 ‘걸’을 합한 ‘구의+이+걸’이 모음의 변화로 ‘고의’가 됨에 따라 ‘고의+이+ㅅ+걸→괴잇걸→괴얏걸→괴약걸’이 되었거나 또는 ‘고의+잇+ㅅ+걸’이 ‘고야걸’이 되었을 것이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에서 ‘동신중고’라 표기된 지역이 옛날 경양마을이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양 마을로 추정되는 남쪽에 ‘우산’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광주동신중고등학교 정문 도로 건너편 옛 경양 마을로 추정되는 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아파트를 건설한 후 아파트 앞 도로변에 이곳이 옛 경양역터((景陽驛趾)였다는 작은 표석을 세워 놓고 있다. 따라서 관전리(官前里)는 경양역터((景陽驛趾)였다는 지금의 동신중고등

학교 정문 건너편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가리는 동신중고등학교 앞으로 난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로 통하는 도로를 뜻함을 알 수 있다.

▣ 치동(峙洞)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 치동(峙洞) 마을을 볼 수 있다.

- ① 치동리(峙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 ② 치동리(峙洞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우산리>
- ③ 치동리(峙洞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잣모실.
- ④ 잣모실(峙洞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한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⑤ 한거리[大街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우산동 으뜸 마을. 큰길 옆이 됨.
- ⑥ 괴약걸[고야걸. 관앞걸. 관전리(官前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잣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 경양역관이 있었음.

위 치동리(峙洞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에 속한 마을이며 1914년 행정 구역이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를 보면 광주군 서방면 우산리조의 치동리(峙洞里) 마을이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우산, 풍향

③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를 보면 치동리(峙洞里)는 고유어 지명이 ‘젓모실’이라 했고, ④에서 ‘젓모실’은 “한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으며 ⑤에서 ‘한거리’는 우산동에서 으뜸 마을로 큰 길옆이라서 대가리(大街里)로 불린다 했다. 그리고 ⑥에서 ‘괴약걸’은 달리 관전리(官前里)인데 경양역관이란 관청이 있었다 했다. 따라서 ‘한거리’(大街里)는 우산동의 중심 마을이고, 한거리 서북쪽 마을은 젓모실(峙洞里)이며, 젓모실(峙洞里) 남쪽에는 관전리(官前里)인데 이곳에는 경양역(景陽驛)이 있었다 했다. 이로 보아 경양역(景陽驛)이 있었던 관전리(官前里)는 지금의 동신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었던 마을이며 동신중고등학교 앞 도로는 한거리 즉 대가리(大街里)였으며, 한거리 서북쪽 마을이 젓모실(峙洞里)이라 하였으니, 치동리(峙洞里)는 말바우사거리에서 동신고등학교 정문으로 올라오는 약간 경사진 고갯길에 놓인 육교 주변 옛 효죽동파출소와 효죽동우체국이 있었던 동산고등학교 반대편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동(峙洞)은 고유어 지명이 ‘젓모실’이라 하였으니 말바우사거리에서 동신고등학교 정문에 이르는 고갯길에 연유해서 불린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대가(大街)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 대가(大街) 마을이 있다.

- ① 대가리(大街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
- ② 대가리(大街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우산리>
- ③ 대가리(大街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한거리.<『한국지명총람』 >
- ④ 한거리[大街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 우산동 으뜸 마을. 큰길 옆이 됨.

위 대가(大街)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의 대가리(大街里)이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우산리의

대가리(大街里)이다. 『한국지명총람』 북구 우산동(牛山洞)조에 대가리(大街里)는 고유어 지명이 ‘한거리’라 했다. ‘한거리’의 ‘한’은 ‘크다’의 옛말이므로 ‘大’로 훈차하고 ‘거리’는 ‘街’로 훈차하여 대가(大街)로 표기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한거리’로 불렸을까? ⑥의 『한국지명총람』에 ‘괴약걸’이란 지명이 있다.

⑥ 괴약걸[고야걸. 官앞걸. 官前里] 【마을】 광주시-북구-우산동-잣모실 북쪽 마을. 경양역관이 있었음.

이는 달리 ‘官앞걸’ 또는 관전리(官前里)인데 잣모실 북쪽 마을로 경양역관이 있었다 했다.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경양역(景陽驛)이 표기된 곳에 관청(官廳), 관사(官舍), 일수청(日守廳)이 표기되어 있다. 경양역관(景陽驛館)은 당시에 관청이었으며, 그러기에 이곳에 ‘큰길’이 형성되었으며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6)를 보면 경양방죽(景陽池) 북쪽에 풍동(豊洞)이 있고 풍동 동편에 경양(景



『구한말한반도지형도』 (1895) 경양

陽)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에 ‘동신중고’라 표기된 지역이 옛날 경양마을이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양 마을로 추정되는 남쪽에 ‘우산’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광주동신중고등학교 정문 도로 건너편 옛 경양 마을로 추정되는 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아파를 건설한 후 아파트 앞 도로변에 이곳이 옛 경양역터((景陽驛趾)였다는 작은 표석을 세워 놓고 있다. 따라서 관전리(官前里)는 경양역터((景陽驛趾)였던 지금의 동신중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마을이었으며 그러기에 대가리는 동신중고등학교

교 앞으로 난 광주와 담양을 잇는 큰 도로라는 의미에서 불린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경양(景陽)방죽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계림1동)에 있었던 저수지이다. 박선홍은 그의 저서 『광주1백년』②(1994:232쪽)에서 조선 세종 22년(1440)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김방(金攸)이 세종의 중농정책을 받들어 광주지역 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2년의 공사 기간에 완공했고, 규모는 대략 15헥타르, 수심은 10m에 달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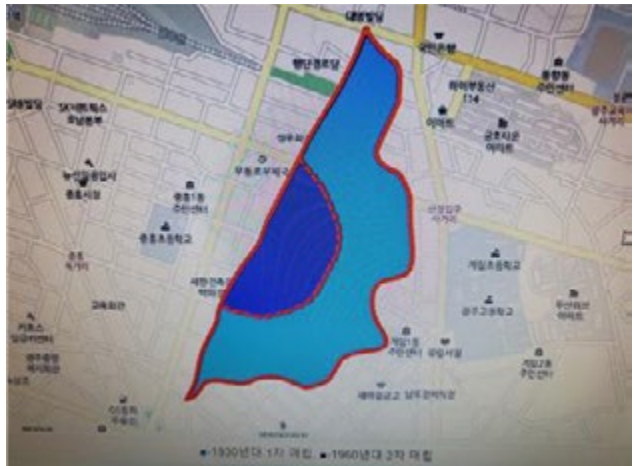


국토정보맵(1910년대) 경양방죽[蓮池]

고 규모로 볼 때 호남 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다 했고, 경양방죽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었고 호수의 주변으로는 수백 년 된 팽나무, 왕버드나무, 귀목나무 고목들이 즐비했기에 1940~5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로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뱃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탔다.

경양방죽은 1935년 당시 전라남도지사였던 야지마스기조(矢島杉造)를 중심으로 매립 계획이 세워졌으니 반대 운동이 일어나 ½이 남게 되었는데 이후 광주의 인구증가로 남은 경양방죽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오염이 심해 수질이 악화됨에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1966년 이후 태봉산을 헐어 그 흙으로 매웠다. 경양방죽은 사라졌지만 골목길 구획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계천로 6번길-무등로 306번길-무등로 307번길 라인이 원래 경양방죽의 서쪽 경계, 경양로 217번길과 중흥로 209번길이 반달 모양의 골목길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960년대 매립 직전 경양방죽의 동쪽 경계를

알 수 있다. 이 길들은 2011년에 경양방죽 독방길(일명 '개미길')이라는 산책길로 조성되었다. 이후 경양방죽이 메워진 자리에는 1969년 광주시청을 지어 이전하였다가, 2004년에 광주광역시청이 다시 상무지구로 이전한 후 지금은 홈플러스 계림점이 들어서 있다.



경양방죽(1,2차 매립지)(<https://namu.wiki/>)

1910년대 국토정보맵(19610년대)

을 보면 경양방죽은 연지(蓮池)로 표기되었다. 인터넷 포털에서 나무위키(<https://namu.wiki/>, 2022. 6. 20.접속)를 접속하여 경양방죽을 검색하면 1930년대 1차매립지와 1960년대 2차매립지를 볼 수 있다. 2차 매립지는 계림초등학교 왼쪽으로 파악된다. 경양방죽은 태봉산을 깎아 매립한 후 광주시청이 들어섰는데 이후 광주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홈플러스(homeplus) 매장 건물이 들어서 있다.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년)를 보면 누항촌(陋巷村)과 경양(景陽) 마을을 잇는 도로와 맞물려 경양방죽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고 그 서편에 표고가 62로 표기된 태봉산을 볼 수 있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계림동1구와 계림동2구 지역을 보면 경양지(景陽池)와 그 북쪽에 우산(牛山), 풍향(豐鄉)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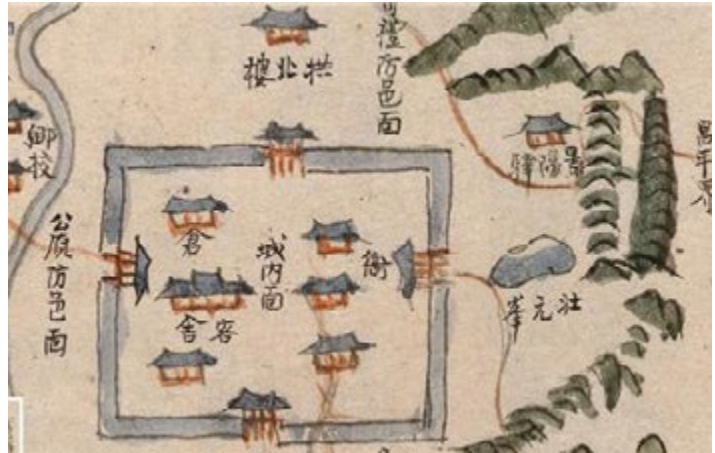


국토정보맵(25k,1960년대) 경양방죽(연지)

▣ 경양역터(景陽驛-)

- ① 경양역(景陽驛) 현의 동쪽 8리에 있는데 승(丞)을 두었다. 본도에 속한 역은 여섯이니, 덕기(德奇)·가림(加林)·인물(人物)·검부(黔富)·창신(昌新)·대부(大富)가 그것이다. ○ 승(丞) 1명이다. 지금 임금 5년에 승을 혁파하고 찰방(察訪)을 두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역원>
- ② 경양도(景陽道) 東으로 8리.<『대동지지』 전라도 광산현 역참>
- ③ 경양역터(景陽驛-) 【터】 광주시-북구-우산동- 괴약걸에 있던 경양역의 터. 역승을 두다가 조선 숙종 5년(1679)에 혁파하여 찰방을 두었음. 경양도의 본역으로서, 담양부의 덕기, 화순현의 가림, 능성현의 인물, 동북현의 검부, 순창현의 신창, 옥과현 대부의 6개 역을 관할 하였음.

①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역원조에 현의 동쪽 8리에 경양역(景陽驛)이 있다 했고, ②의 『대동지지』 전라도 광산현 역참조에 동(東)으로 8리에 경양도(景陽道)가 있다 했으며, ③의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서 경양역터(景陽驛)



『지승(地乘)』 경양역(景陽驛)

는 괴약걸에 있었다 했다.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역원조에 의하면 경양역(景陽驛)은 현의 동쪽 8리에 있는데 승(丞)을 두었다. 본도에 속한 역은 여섯이니, 덕기(德奇)·가림(加林)·인물(人物)·검부(黔富)·창신(昌新)·대부(大富)가 그것이다. ○ 승(丞) 1명이다. 『신증』 지금 임금 5년에 승을 혁파하고 찰방(察訪)을 두었다 했다.

역제(驛制)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국시대에 국지적으로 실시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전국적으로 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역제를 이어받아 실시되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역과 같은 곳을 참(站)이라 부르는데, 조선 시대에는 통신제도인 파발제(擺撥制)에서 역(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을 참(站)이라 하였다. 역제(驛制)는 근대적인 교통수단이나 통신 시설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교통로의 형성과 운영 등 교통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니 조선조의 모든 제도가 정비되었던 성종대에 역제는 9대 간선도로와 140여 개의 지선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23개의 찰방도(察訪道)와 18개의 역승도(驛丞道) 관할 하에 모두 543역이 분포하였다. 각 역에는 역장(驛長), 역리(驛吏), 역졸(驛卒), 역정(驛丁), 역노(驛奴) 등을 두어 역무와 공역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관둔전(官屯田)과 마전(馬田) 등의 역전(驛田)을 지급하여 역의 운영 경비와 역원들의 급료를 충당하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역원조에 실린 역(驛)은 다음과 같다.

경양역(景陽驛), 선암역(仙巖驛), 수여원(水餘院), 증원(甌院), 최정원(崔鄭院), 저원(猪院), 보통원(普通院), 분수원(分水院), 장록원(長祿院), 견암원(堅巖院), 혈보원(穴汙院), 누문원(樓門院), 극락원(極樂願), 진국원(鎭國院), 신원(新院),

▣ 마암(馬巖)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조에 마암(馬巖) 마을이 있다.

- ① 마암(馬巖) 【바위】 광주시-북구- → 말바우.
- ② 말바우[마암] 【바위】 광주시-북구-우산동- 우산 동쪽에 있는 바위.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서 쉬었다 함.

위 마암(馬巖) 마을은 고유어 지명은 ‘말바우’로 불린다. ②의 『한국지명총람』 광주 북구 우산동조에 의하면 말바우는 우산 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서 쉬었다 함이라 했으니 말바우(馬巖)의 유래를 김덕령 장군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곳에는 말바우사거리가 있다. 동강대학 정문에서 시내와 담양으로 통하는 도로와 북구청과 동강대학 후문을 잇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말바우사거리를 중심으로 시내와 담양을 잇는 도로의 서쪽은 우산리이고 동쪽은 두암동이다. 마암(馬巖) 마을에는 지금의 말바우시장이 되었다. 마암(馬巖) 마을은 『국토정보맵』(1910년대)이나 국토정보맵(1960-70년대)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80년대)에는 ‘말미리’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말머리’의 오기로 보인다. 즉 ‘말바우’를 ‘말마을’ 즉 마촌(馬村)으로 인식하여 ‘馬’ 즉 ‘말’은 그대로 ‘말’로 적고, ‘마을’은 예전에 ‘머리’를 뜻하는 ‘湄’로 훈차 표기한 관습이 있었다. 양주동은 『고가연구』(1965:69쪽)에서 향가(鄕歌)의 하나인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의 ‘竹湄’를 ‘대머리’라 했고, ‘湄, 官’의 훈이 ‘머리·마을’이라 했기 때문이다.



국토정보맵(25k, 1980) 우산동 마암(말미리)

한편 북구 두암동에는 이곳의 마암(馬巖) 즉 말바우와 달리 원두암(元斗巖) 마을이 불리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두암동 원두암(元斗巖) 마을보다 우산동 ‘말바우’를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원두암(元斗巖) 마을에 의해서 두암동(斗巖洞)이 불렀고 또 그 고유어 지명 ‘말바우’가 불렸을 것인데 이제는 우산동 말바우사거리의 마암(馬巖)이 ‘말바우’로 더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산동의 두암(斗巖)은 말바우사거리에 있는 마암(馬巖) 마을이었고, 두암(斗巖)

마을은 문화초등학교 앞 큰 도로 건너편에 있었던 마을이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문화초등학교 도로 건너편의 마을을 원두암(元斗岩)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암(馬巖)과 두암(斗巖)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말바우’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떠할까?

⑦ 말바우1[마암리] 【마을】 전북-무주군-안성면-공진리-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음.

⑧ 말바우 【바위】 충북-제천군-봉양면-주포리- 바위 위에 자국이 나 있는데, 옛날 장수의 말 발자국이라 함.

⑦의 ‘말바우’는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이라 했고, ⑧의 ‘말바우’는 “장수의 말 발자국이 난 바위”라 했다.

⑨ 말바우 【바위】 전남-함평군-대동면-연암리- 옛 말처럼 네모지게 생겼음.

⑩ 말바우 【바위】 광주시-광산구-덕림동- 곡식을 되는 옛날 말처럼 네모지게 생겼음.

⑨-⑩의 ‘말바우’는 예전에 곡식의 양을 셈하던 말(斗)처럼 네모지게 생겼음이라 했다. 필자가 본 곡식의 양을 셈하던 말(斗)은 원통 모양이었다. 그러나 ⑨-⑩의 ‘말바우’는 바위의 형상이 네모지게 생겼다 했다. 이를 보면 오래전의 말[斗]은 원통 모양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의 되(升)처럼 네모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한국지명총람』에 ‘말바우’로 불리는 지명들은 대개 혼차되어 두암(斗巖)으로 표기되고 있다.

⑪ 두암(斗岩) 【바위】 광주시-광산구-동산동- 곡식을 되던 말처럼 네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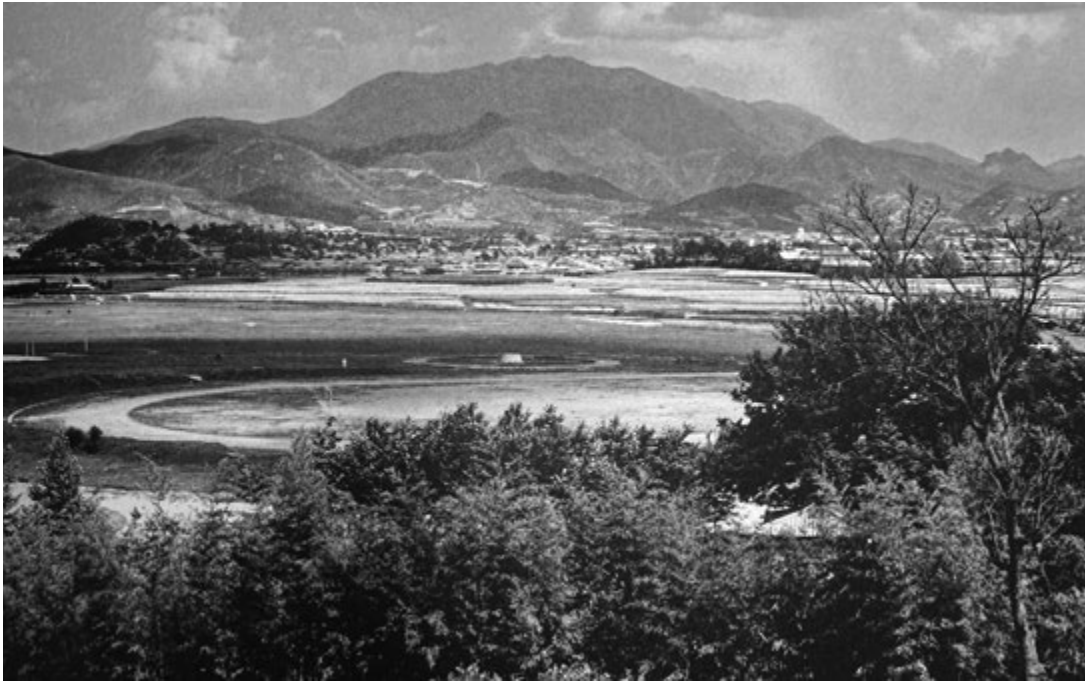
⑫ 두암(斗岩) [마대] 【마을】 충남-예산군-봉산면-효교리-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⑬ 두암산(斗巖山) 【산】 경북-선산군-무을면-오가동- → 말밤산.

⑪의 두암(斗巖)의 ‘斗’는 곡식의 양을 셈하는 도량형기(度量衡器)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곡식을 되던 말처럼 네모남”이라 했다. 하지만 ⑫의 두암(斗巖)은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이라 했으니, 말(馬)의 형상처럼 생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斗)처럼 생겼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⑬의 두암(斗巖)은 이칭이 ‘말밤산’이라 했다. ‘말밤산’은 밤의 알맹이가 큰 알밤(大栗)에 연유해 불렸다 했다. 하지만 어쩐지 어색하다. 또 마암(馬巖)도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서 쉬었다 하여 이를 마암(馬巖) 즉 말바우로 불렸다 했다. 이 유래 또한 어색하다.

두암(斗巖)의 고유어 지명 ‘말마우’의 ‘말’은 ‘크다’를 뜻하는 어사일 가능성이 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을 보면

* 말[앞] 일부 동식물의 이름 앞에 붙어서 ‘큰’의 뜻을 나타냄. 예) ~매미, ~박, ~벌.



전남대에서 바라본 무등산 (1962년) (출처_광주100년)

이라 하여 ‘말’이라는 접두사가 ‘크다’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라 했다. 즉 ‘말매미’는 ‘큰매미’, ‘말벌’은 ‘큰벌’, ‘말나리’를 ‘큰 나리’, ‘말거머리’를 ‘큰 거머리’를 뜻하듯이 ‘말바우’는 ‘큰 바위’에서 연유한 지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산동 관내에는 무등도서관이 있고 무등도서관 정면에는 우산근린공원이 있다.



국토정보맵(50k,1960년대) 효죽동(우산, 중흥, 풍향)



무등경기장(1989년) (출처_오디세이 광주120년)

9. 풍향동(豊鄉洞)

1) 연혁

- ① 잔풍(殘風).<『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편방(片坊里)>
- ② 고사리(古沙里), 풍동리(豊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 ③ 두방면(斗坊面)의 고사리(古沙里), 풍동리(豊洞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豊鄉里)>
- ④ 풍향동(豊鄉洞) 【동】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고사리 향교와 풍동리를 병합하여 풍동과 고향교의 이름을 따서 풍향리(豊鄉里)라 하여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효죽동의 관할이 되었다가, 1979년 풍향동을 갈라서 풍향 1동, 2동회로 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따라서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豊鄉里)가 되었다.(1935. 4. 28. 府令 제112호>
- ⑥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⑦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전지역), 석곡면(5리)를 광주시에 편입하였다.(편입된 서방면은 풍향출장소를 두어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 함)
- ⑧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두면서 법정동인 풍향동(豊鄉洞)은 우산동(牛山洞), 중흥동(中興洞)과 함께 본청직할의 효

죽동(孝竹洞)의 관할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⑨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하면서 북부출장소 내 효죽동(孝竹洞) 관할 풍향동(豐鄉洞)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⑩ 1970. 1. 1. 효죽동(孝竹洞)에서 풍향동(豐鄉洞)이 분리 독립했다.

* 1966. 1. 8. 효죽동(孝竹洞)에서 중흥동이 분리 독립.

* 1970. 6. 29. 효죽동(孝竹洞)에서 우산동(牛山洞)이 분리 독립했다.

⑪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는 따라 광주시 동구(東區) 풍향동이 되었다.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는 관할이 됨.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는 관할이 됨.

⑫ 1979. 5. 1. 동구 풍향동(豐鄉洞)은 풍향1동과 풍향2동으로 분동되었다.(1979. 2. 7. 광주시 조례 제866호)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됨에 따라 북구 풍향동(豐鄉洞)이 되었다..

*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병합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 폐지.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다.(전라남도에서 분리)

⑮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이 되었다.

⑰ 1997. 3. 1. 풍향1, 2동이 통합되어 풍향동(豊鄕洞)이 되었다.

⑱ 2010. 10. 1.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부가 북구 풍향동(豊鄕洞)에 편입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풍향(豊鄕)

풍향동(豊鄕洞)은 『호구총수』에 잔풍(殘風)으로 불렸고, 1896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두방면(斗坊面) 고사리(古沙里), 풍동리(豊洞里)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에는 서방면(瑞坊面) 고사리(古沙里) 풍동리(豊洞里) 지역이었다. 그러기에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풍향동(豊鄕洞)조에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고사리 향교와 풍동리를 병합하여 풍동(豊洞)과 고향교(古鄕校)의 이름을 따서 풍향리(豊鄕里)으로 불렀다 했다.

광주향교(光州鄕校)는 고사리(古沙里)에 있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에 의하면 광주향교(光州鄕校)는 고려 공양왕 때(1390년) 정당문학박사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 시중이 되어 서울에 5부학당을 세우고 각 고을에 향교를 세워 공자의 도의사상과 인본주의적 윤리 교육에 힘쓰는 정책에 따라 광주향교는 옛날에 서석산(瑞石山)의 장원봉(壯元峯) 서록하(西麓下)에 건립되었는데 그 후 호환(虎患)이 생겨 광주읍성의 동문내(東門內)에 옮겨 세웠으며 성종 19년(1488년)에 현감 권수평(權守平)이 교촌(郊村) 현 구동(龜洞)에 이건 하였는데 임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33년에 중건했다 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 학교조의 성현(成愼)의 기(記)에 “경신년(庚申年) 11월 표제(表弟) 상사(上舍) 박이온(朴以溫)이 와서 <광산학기(光山學記)> 를 써 달라고 한다. 현감 권수평이 부임해온 이래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길러 병든 백성들이 은혜를 흡족하게 입었으니, 고을의 피폐한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옥에는 갇힌 사람이 없었으며, 교활한 관리가 그 간교한 꾀를 부리지 못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편안하여 한 지아비도 뜻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동리가 평안하여 도적이 없었고, 정치가 공정하고 송사(訟事)가 없어져서 장부와 문서가 적어졌다. 매양 공무를 보는 틈을 타서 친히 유생(儒生)들을 이끌고 경학(經學)을 담론하여 이끌어 주고 깨우쳐 주며,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모두 합당했다. 학교가 전에는 성안에 있었는데, 낮고 습하고 좁고 퇴락하여 허물어졌었다. 현감이 부모(父老)들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선성(先聖)의 거소(居所)로는 맞지 않는데 어찌 새로 지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니, 모든 부모들이 모두, ‘좋습니다.’ 했다. 그리하여 성의 서쪽 2리쯤에 터를 잡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현민들이 줄을 이어 모여들기를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좇아 일하는 것같이 하여 몇 달 만에 일이 끝났다.-이하 생략-” 하였다. 이로 보면 광주향교는 옛날 성안에 있었는데 현감 권수평이 낮고 습하고 좁고 퇴락하였기에 부모(父老)에게 권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했다. 그러므로 풍향동(豐鄉洞)은 풍동(豐洞)과 향교(鄉校)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고사(古沙)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풍향동조에서 고사(古沙) 마을이 있다.

- ① 잔풍(殘風).<『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편방(片坊里)>
- ② 고사리(古沙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
- ③ 고사리(古沙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풍향리>
- ④ 고사(古沙) [고새, 고새기, 고생기, 고향교, 고향교리] 【마을】 풍향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광주향교가 있었음.<『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풍향동>
- ⑤ 고향교(故鄉校) 【마을】 광주시-북구-풍향동→ 고사.
- ⑥ 고향교리(故鄉校里) 【마을】 광주시-북구-풍향동→ 고사.

위 고사(古沙)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편방(片坊里)조에 잔풍(殘風이라 하였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조에 고사리(古沙里)라 하였으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풍향리조에 고사리(古沙里)라 했다. 고사(古沙) 마을은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동편인 지금의 백림약국 사거리의 백림약국 뒤편 지역이다.



국토정보맵(25k, 1960) 고사(古沙)

그렇다면 고사(古沙)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풍향동조에 고사(古沙) 마을은 이칭이 “고새, 고새기, 고생기, 고향교”로 불렸다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생기’란 지명의 유래는 어떠할까?

- ⑦ 생기 [교촌, 향교] 【마을】 경북-상주군-상주읍-신봉리- 봉대 북쪽에 있는 마을. 상주 향교가 있음.
- ⑧ 생기들 [향교평] 【들】 충청북도-단양군-매포면-별곡리- 전에 단양 향교의 논밭이 많았음.
- ⑨ 생기말 [교동] 【마을】 전라북도-무주군-부남면-장안리- 장안리 마을. 향교가 있었음.

⑦의 ‘생기’는 이칭이 ‘교촌, 향교’라 했고, ⑧의 ‘생기들’은 전에 단양 향교의 논밭이 많았음이라 하여 향교와 무관치 않은 듯하며, ⑨의 ‘생기말’은 이칭이 ‘교동’으로 향교(鄉校)가 있었음이라 했으니 역시 향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생교’라 불리는 지명을 살펴보면,

- ⑩ 생교 [교촌, 생기, 향교] 【마을】 전북-고창군-무장면-교흥리- 교흥리 으뜸 마을. 무장향교가 있음.
- ⑪ 생교말 [교촌, 향교말] 【마을】 강원-원주시-명륜동- 원주향교가 있는 마을.
- ⑫ 생교말 【마을】 전북-군산시-오식도동- 문창 향교가 있었음.
- ⑬ 생교물[생갯말, 신교리, 향교물] 【마을】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해남향교가 구교리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 왔음.

⑩의 ‘생교’는 이칭이 ‘교촌, 생기, 향교’로 불리는데 무장향교가 있었다 했고, ⑪의 ‘생교말’은 원주향교(鄕校)가 있는 마을이라 했으며, ⑫의 ‘생교말’은 문창 향교가 있었다 했고, ⑬의 ‘생교물’은 해남향교가 구교리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 왔다 했다. 이를 보면 ‘생교’, ‘생교말’은 향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도 교대 모습 (출처_광주100년)

그렇다면 ‘생기’, ‘생교’는 향교(鄕校)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생기’의 풀이를 보면

“생기 [이] → 향교.(경남)”

“생교 [이] → 향교.(제주)”

이라 하여 ‘생기’는 향교(鄕校)의 경남방언이라 했고, ‘생교’는 향교(鄕校)의 제주방언이라 했다. 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전라남도편)⁵⁴에서 ‘형’이 ‘성’으로 조사보고 되었음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향’의 ‘ㅎ’ 음이 구개음화현상에 따라 ‘ㅅ’으로 변해 ‘상교’가 되었었을 것인데 ‘교’의 ‘ㄱ’ 모음이 ‘ㅣ+ㄱ’이므로 ‘ㅣ’의 영향으로 ‘ㅣ모음역행동화현상’에 따라 ‘생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돈주(1987:70)는 『전남방언』에서

“표준어에서는 /i:ɛ:ɛ/가 각각 간극의 고·중·저에 의하여 계단대립을 이룬 것인데, 이 방언에서는 ‘네/가 /i/의 성역(聲域)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 결과 /ɛ/음을 가진 낱말의 대부분이 /i/로 변이되는 것이 특징이다(셋→식, 베다→비다). 이에 따라 /ɛ/와 /ɛ:/의 음성 간극이 너무 넓어지게 되므로 /ɛ/도 /ɛ:/의 위치로 이동 상승함으로써 거리의 균형을 꺾히게 되어 두 음은 /E/로 선별할만하다.”

이라 했고, 그밖에 전남 방언에서 ‘게’(蟹)가 ‘기’로, ‘네’(四)가 ‘니’로, ‘메기’가 ‘미기’로 변이됨을 볼 수 있다 했다. 따라서 ‘생계·생게’는 ‘생기’로 변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옛 향교[古鄕校]라는 의미에서 불린 ‘고생기’는 ‘오’음이 탈락하여 ‘고새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후 ‘고새기’는 ‘고새’로 축약되고 ‘새’는 옛 지명에서 흔히 ‘沙’로 표기됨에 따라 고사(古沙)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전라남도편) 1991, 147쪽

⑭ 고사(古沙) [고새, 고새기, 고생기, 고향교, 고향교리] 【마을】 풍향동에서 으뜸 마을. 광주향교가 있었음.

이는 양주동은 『고가연구』(1965:89쪽)에서 “沙梁은 ‘새도’(새터, 新址)”라 했고, “사뇌가(詞腦歌) 중에 ‘沙’의 용자례(用字例)는 역시 ‘사·새’에 불외(不外)한다.” 했기 때문이다.

▣ 풍동(豐洞)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풍향동에 풍동(豐洞) 마을을 볼 수 있다.

- ① 잔풍(殘風).<『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편방(片坊里)>
- ② 풍동리(豐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
- ③ 풍동(豐洞).<『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풍향리>
- ④ 풍동(豐洞) 【마을】 광주시-북구-풍향동-고사 서쪽에 있는 마을.

위 풍동(豐洞)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편방리(片坊里)의 잔풍(殘風) 마을이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의 풍동리(豐洞里) 마을이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풍향리의 풍동(豐洞) 마을이다.



국토정보맵(25k, 1960) 풍향(옛 풍동)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년)(도엽광주)을 보면 풍동(豐洞) 마을은 경양지(景陽池) 북쪽, 경양(景陽) 마을 동쪽에 표기되어 있

다. 이 지역을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에서 확인해 보면 경양(景陽) 마을 동편, 길 건너편에 풍동(豊洞)이라 표기되어 있고, 국토정보맵(25k, 1960)에서 이곳을 확인해 보면 광주교육대학교 서편에 여러 점으로 마을이 표시되고 ‘풍향’으로 적고 있다.

그러면 풍동(豊洞)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 서울시 송파구조를 보면 풍납동(風納洞), 풍납리(風納里), 풍납리토성(風納里土城)이 있다.

- ⑤ 풍납동(風納洞) [바람드리, 풍납리] 【동】 서울시-송파구- 이 동은 본래 광주군 구천면의 일부로서 바람드리성이 있으므로, 바람드리, 또는 한자명으로 풍납리라 하는데, 1914년 3월 1일, 경기도 구역 획정에 따라 웃바람드리, 아래 바람드리를 병합하여 풍납리가 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풍납동이 됨.
- ⑥ 풍납리(風納里) 【마을】 서울시-송파구-풍납동- → 풍납동.
- ⑦ 풍납리토성(風納里土城) 【고적】 서울시-송파구-풍납동- → 바람드리성.
- ⑧ 풍납성(風納城) 【고적】 서울시-송파구-풍납동- → 바람드리성.

위 ⑤의 풍납토성(風納土城)의 ‘風’은 훈이 ‘바람’이고, ‘納’은 훈이 “드릴납”(광주판 천자문)이라 했다. 즉 풍(風)은 벽(壁), 성벽(城壁), 성(城)의 옛말 ‘부름’에서 변한 ‘바람’의 훈차 표기이고, 장삼식 편 『대한한사전』((1961:1119쪽)에서 ‘納’의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 풍동

훈을 찾아보면 ‘드릴납(入也)’이라 했다. 옛날에는 도성(都城)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기에 풍납(風納)은 성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만일 성문이 닫히면 성문 앞 마을에서 유숙해야 한다. 성문 앞에는 마을이 있었다. 풍납리(風納里)는 토성(土城) 앞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다. 그러기에 풍납토성(風納土城)은 ‘풍납리’란 마을 이름을 딴 지명이다.

그렇다면 풍동(豊洞)은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풍동(豊洞)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⑥ 풍동(豊洞)【마을】→ 아랫말.<전남-나주군-반남면-대안리

㉠ 자미산(紫微山) [부성산, 성선산]【산】 반남면 대안리, 신 촌리와 석천리 경계에 있는 산.

봉우리에 용항천과 옛 성터 및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금동관은 백제의 것으로 유명함.<전남-나주시-산천>

㉡ 대안리고분군【고적】 대안리 옛 무덤.<전남-나주시-반남면-대안리>

㉢ 신촌리고분군【고적】 대안리 옛 무덤.<반남면-신촌리>

㉣ 덕산리고분군【고적】 대안리 옛 무덤.<반남면-덕산리>

㉤ 담박【들】 상대 남쪽에 있는 들.<상동>

㉥ 담안쪽【마을】 상대 안쪽의 마을.<상동>

㉦ 아랫말[하대, 하달리, 풍동]【마을】 가운뎃말 아랫(아래) 쪽 마을.<상동>

㉧ 방두(芳頭)【마을】→ 방머리.<상동>

㉨ 방머리[방두]【마을】 아랫말 서남쪽 마을.<상동>

㉩ 풍동(風洞)【마을】→ 바래미.<전남-진도군-의신면-만길리>

⑥의 풍동(豊洞)은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의 ㉠-㉡의 자미산(紫微山)은 일명 부성산(芙蓉山), 성성산이라 했고 자미산성(紫微山城)이 소재한 자미산(紫微山)의 서편은 대안리인데 이곳에는 ⑥의 풍동(風洞) 마을과 ㉠-㉡의 대안리고분군이 분포한다. 그리고 자미산(紫微山)의 동북편에는 신촌리 지역인데 이곳에는 성내마을과 ㉢-㉣의 나주신촌리고분군, ㉤-㉥의 나주덕산리고분군이 분포한다. 또 이곳 덕산리고분군 옆에는 관광안내소와 국립나주박물관이 소재하고, 건물 북쪽에는 신촌리고분군이 있는데 이들 고분군은 예전에는 백제 때의 것이라 한다. 하지만 임영진(2014:18)은 자미산성(紫微山城)은 목포대학박물관(2000)의 시굴결과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했고, 신촌리 성

내(城內) 마을 인근 토성은 전남대학박물관(2005)의 시굴결과 통일신라말-고려초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다.

자미산성(紫微山城)의 자미(紫微)는 본래 성(城)의 옛말 ‘쟈’에 산(山)의 옛말 ‘미’(미·뫼)를 붙인 어사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성(城)의 일종인 담[牆]이 있었기에 ㉔-㉕의 ‘담밖’, ㉔-㉕의 ‘담안쪽’이란 지명이 공존한다. 또 이곳에는 『두시언해』에서 벽(壁), 성(城), 성벽(城壁)으로 대역된 ‘벽’의 잔형으로 추정되는 ‘밭’에서 변이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방’에 ‘머리’를 붙인 ㉔-㉕의 방두(芳頭) 즉 ㉔-㉕의 방머리 마을도 공존한다.

‘방(芳·傍)’이 쓰인 지명으로는 서울 서초구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변의 방이동(芳蕘洞)과 전남 장흥군 관산면 방촌(傍村) 마을⁵⁵⁾ 등이 있다. 장흥 방촌(傍村)의 고유어 지명 ‘곶마실’은 ‘傍’의 훈에 따라 불린 이름이나 이는 ‘밭’에서 변형된 어사일 것이다. 이곳 내동과 계춘동 마을 뒤편에는 백제에서 고려말까지 활용되었던 성으로 추정되는 상잠산성(觴岑山城)이 있다. ‘觴’은 훈이 ‘잔’이다. ‘잔’은 성(城)의 옛말 ‘쟈’이 ‘뫼’와 합하여 ‘쟈뫼’가 되는데 말음 ‘스’은 뒷소리 유성음 ‘ㄹ’의 영향으로 유성음 ‘ㄴ’으로 변하여 ‘잔뫼’가 된다. 이 ‘잔’을 음차 표기한 어사가 ‘觴’이다. 그러기에 상잠산성은 성(城)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 풍동(豊洞)도 이곳에 성(城)이 있었기에 성(城)의 옛말 ‘벽’을 풍(風)으로 훈차 표기해야 할 것을,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풍(豊)으로 바꾸어 표기한 촌명으로 추정한다.

- ㉔ 풍동(楓洞) 【마을】 → 중방골.<충북-음성군-대소면-대풍리>
- ㉕ 중방골【풍동】 【마을】 대풍리 으뜸 마을.<상동>
- ㉔ 검성골 【마을】 강당 서쪽 마을.<상동>
- ㉕ 검성골【금성동】 【마을】 월성리 으뜸 마을.<충북-진천군-광혜원면(옛 만승면)-월성리>
- ㉔ 금성동 【마을】 → 검성골.<상동>
- ㉕ 쟁미산 【산】 담안 북쪽 산.<상동>
- ㉕ 쟁미고개 【고개】 쟁미산 고개. 담안에서 금곡리 소물로 가는 긴 고개.<상동>

55) 장흥군·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 『장흥방촌』, 1994, 77쪽.

⊗ 담안[장내] 【마을】 월곡 서쪽 마을.<상동>

⊙ 장내(牆內) 【마을】 → 담안.<상동>

⊚ 쇠산골 【골】 담안 남쪽 골짜기.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상동>

⊛ 쇠산고개 【고개】 쇠산골 고개. 담안에서 대소면 내산리 방울미로 감.<상동>

⑦의 풍동(豊洞)은 달리 중방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대풍리의 으뜸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 충북 음성군 대소면조에 대풍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서당리, 계두리, 풍동과 진천군 만승면(광혜원면으로 개칭됨)의 검성리, 광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불린 곳이라 했다. 그리고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와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는 경계지역이다. 대소면 대풍리에는 ⑦-㉠의 검성골이 있고,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에는 ⑦-㉡, ⑦-㉢의 금성동(일명 검성골)이 있다.

한편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月城里) 소재 ⑦-㉣의 쇠산골은 담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했다. 그러나 ⑦-㉤에서 담안은 달리 ⑦-㉥의 장내(牆內)라 불린다. 장내(牆內)의 고유어 지명 ‘담안’의 ‘담’은 지금은 집 주위를 둘러싼 흙벽을 뜻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작은 성과 같은 기능을 했다. 또 이곳에는 ⑦-㉦의 쟁미산과 ⑦-㉧의 쟁미고개가 있다. 쟁미고개는 쟁미산에 있는 고개인데 담안에서 금곡리 소물로 가는 긴 고개라 했다. 또 이곳 ⑦-㉧의 쇠산골에는 ⑦-㉨의 쇠산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담안에서 대소면 내산리 방울미로 넘어가는 고개라 했다.

이를 보면 ⑦-㉠, ⑦-㉡의 검성동은 ⑦-㉢의 금성동의 변형임을 알 수 있고, ⑦-㉤, ⑦-㉥의 ‘쇠산’은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했지만, 금성(金城)의 ‘金’이 ‘쇠산’의 ‘쇠’로 바뀌고, ‘城’은 ‘山’으로 바뀐 어사임을 알 수 있으니 결국 금성(金城)이 곧 ‘쇠산’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⑦-㉦의 쟁미산은 장미산의 ‘장미’가 |모음역행동화현상으로 ‘장미>쟁미’로 변이된 지명이며, ‘장미’는 이곳에 성(城)이 있었기에 성(城)의 옛말 ‘쟈’에 산(山)의 옛말 ‘미’가 붙은 ‘쟈미’가 변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곳에는 성을 소재로 불리는 지명이 다수 분포한다. 이로 보아 이곳 풍동(豊洞)도 성(城)이나 벽(壁), 성벽(城壁)으로 추정되는 ‘벽’을 혼차 표기한 풍(風)에 동(洞)이 붙은 것을 풍(風)을 풍(豊)으로 바꾸어 풍년이 들어 살기좋은 마을로 미화표기한 지명으로 추정한다. 진풍(殘風)의 ‘殘’은 성(城)의 옛말 ‘잔’이 ‘잔’으로 바뀐것의 표기이다.

- ⑧ 풍동(豊洞) 【마을】 전라남도-나주군-반남면-대안리-→ 아랫말.
- ㉠ 발산(鉢山) 【마을】 전라남도-나주군-세지면-교산리- 교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이 바릿대같이 생겼음.
- ㉡ 시루매앞 【들】 전라남도-나주군-세지면-교산리- 풍동 서북쪽 들. 송제리의 시루매 앞쪽이 됨.
- ㉢ 탑골 【골】 전라남도-나주군-세지면-교산리- 뒷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지잠매 【들】 전라남도-나주군-세지면-교산리- 진두바지 남쪽에 있는 들.

⑧의 풍동(豊洞)은 이칭이 ‘아랫말’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⑧-㉠의 발산(鉢山)이 공존한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발산(鉢山)의 이칭을 살펴보면 ‘바래미’, ‘바리미’ 등이 매우 많다.

- ⑨ 발산(鉢山) 【마을】 경기도-김포군-양촌면-누산리- → 바리미.
- ⑩ 발산(鉢山) 【마을】 경기도-김포군-김포읍-운양리-→ 바리미.
- ⑪ 발산(鉢山) 【마을】 경기도-김포군-검단면-원당리- → 바리미.
- ⑫ 발산(鉢山) 【산】 경기도-화성군-산천- → 바라미.
- ⑬ 발산1(鉢山) 【마을】 경기도-파주군-문산읍-당동리- → 바라미.

⑨-⑪의 발산(鉢山)은 고유어 지명이 ‘바리미’라 했고, ⑫-⑬의 발산(鉢山)은 고유어 지명이 ‘바라미’라 했다.

朴英燮(2000:125)은 ‘벽, 석벽(石壁), 성벽(城壁)’은 ‘壁’에 대한 대역어인데, 『석보상절』

과 『훈몽자회』 그리고 『천자문』(광주본)에는 ‘벽’으로, 『유합』에는 ‘벽’으로 나타나지만, 한자어 석벽(石壁), 성벽(城壁)은 『두시언해』에서만 발견된 어형이라 했다. 위에서 ‘벽’은 ‘벽’으로 대역되었는데 『두시언해』에서는 ‘벽’을 ‘벽’으로 대역했고 또 ‘벽’을 ‘石壁·城壁’으로 대역하였으니, 옛날 석벽(石壁), 성벽(城壁)은 ‘벽’이라 읽었음을 알게 한다.

또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에서 ‘바리개’의 풀이를 보면 “타작할 때 사방으로 둘러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바리개’는 보리타작이나 벼를 타작할 때 사방으로 알곡식이 튀지 않도록 사방을 둘러막은 물건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밭’의 풀이를 보면 “밭: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을 실 따위로 엮어서 만든 가리개”라 하였다. 그러므로 ‘밭’은 무엇을 가리기 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광주 옛 지도 (출처 광주100년)

예전에 흔히 방문 앞이나 마루에 ‘발’을 쳤다. ‘발’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가지런히 엮어 만든 물건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발산(鉢山)은 적을 막을 목적으로 산에 벽을 쌓은 산명(山名)에서 연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므로 발산(鉢山)의 ‘鉢’은 ‘壁’의 대역어 ‘벽’에 어원을 둔 ‘벽+메>벽메>볼메’의 ‘볼’의 음차 표기로 추정한다.

성(城)은 본래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바람을 막기 위한 벽(壁)과 같은 것인데 적을 막기 위해서 규모와 기능이 커진 형태다. 벽(壁)이 추운 바람과 도둑을 막기 위한 기능에서 점차 화살과 적을 막기 위한 시설이 성벽(城壁)으로 기능과 모습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10. 문화동(文化洞)

문화동(文化洞)은 1957. 12.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4개 출장소(석곡, 지산, 서창, 대촌)를 둘 때 본청직할 행정동인 문화동을 두고 법정동인 문흥동, 각화동, 두암동을 관할케 했다. 이후 1985. 11. 1 문화동에서 두암동이 분동되고, 1995. 3. 1 문화동에 속한 문흥지구와 우산주공아파트 지역이 문흥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문화동은 나머지 문흥동 일부와 각화동만을 관할케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에 실린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조선후기 : 광주군 편방면(片坊面)
- 구한말 : 오치면 송정. 문산리, 두방면 각화리
- 1914. 4. 1. :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서방면 문흥리와 각화리
- 1935.10. 1. : 광산군 서방면 문흥(文興), 각화리(角化里)가 됨
- 1955. 7. 1. :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문흥동, 각화동이 됨

- 1957.12. 2. : 본청직할의 문화동(文化洞)이 됨.
(문흥, 각화, 두암동은 문화동 관할 법정동이 됨)
- 1961. 3.10. : 북부(北部) 출장소 관할이 됨
- 1973. 7. 1. :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동구(東區) 관할이 됨
- 1980. 4. 1. :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5.11. 1. : 문화동(文化洞)에서 두암동(斗巖洞)이 분동 됨.
- 1986.11. 1. : 북구 문화동으로 문흥동(文興洞), 각화동(角化洞) 관할함.
- 1995. 1. 1. : 북구 문화동으로 문흥동(文興洞), 각화동(角化洞) 관할함.
- 1995. 3. 1. : 문흥지구와 우산주공아파트 지역 일부가 문화동(文化洞)에서 분동되어 문흥동 (文興洞)이 되었다.

1) 각화동(角化洞)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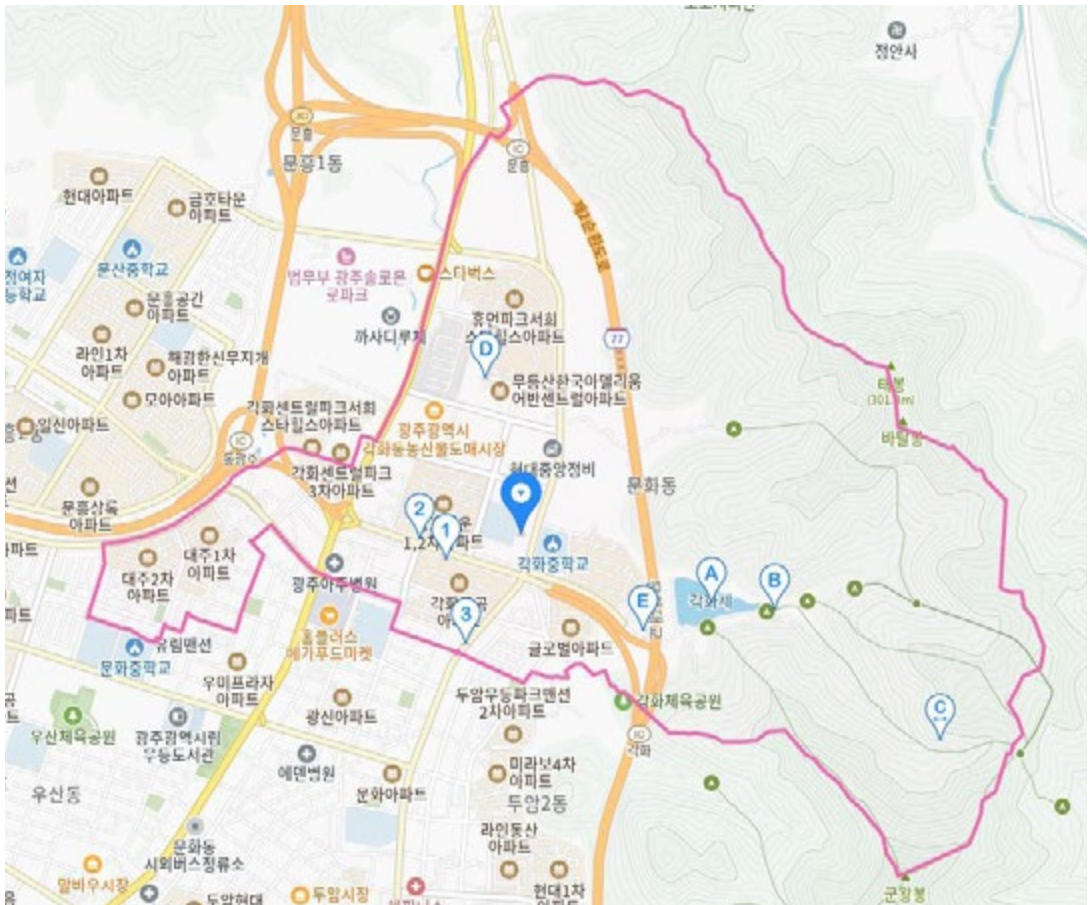
- ① 각화리(角化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 ② 문산리(文山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각화리(角化里), 문산리(文山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각화리(角化里)>
- ④ 각화동(角化洞)[각화] 【동】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의 지역으로서, 삼각산 밑이 되므로 각화(角化)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오치면(梧峙面)의 문산리(文山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각화리(角化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 1955년 7월 1일 광주시에 편입되어 리를 동으로 고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문화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 각화리(角化里)가 되었다.

⑥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와 극락면의 8개리(유촌, 덕흥, 치평, 쌍촌, 내방, 화정, 운암, 동림), 효지면 15리(진



카카오맵(2024) 문화동 지역

월, 노대, 덕남, 행암, 임암, 송하, 주월, 봉선, 용산, 소태, 월남, 내남, 선교, 용연, 운림)와 석곡면 5개리(망월, 화암, 청풍 장등, 운정)가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 ⑨ 1955. 7. 1. 광주시에 편입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4개출장소(풍향, 망월, 유립, 진월)를 두었는데 풍향출장소는 편입된 서방면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를 관할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4개 출장소 즉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 서창출장소, 대촌출장소를 둘 때 본청직할 행정동인 문화동 관할(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각화동이 되었다.
-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했다. 북부출장소는 효죽동(우산, 풍향, 중흥),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서산동(오치, 삼각, 매곡),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관할하였다(광주시사:1980).
- ⑫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를 둠에 따라 동구 문화동 관할 각화동이 되었다.
 - * 중부출장소, 동부출장소,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 남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 ⑬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洞 1區 명칭을 ○○洞 1洞으로 고침.
- ⑭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됨에 따라 북구(北區) 관할 문화동 관할 각화동이 되었다.
 - * 북구(北區)는 동구(東區) 관할 중흥 1·2동,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과 석곡출장소 관할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이때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 ⑮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에 의거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다.(전라남도에서 분리)

⑯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

⑰ 1995. 1. 1.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北區) 문화동 관할 각화동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각화(角化)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문화동조에 각화(角化) 마을이 있다.

① 각화리(角化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② 각화리(角化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각화리(角化里)>

위 각화(角化) 마을은 『호구총수』에는 기록이 없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조에 각화리(角化里)라 했고,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조에 각화리(角化里)라 했다.



국토정보맵(25k,1980년대) 각화(角化)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각화(角化)란 지명을 찾아보면 이곳 광주의 각화리(角化里) 이외에는 전남 담양의 각화치(角化峙)가 유일하다.

③ 각화치(角化峙)【고개】→ 각화재.<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 각화재[각화치] 【고개】 선동 북쪽에서 고서면 분향리로 가는 고개.<상동>

③의 각화치(角化峙)는 달리 ‘각화재’라 하는데 ③-㉠에서 ‘각화재’는 선동 북쪽에서 고서면 분향리로 가는 고개라 할 뿐 그 유래는 볼 수 없다.

그러면 ①의 각화(角化) 마을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조에서 각화동(角化洞)의 유래를 보면

④ 각화동(角化洞) [각화] 【동】 광주시-북구- 본래 광주군 두방면의 지역으로서, 삼각산 밑이 되므로 각화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오치면의 문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각화리라 해서 서방면에 편입되었다.

이라 하여 “삼각산 밑이 되므로 각화라 하였다” 했다. 이를 보면 각화동(角化洞)은 삼각산(三角山)의 아랫마을이기에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여긴다.



각화저수지 입구 각화청소년문화의집 공원

11. 문흥동(文興洞)

1) 연혁

- ① 대독산(大禿山), 소독산(小禿山).<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
- ② 송정리(松亭里), 문산리(文山里), 용주리(龍珠里) 각 일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신흥리(新興里) 일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④ 오치면(梧峙面)의 송정리(松亭里), 문산리(文山里), 용주리(龍珠里)의 각 일부와 서양면의 신흥리 일부와 두방면의 각화리 일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문흥리(文興里)>
- ⑤ 문흥동(文興洞)은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정리(松亭里), 문산리(文山里), 용주리(龍珠里)의 각 일부와 서양면(瑞陽面)의 신흥리(新興里) 일부와 두방면(斗坊面)의 각화리(角化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문산(文山)과 신흥(新興)의 이름을 따서 문흥리(文興里)라 하여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⑥ 1935. 10. 1. 조선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 문흥리(文興里)가 되었다.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와 극락면의 8개리(유촌, 덕흥, 치평, 쌍촌, 내방, 화정, 운암, 동림), 효지면 15리(진월, 노대, 덕남, 행암, 임암, 송하, 주월, 봉선, 용산, 소태, 월남, 내남, 선교, 용연, 운림)와

석곡면 5개리(망월, 화암, 청풍 장등, 운정)가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⑨ 1955. 7. 1. 광주시에 편입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4개출장소(풍향, 망월, 유림, 진월)를 두었는데 풍향출장소는 편입된 서방면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를 관할했다. 이때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문흥동이 되었다.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4개 출장소(석곡, 지산, 서창, 대촌)를 둘 때 본청직할 행정동인 문화동 관할(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문흥동이 되었다.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했다. 북부출장소는 효죽동(우산, 풍향, 중흥),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서산동(오치, 삼각, 매곡),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관할하였다(광주시사:1980).

* 광주시 북부출장소 문화동 관할 문흥동이 되었다,

⑫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를 둘 때 동구(東區)에 편제되어 문화동 관할 문흥동이 되었다.

* 중부출장소, 동부출장소,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됨에 북구(北區) 문화동 관할 문흥동이 되었다,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인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⑭ 1986. 11. 1. 1986. 5. 8.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

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 ⑮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
- ⑯ 1995. 1. 1.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동(文化洞) 관할 문흥동(文興洞)이 되었다.
- ⑰ 1995. 1. 1.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文興洞)이 되었다.
- ⑱ 1995. 3. 1. 문화동(文化洞)은 문화동(文化洞)과 문흥동(文興洞)으로 분동되었다.(문화동에 속한 문흥동은 문흥지구와 우산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문흥동 지역이다)
- ⑲ 1996. 1. 9. 문흥동이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문산(文山)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문흥동(文興洞)조에 문산(文山) 마을이 있다.

- ① 대독산(大禿山), 소독산(小禿山).<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와지리 >
- ② 문산리(文山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 >
- ③ 문산리(文山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문흥리 >

위 문산(文山) 마을은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조에 대독산(大禿山), 소독산(小禿山)이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조의 문산리(文山里)이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문흥리조의 문산리(文山里)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문흥동조를 보면

- ④ 문산(文山)[독산, 민매, 밀매]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흥동의 으뜸 마을
- ⑤ 민매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 밀매
- ⑥ 대문산(大文山)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산 동쪽 큰 마을.
- ⑦ 소문산(小文山)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산 서쪽 작은 마을.
- ⑧ 독산(禿山)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산.

④의 문산(文山) 마을은 고유어 지명이 ‘독산’ ‘민매’, ‘밀매’라 했고, “문흥동의 으뜸 마을”이라 했고, ⑤에서 ‘민매’는 달리 ‘밀매’라 했으며, ⑥의 대문산(大文山)은 “문산의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라 했고, ⑦의 소문산(小文山)은 “문산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했다. 그리고 ⑧에서 독산(禿山)은 이칭이 ‘문산’이라 했다. 이를 보면 ①의 『호구총수』의 대독산(大禿山), 소독산(小禿山)은 대문산(大文山) 마을, 소문산(小文山)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구한국한반도지형도』 문산(文山)

여기에서 대독산(大禿山), 소독산(小禿山)에서 대(大)와 소(小)를 제거하면 독산(禿山)이 되고 또 대문산(大文山), 소문산(小文山)에서 대(大)와 소(小)를 제거하면 문산(文山)이 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독산(禿山)이 문산(文山)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조선 중종 22년(1527) 최세진이 저술한 어린이 한자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禿’의 훈을 보면

* 秃 : 밀·독俗呼秃廝머·리민·놈.<예산본훈몽자회, 上15 앞> (참고 廝 : 하인시)

* 秃 : 밀·독俗呼秃廝머·리민·놈.<동경대본훈몽자회, 上29 뒤>

이라 하여 ‘秃’의 훈이 ‘밀독’이라 했다. 그리고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1965:1044)에서 ‘秃’의 훈을 보면

* 秃 : ㉠ 모지라질독(無髮), ㉡ 대머리독(秃頭), ㉢ 민등산독(秃山)

이라 했다.

이를 보면 독(秃)의 훈이 ‘밀’ 또는 ‘민등산’이었기에 『호구총수』의 대독산(大秃山), 소독산(小秃山)의 고유어 지명은 ‘秃’의 ‘밀’ 또는 ‘민등산’의 ‘민’과 ‘山’의 훈 ‘매’에 따라 ‘밀매’ 또는 ‘민매’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산(文山)은 ‘민등산’의 ‘민’에 산을 뜻하는 ‘매’를 붙여 ‘민매’라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문산, 신흥, 송정

불린 것을 다시 한자 지명으로 바꾸면서 ‘민’과 음이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더 좋은 ‘文’으로 표기하고, ‘매’는 ‘산’의 옛말이므로 ‘山’으로 표기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독산(大秃山), 소독산(小秃山)은 예전에 떨나무가 부족할 때 이 산의 나무를 많이 베어다가 밥을 지을 때나 난방에 사용했기 때문에 민등산이 되었기 때문에 불린 이름일 것이다.

▣ 송정(松亭)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문흥동조에 송정(松亭) 마을이 있다.

- ① 송정리(松亭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
- ② 송정리(松亭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문흥리>
- ③ 송정(松亭)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산 서쪽 마을.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위 송정(松亭) 마을은 1789년의 『호구총수』에는 기록이 없고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조에 송정리(松亭里)라 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문흥리조에 송정(松亭)리라 했다. ③의 『한국지명총람』에 송정(松亭) 마을은 “문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이라 했다.

『광주북구지리지』(1999:208)에 의하면 송정(松亭) 마을은 대주아파트 자리에 있던 여술(狐洞) 마을과 한국전쟁 때 피난와 정착한 정착촌(수용소)을 통틀어 소문산으로 부른다 했고, 송정(松亭) 마을은 옛 양규율씨 조모님(회동댁) 집 앞에 있었던 할아버지 당산인 커다란 소나무 때문에 불렸는데, 해방 후 큰 태풍에 쓰러져 없어졌다 했다.



국토정보맵(1970년대) 평교, 호동

- ④ 호동(狐洞)[여술]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문산 남동쪽 마을. 뒷산에 여우가 깃들었다 함.
- ⑤ 수용소(收容所)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호동 남쪽 마을.

필자가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마을마다 노거수가 많았다. 한여름 7, 8월경 오전에 벼논의 김매기를 마친 후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농부들은 마을 주변의 노거수 그늘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했다. 이런 까닭으로 송정(松亭)은 마을에 자라는 큰 소나무가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정자 역할을 닮았기에 마을 이름을 소나무 정자에 연유해 송정(松亭)으로 불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 평교(平橋)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문흥동조에 평교(平橋) 마을이 있다.

- ① 평교(平橋)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문산 동쪽 마을. 평상교 다리 근처가 됨.
- ② 평상교(平床橋) 【다리】 광주시-북구-문흥동→문산교.

위 평교(平橋) 마을은 ①의 평교(平橋) 마을로 “문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며, 평상교 다리 근처가 됨”이라 했으며, ②에서 평상교(平床橋)는 달리 문산교라 했다.

국토정보맵(1960년대)을 보면 평교(平橋) 마을은 호남고속도로의 북쪽 문산 마을 남쪽에 표기되어 있고 호동(狐洞) 마을은 호남고속도로 남쪽 지금의 평교(平橋) 마을 위치에 잘못 표기되었다가 국토정보맵(1980년대)에서 호남고속도로의 남쪽에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호동(狐洞) 마을은 지금의 호남고속도로의 문흥동 반대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동쪽의 우치로와 면양로가 합류하는 지점의 안쪽 마을이다.

이곳 주민 오인영(83세)님에 의하면 평교(平橋) 마을은 대문산 소문산 마을과 구분되는 곳으로 남해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대문산과 송정의 진입로 인근 마을로 당산나무와 돌(돌)영감이라 불리는 입석이 서 있었다 하며, 입석은 택지개발 때 유실되고 당산나무는 문흥동천주교회 옆에서 말라 죽었다 했다.

평교(平橋)는 달리 평상교(平床橋)로도 불린다. 평상교(平床橋)는 한자의 자의(字義)에 따라 해석하면 ‘평상처럼 평평한 다리’라는 의미다. 다리는 넷물 위에 놓인다. 국토정보맵(1970년대)을 보면 평교(平橋)라고 표기되어 있고 마을 남쪽 하천변에는 제방이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정보맵(1980년대) 평교, 호동

로 말하면 예전에는 신광중학교 주변 흙플러스에서 문흥지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아래에 평교(平橋) 마을이 있었고 이곳에는 넷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 고가도로가 놓였다. 교량(橋梁)은 보통 상판이 편편하다. 평교(平橋)는 옛날 널다리처럼 평평한 다리가 있었기에 불린 지명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편편하다1(便便-)”의 풀이를 보면 “배가 부르지 않고 번듯하다.”라 했다. 이를 보면 평교(平橋)는 사전에 올림말은 볼 수 없지만 ‘편편하다’라는 의미로 볼 때 넷물 위에 놓인 편편하게 놓인 옛다리를 소재로 불린 지명일 것으로 여겨진다.

▣ 호동(狐洞)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문흥동조에 호동(狐洞) 마을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은 지금은 용봉동에 속한다.

- ① 호동(狐洞) [여술]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문산 남동쪽 마을. 뒷산에 여우가 깃들었다 함.
- ② 여술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 호동.

위 호동(狐洞) 마을은 “문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여우가 깃들었다 함.”이라 했고, 이칭이 ‘여술’이라 했다. 따라서 호동(狐洞)은 마을 뒷산에 여우굴이 있어 여우가 출몰했기에 고유어 ‘여우+굴’의 방언 ‘여시+굴’의 ‘여시+울→여술’이 호동(狐洞)으로 음차 표기된 지명일 것이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을 보면 문산(文山) 마을 옆의 평교(平橋) 마을은 위치가 잘못되었다. 문산(文山) 마을에서 호남고속도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호동(狐洞)으로 표기된 것도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후 국토정보맵(1980년대)에는 문산(文山) 남쪽 호남고속도로 건너편에 평교(平橋) 마을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그리고 호동(狐洞) 마을도 문산 마을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건너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옆으로 지나는 도로 건너편에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 지도는 오류가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지도에서는 오류를 많이 고쳐 놓고 있다. 실제 호동(狐洞)은 북구청에서 오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우회 전하면 문흥초등학교가 나오는데 문흥초교 앞으로 놓인 도로 남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이렇게 1960년대와 1970년대 지도가 바르지 못한 것은 당시에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도 제작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짐에 따라 지도제작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결과일 것이다.

▣ 신흥(新興)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문흥동조에 신흥(新興) 마을이 있다.

- ① 신흥리(新興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신흥리(新興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문흥리(文興里)>

위 신흥(新興) 마을은 1789년의 『호구총수』에는 기록이 없고 1896년 행정 구역 개편 자

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조에 신흥리(新興里)라 했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문흥리조에 신흥리(新興里)라 했다.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을 보면 신흥리(新興里)는 문산(文山)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다. 현행 카카오지도([https://map.kakao.com/2024. 4. 15.](https://map.kakao.com/2024.4.15))에서 신흥(新興) 마을을 검색하면 용주초등학교와 호남고속도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 신흥(新興) 마을이 1789년의 『호구총수』에 기록이 없고 1896년 자료에 기록된 마을이다. 이로 보아 1900년대 초에 새로 일어난(형성된) 마을이라는 ‘新’과 ‘興’을 합해 불린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 수용소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문흥동조에 수용소(收容所) 마을이 있다.

① 수용소(收容所) 【마을】 광주시-북구-문흥동-호동 남쪽에 있는 마을.

위 수용소(收容所) 마을은 일명 정착촌으로 1950년 한국전쟁 때 포로병으로 잡혀있던 포로 중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을 택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마을로 전해온다.

12. 두암동(斗巖洞)

1) 연혁

- ① 두암리(斗巖里), 월동리(月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 ② 두방면(斗坊面)의 두암리(斗巖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두암리(斗巖里)>
- ③ 두암동(斗岩洞) [말바우, 두암] 【동】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의 지역으로서, 말바우가 있으므로 말바우 또는 두암리(斗巖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월동리(月洞里), 각화리(角化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두암리(斗巖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문화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④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이때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 두암리(斗巖里)가 되었다.
- ⑤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⑥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⑦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와 극락면의 8개리(유촌, 덕흥, 치평, 쌍촌, 내방, 화정, 운암, 동림), 효지면 15리(진월, 노대, 덕남, 행암, 임암, 송하, 주월, 봉선, 용산, 소태, 월남, 내남, 선교, 용연, 운림)와 석곡면 5개리(망월, 화암, 청풍, 장등, 운정)가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 ⑧ 1955. 7. 1. 광주시에 편입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4개출장소(풍향, 망월, 유림, 진월)를 두었는데 풍향출장소는 편입된 서방면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를 관할했다.

⑨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4개 출장소 즉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 서창출장소, 대촌출장소를 둘 때 본청직할 행정동인 문화동 관할(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두암동(斗巖洞)이 되었다.

⑩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했다. 북부출장소는 효죽동(우산, 풍향, 중흥),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서산동(오치, 삼각, 매곡),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관할하였다(광주시사:1980).

⑪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는 따라 동구(東區) 문화동(文化洞) 관할 두암동(斗巖里)이 되었다

* 중부출장소, 동부출장소,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⑫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신설됨에 따라 북구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관할 두암동(斗巖里)이 되었다.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⑬ 1985. 11. 1. 문화동은 문화동과 두암동으로 분동되었다.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⑮ 1989. 5. 15. 두암동은 두암1동과 두암2동으로 분동되었다.

⑯ 1995. 1. 1.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⑰ 1995. 3. 1. 두암1동이 두암1동과 두암3동으로 분동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두암(斗巖)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북구 두암동조에 두암(斗巖) 마을이 있다.

- ① 두암리(斗巖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
- ② 두방면(斗坊面)의 두암리(斗巖里), 월동리(月洞里), 각화리(角化里) 각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두암리(斗巖里)>
- ③ 두암동(斗岩洞)[말바우, 두암] 【동】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의 지역으로서, 말바우가 있으므로 말바우 또는 두암리(斗巖里)라 하였는데.<『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 ④ 두암(斗岩)[말바우] 【마을】 → 두암동.<『한국지명총람』 광주시-북구-두암동>
- ⑤ 말바우 【바위】 두암 서쪽 길가 큰바위. 길을 넓히느라고 깨어지고 일부만 남았음.<상동>

두암(斗巖)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 구역명칭일람』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조의 두암리(斗巖里) 마을이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두암리(斗巖里)조에 두암리(斗巖里), 월동리(月洞里), 각화리(角化里) 일부 지역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두암동(斗岩洞)조를 보면 본래 광주군 두방면(斗坊面)의 지역으



국토정보맵(50k, 1910) 두암리

로서, 말바우가 있으므로 말바우 또는 두암리(斗巖里)라 하였고, 고유어 지명은 ‘말바우’라 하는데 “두암 서쪽 길가 큰 바위로 길을 넓히느라고 깨어지고 일부만 남았음.”이라 했다.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에서 두암(斗巖) 마을의 위치를 살펴보면 각화중학교에서 문화

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군왕로와 맞닿은 문화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지역으로 원두암(元斗巖)이다.

광주 시내에서 ‘말바우’로 널리 알려진 곳은 소위 말바우사거리와 말바우시장이다. 말바우사거리는 동강대학에서 두암초등학교 방향에서 북구청으로 통하는 서방로와 서방사거리 방향에서 담양으로 이어지는 동문대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말바우시장은 말바우사거리에서 담양으로 통하는 도로와 북구청으로 통하는 도로의 안쪽 지역에서 열리는 시장이다.

이곳에 ‘말바우사거리’, ‘말바우시장’의 ‘말바우’가 불리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바우시장’안에 마암(馬巖)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우산동(牛山洞)조를 보면 마암(馬巖)이 있다.



국토정보맵(25k, 1960) 문화초교 앞 두암(斗巖) 마을

⑥ 마암(馬岩) 【바위】 광주시-북구-우산동- → 말바우.

⑦ 말바우 [마암] 【바위】 광주시-북구-우산동- 우산 동쪽에 있는 바위.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서 쉬었다 함.

⑥의 마암(馬巖)은 고유어 지명이 ‘말바우’인데 “우산 동쪽에 있는 바위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여기에서 쉬었다 함”이라 했다.

그러면 마암(馬巖)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마암(馬巖)을 살펴보면

⑧ 마암(馬岩) 【마을】 경기도-안성군-일죽면-신흥리- → 말바위.

- ⑨ 마암(馬岩)2 【바위】 광주시-광산구-양동- → 몰바우.
- ⑩ 마암1(馬岩) 【마을】 경북-울릉군-서면-태하리- → 말방우1.
- ⑪ 마암(馬岩) [마지라오] 【마을】 강원도-영월군-서면-광전리- 마을 앞에 있는 바위가 말처럼 생겼다 함.
- ⑫ 마암(馬岩)[석마] 【바위】 경남-고성군-마암면-석마리- 석마 앞에 있는 2개의 바위. 말처럼 생겼음. 이 바위의 이름을 따서 면의 이름이 됨.
- ㉠ 석마1(石馬) 【마을, 바위】 → 석마리.<상동>

⑦-⑩에서 마암(馬岩)은 고유어 지명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말바위’ 또는 ‘말바우’라 불리고, 경상도에서는 ‘말방우’라 불리고 있으며, 특히 ⑪-⑫의 강원도에서 ‘마지라우’로 불린다 했으나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⑫에서 마암(馬岩)은 바위가 말처럼 생겼다 했다. 이로 볼 때 바위의 형상이 ‘말’(斗)이 아닌 ‘말’(馬)처럼 생겼다는 것은 그 형상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지명총람』에 수록된 전국에서 불리는 두암(斗岩)의 유래는 어떠할까?

- ⑬ 두암(斗岩)[말암] 【마을】 경북-영주군-이산면-신암리- 말바위가 있음.
- ⑭ 두암(斗岩) 【바위】 광주시-광산구-동산동- 두암골에 있는 바위. 곡식을 되던 말처럼 네모남.
- ⑮ 두암(斗岩) 【마을】 충남-예산군-봉산면-효교리-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 ⑯ 말바우 【바위】 전남-함평군-대동면-연암리- 옛날 말처럼 네모지게 생겼음.
- ⑰ 말바우 【바위】 광주시-광산구-덕림동- 곡식을 되는 옛날 말처럼 네모지게 생겼음.

⑬에서 두암(斗岩)은 고유어 지명이 ‘말바우’라 했다. 그리고 ⑭에서 두암(斗岩)은 구체적으로 “곡식을 되던 말처럼 네모남.”이라 했는데, ⑮의 두암(斗岩)은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이라 했으니 ‘말’(斗)처럼 생긴 바위로 추정되나 ‘斗’를 뜻하는지 ‘馬’를 뜻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반면 고유어 지명 ⑯-⑰의 ‘말바우’는 “옛날 말처럼 네모지게 생겼음”이라 하여 ‘말바우’의

모양이 곡식을 썬하는 말(斗)처럼 네모지게 생겼기에 불린다 했다.

옛 문헌의 마암(馬巖)은 어떠할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여주목(驪州牧)조에 기록된 마암(馬巖)을 보면

⑱ 마암(馬巖) 주 동쪽 1리에 있다. 속담에 전하기를, “황마(黃馬)와 여마(驪馬)가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을 이름하여 황려라 하였다.” 한다. 바위가 마암으로 이름을 얻음도 이 때문이라 한다.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웅건하고 기특한 쌍마(雙馬)가 물가에서 나오매, 현 이름을 이로부터 황려라 하였네. 시인은 옛것을 좋아하여 번거로이 증거를 캐물으나, 오가는 고기잡이 늙은이야 어찌 알리.” 하였다.<고적>

⑲ 한수마암(捍水馬巖) 이색(李穡)의 시에, “물을 막는 공은 마암석(馬巖石)이 높고, 하늘에 뜬 형세는 용문산(龍門山)이 크구나.” 하였다.<형승>

⑳ 최숙정의 시에 “마암석(馬巖石)이 서려 또한 기괴하구나. 강 흐름은 그 뿌리를 씹는 데도, 만고에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네. 노한 물결은 바야흐로 울렁거리다가, 여기서 나뉘어 수세(水勢) 점점 쇠하네. 외로운 성이 이 바위에 힘입어서 완전하니, 공을 논할진대 빛을 갓기 어렵네. 남은 하나의 무지한 돌에, 나는 홀로 그 견고하여 굽히지 않음을 취하네.” 하였다.<제영>

이라 하였으니 ⑱의 고적(古蹟)조에서 마암(馬巖)은 주 동쪽 1리에 있는데 속담에 황마(黃馬)와 여마(驪馬)가 물에서 나왔기에 군명(郡名)을 황려(黃驪)로 불렀고, 바위 이름도 마암(馬巖)이라 했으며, 이규보(李奎報)는 시를 지어 마암(馬巖)으로 불린 연유를 찾으려 했으나 이곳 어민들을 대상으로는 연유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⑲의 형승(形勝)조에서 이곳의 바위를 한수마암(捍水馬巖)이라 하는데 이색(李穡)은 마암석(馬巖石)은 강물 속에 있어 홍수로 인해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릴 때 수세를 줄여 수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노래했고, ⑳ 제영(題詠)조에서 최숙정도 이곳의 마암석(馬巖石)이 물속에 있어 사나운 물결의 수세(水勢)를 갈라 물살의 세기를 쇠하게 한다고 노래했다.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고적조에 “석서정(石犀亭)은 현의 남쪽

2리에 있다.” 했고, 이색(李穡)의 기(記)가 있는데 그는 광주목사가 무등산에서 흘러내리는 광주천 상류의 물살이 너무 사나워서 목민의 피해가 심하여 냇물 속에 큰 돌을 넣어 물살을 약하게 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냇물 속에 물소모양의 돌을 넣고 그 주위를 섬으로 만들어 물길을 둘로 갈라 수세를 누그러뜨려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냇물 속의 섬에 정자를 짓고 정자의 이름을 석서정(石犀亭)으로 지었다 했다.

이를 보면 여주(驪州)의 마암석(馬巖石)이나 광주의 석서(石犀)는 모두 말(馬)이나 물소(犀)를 닮은 돌에 연유해서 붙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목민관의 일 중 치수(治水)가 대단히 중요했었기에 사나운 물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냇물 속에 큰 돌을 놓아 물길을 나누어 그 세를 잠재운 데서 돌의 모양에 따라 마암석(馬巖石), 석서(石犀)로 부른 듯하다.

또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제26권 경상도 밀양도호부 산천조에

②4 마암(馬巖)은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바위가 응천으로 쭉 들어가서[斗入] 모양이 물을 마시는 말과 같은 까닭에 이름 지었으며, 그 아래에 깊은 못이 있다.(馬巖 在府西五里,有巖斗入凝川形如飲馬故名其下有深淵)

이라 하였다. 원문에 암두(巖斗)라 했으나 본래 두암(斗巖)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바위가 물 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말이 물을 마시는 모양이라서 마암(馬巖)으로 이름 지었다는 유래는 도무지 아해가 되지 않는다. 바위가 말(斗)처럼 생겼다는 것은 바위의 형상이 네모기둥이기에 붙였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바위의 모양이 물 마시는 말(馬)처럼 생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본래 말바위(斗巖)로 불려오던 것을 후에 식자들이 물줄기 속의 바위가 있어 세차게 흐르는 수세(水勢)를 나누거나 누그러뜨림에 이를 마암(馬巖)으로 바꾸어 부르지 않았을까 한다. 그 까닭은 앞에 소개한 여주목(驪州牧)의 마암석(馬巖石)이나 광주(光州)의 석서정(石犀亭) 등에서 큰 돌을 이용해서 사나워진 물의 형세를 눌렀다는 고사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경상도 경산현(慶山縣) 산천조에 “마암산(馬巖山) 현의 남쪽 21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라 했고, 함경도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봉수조에 “마암 봉수(馬巖烽燧)는 본부 동쪽 91리에 있다. 서쪽으로는 압용관과 응하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흡곡현(歙谷縣)의 치공산(致空山)과 응한다.” 했고, 평안도 정주목(定州牧) 봉수조에 “마암(馬巖)은 서쪽으로 40리에 있다.”라 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 경상도 고성현(固城縣) 방면조에 “마암(馬巖) 동북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40리이다.”라 했다. 그러나 이들 마암(馬巖)의 모습을 알기 어렵다.

반면 두암(斗巖)은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볼 수 없고, 유일하게 『대동지지(大東地志)』 황해도 황주목(黃州牧) 방면조에 “두암(斗巖)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30리이다.”를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예전에는 말이 전쟁이나 이동할 때 좋은 수단이 되었기에 이를 물길 속에 놓인 바위도 말처럼 생겼다는 발상이 많아 마암(馬巖)으로 불린 지명이 많았을 것인데 여기에서 발상이 전환되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한 고인돌 등 모양이 사각형이거나 또는 조금 큰 바위를 보면 이것을 도량형기(度量衡器)의 하나인 말(斗)로 인식하여 두암(斗巖)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말’은 동물 중에서 ‘크다’(大)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말’은 예전에 ‘크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을 보면

* 말[앞] 일부 동식물의 이름 앞에 붙어서 ‘큰’의 뜻을 나타냄. 예) ~매미, ~박, ~벌.

이라 하여 ‘말’이라는 접두사가 몇 개의 단어의 앞에 붙어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즉 ‘말매미’는 ‘큰매미’, ‘말벌’은 ‘큰벌’, ‘말나리’를 ‘큰 나리’, ‘말거머리’를 ‘큰 거머리’를 뜻한다. 이렇듯이 ‘말바우’는 ‘큰 바위’라는 의미에서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13. 삼각동(三角洞)

1) 연혁

- ① 삼각(三角), 외촌(外村), 가작촌(佳作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와지리(蛙只里)>
- ② 삼각리(三角里), 월산리(月山里), 외촌리(外村里), 가작리(佳作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오치면(梧峙面)의 삼각리(三角里), 월산리(月山里), 외촌리(外村里), 가작리(佳作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삼각리(三角里)>
- ④ 삼각동(三角洞)【동】 본래 광주군 오치면의 지역으로서, 삼각산(광주-) 밑이 되므로 삼각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월산리, 외촌리, 가작리를 병합하여 삼각리(三角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어 서산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었고,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이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 삼각리(三角里)가 되었다.
- ⑥ 1945. 8. 15.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⑧ 1952. 36개 동회제(洞會制)를 폐지하고 28개 운영동으로 개편하였다.
- ⑨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가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면서 풍향출장소는 옛 서방면 지역인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39개동)과 석곡출장소(충효·청옥·장운),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서창출장소(서호, 방하, 신호), 대촌출장소(송석, 등룡, 학승) 등 4개출장소제를 실시할 때 본청직할 서산동회(瑞山洞會)를 두고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梧峙洞), 매곡동(梅谷洞)을 관할했다.(광주시사:1980)
-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했다. 이때 북부출장소는 행정동을 서산동(瑞山洞)을 두고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梧峙洞), 매곡동(梅谷洞)을 관할했다.(광주시사:1980).
- ⑫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에 따라 동구(東區) 서산동(瑞山洞) 관할 삼각동(三角洞)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설치됨에 북구(北區) 서산동(瑞山洞) 관할 삼각동(三角洞)이 되었다.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인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석곡출장소 관할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이때 광주직할시 북구 서산동(瑞山洞) 관할 삼각동이 되었다.
- ⑮ 1991. 4. 15.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
-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⑰ 2003. 7. 7. 서산동(瑞山洞)이 분동되어 일부는 삼각동(三角洞)으로 일부는 일곡동(日

谷洞)이 되었다.(서산동은 없어짐)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삼각산(三角山), 월각산(月角山)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삼각동(三角洞)조에 삼각산(三角山), 삼각(三角) 마을이 있다.

- ① 삼각산(三角山).<『여지도서』>(1757~1765년)
- ② 삼각산(三角山).<『광주읍지』(1871년간)>
- ③ 삼각산(三角山).<『대동지지』(1895)>
- ④ 삼각산(三角山).<『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1/5만)>
- ⑤ 삼각산(三角山).<『근세한국5만분의1지형도』(1910년대)>
- ⑥ 삼각산(三角山)[월각산] 【산】 광주시 삼각동, 오치동, 문흥동, 장동에 걸쳐 있는 산. 274m
봉우리가 삼각형으로 되었음. 문흥동의 민매(밀매) 위쪽이 됨.<광주시-북구-삼각동>
- ⑦ 월각산(月角山).<국토정보맵(1960-2011년대)>



국토정보맵(1960년대) 월각산, 원삼각, 월산



국토정보맵(1910년대) 삼각산, 월산리, 삼각리

삼각산(三角山)은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광산현조에서는 기록이 없으나, 1757~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1871년간에 편찬된 『광주읍지』, 1896-1899년에 편찬된 『대동지지』, 1895년 『구한말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5만분의1지형도』(1910년대)에는 삼각산(三角山)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60-2011년대)에 월각산(月角山)



카카오맵(2024) 월각선, 삼각산

으로 바뀌었고, 국토정보맵(2013년)에는 삼각산(三角山)으로 다시 국토정보맵(2015년)에는 월각산(月角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행 카카오맵(<https://map.kakao.com/2022>)에서 삼각산 정상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276m)는 월각산으로 표기하고 그 옆 약간 낮은 봉우리(250m)는 삼각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각산(三角山)은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리는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⑨ 삼각산(三角山) [북한산, 부아악] 【산】 서울시-산천-서울의 진산,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의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어서, 삼각산터라 하며, 석가봉, 보현봉, 문수봉들이 동남으로 둘러있고, 서북으로는 동학이 깊고 넓어서 천연의 요새로 되었음.
- ⑩ 삼각산(三角山) 【산】 경기도-평택시-산천- 비전리와 동삭리에 걸쳐 있는 산. 봉우리가 셋으로 되었음. 현충탑이 있어서 유명함.
- ⑪ 삼각산(三角山) 【산】 경상북도-영천군-금호면-삼호리- 가라골 동쪽에 있는 산. 높이 115m. 세 봉우리로 되었음.
- ⑫ 삼각산(三角山) 【산】 전라남도-영광군-산천- 군남면 대덕리, 도장리, 백양리와 불갑면 생곡리, 부춘리, 응봉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351m. 봉우리가 셋으로 되었음.

⑬ 삼각산【산】 서울시-구로구-항동- 봉우리 셋이 나란히 솟은 산.

⑨의 삼각산(三角山)은 서울의 진산으로 이칭이 북한산, 부아악으로 불리는 산으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서 삼각산으로 불린다 했고, ⑩-⑬의 삼각산(三角山)도 모두 세 봉우리가 있었기에 불렸다 했다.

그러나 아래 ⑭-⑰의 삼각산(三角山)은 그 유래가 약간 다르다.

⑭ 삼각산(三角山) 【산】 전남-보성군-산천- 검백면 사곡리와 수남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00m. 봉우리의 모양이 세모꼴로 되었음.

⑮ 삼각산(三角山) 【산】 경남-양산군-웅상면-평산리- 봉우리가 삼각이 졌음.

⑯ 삼각골 【골】 제주-남제주군-대정읍-무릉출장소-신도리- 지형이 삼각형으로 되었음.

⑰ 삼각산(三角山) 【산】 경북-의성군-금성면-대리리- 지형이 삼각으로 되었음.

즉 ⑭의 삼각산(三角山)은 봉우리의 모양이 세모꼴이기에 불렸다 했고, ⑮의 삼각산(三角山)은 봉우리가 삼각이 졌다 했고, ⑯-⑰의 삼각산(三角山)은 지형이 삼각형(三角形)으로 되었다 했다. 따라서 이들은 봉우리의 모양이 삼각형이기에 유래한 지명인 듯하다.

그리고 또 아래 ⑱-⑳의 삼각산(三角山)은 또 다른 연유로 불리고 있다.

⑱ 삼각산(三角山) 【산】 전북-고창군-공음면-덕암리- 높이 32m. 측량 표준기가 서 있었음.

⑲ 삼각지 【산】 강원-영월군-하동면-대야리- 세부 측량 때 표준기를 세웠었음.

⑳ 삼각지 【산】 전남-광양군-진상면-어치리- 꼭대기에 측량 기점을 잡은 표시로 삼각형의 돌을 박아 두었음. 높이 859m.

⑱-⑲의 삼각산(三角山)은 측량하기 위해 정상에 표준기를 세웠다 했고, ⑳의 삼각지는 산

꼭대기에 측량 기점을 잡은 표시로 삼각형의 돌을 박아 두었던 곳이라 했다.

이를 보면 이곳 광주의 삼각산(三角山)은 『여지도서』, 『대동지지』, 『구한말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5만분의1지형도』(1910년대)의 옛지도에 삼각산(三角山)으로 표기되었다가 국토정보맵(1960-2011년대)의 지도에서 월각산(月角山)으로 바뀌었지만 본래 이름은 삼각산(三角山)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행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2024. 5. 14](https://map.ngii.go.kr/2024.5.14))를 살펴보면 삼각산 정상은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동편에 하나의 봉우리가 있기에 세 봉우리에 연유해서 붙인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삼각산(三角山)은 어찌하여 월각산(月角山)으로 바뀌었을까? 국토정보맵(1910년대)을 보면 삼각산(三角山) 바로 아래 동쪽 마을을 월산리(月山里)라 하였고 그 남쪽에 삼각(三角) 마을과 가작(佳作)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정보맵(25k, 1960-2011년대)을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를 월각산(月角山)이라 했고 국토정보맵(1910년대)에 월산리(月山里)로 표기된 마을을 원삼각(元三角) 마을이라 했고, 그 서쪽 가장 낮은 골짜기 마을을 월산(月山) 마을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을 보면 원삼각(元三角) 마을은 월산(月山) 마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하여 상월산(上月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월산(月山)과 상월산(上月山) 마을로 인하여 삼각산(三角山)이 월각산(月角山)으로 인식되어 삼각산(三角山)과 월각산(月角山)으로 적혀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하지만 이곳의 삼각산(三角山)은 가장 높은 276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3개의 250m의 봉우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 삼각(三角)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삼각동(三角洞)조에 삼각(三角) 마을이 있다.

- ① 삼각(三角).<『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

위 삼각(三角) 마을은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조의 삼각리(三角里) 지역이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조의 삼각리(三角里) 지역이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삼각리(三角里)조의 삼각(三角)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삼각동조를 보면 삼각(三角) 마을과 원삼각(元三角) 마을을 볼 수 있는데 원삼각(元三角) 마을은 삼각동의 원래 마을로 월산(月山) 마을의 위쪽이므로 상월산으로도 불린다 했다.

- ② 원삼각(元三角) 【마을】 삼각동의 원 마을. 지금 지도의 상월산 마을임 월산 마을의 윗마을이라 하여 불린 듯함.<광주시-북구-삼각동>
- ③ 삼각산(三角山)[월각산] 【산】 광주시 삼각동, 오치동, 문흥동, 장동에 걸쳐 있는 산. 274m 봉우리가 삼각형으로 되었음. 문흥동의 민매(밀매) 위쪽이 됨.<상동>

이곳에는 ③의 삼각산(三角山)이 있다. 삼각산(三角山)은 삼각동, 오치동, 장동, 문흥동에 걸쳐 있는 높이 274m의 산이며 봉우리가 삼각형으로 되었으며 문흥동의 민매(밀매) 위쪽이라 했다. 국토정보맵(1910년대)(1/5만)를 보면 삼각산(三角山)의 남서쪽 자락에는 삼각(三角) 마을과 가작(佳作) 마을이 표기되어 있고 월산(月山), 상월산(上月山), 외촌(外村) 마을은 볼 수 없다, 이를 보면 삼각(三角) 마을은 삼각산(三角山)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14. 매곡동(梅谷洞)

1) 연혁

- ① 어매동(於每洞), 중외동(中外洞).<『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와지리(蛙只里))>
- ② 어매리(於每里), 중외리(中外里), 백련리(白蓮里), 한천리(寒泉里), 봉곡리(鳳谷里) 각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오치면(梧峙面)의 어매리(於每里), 중외리(中外里), 백련리(白蓮里), 한천리(寒泉里), 봉곡리(鳳谷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매곡리(梅谷里)>
- ④ 매곡동(梅谷洞) 【동】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어매리(於每里), 중외리(中外里), 백련리(白蓮里), 한천리(寒泉里), 봉곡리(鳳谷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어매(於每)와 봉곡(鳳谷)의 이름을 따서 매곡리(梅谷里)라 하여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서산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광산군 서방면 매곡리)
- ⑥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를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풍향출장소는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

- 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매곡동이 됨)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39개동)과 4개 출장소(석곡, 지산, 서창, 대촌)를 둘 때 본청직할 행정동인 서산동(瑞山洞)은 법정동인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梧峙洞), 매곡동(梅谷洞)을 관할했다.
- ⑪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할 때 북부출장소는 행정동으로 효죽동(우산, 풍향, 중흥),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서산동(오치, 삼각, 매곡)을 두었는데, 서산동(瑞山洞)은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梧峙洞), 매곡동(梅谷洞)을 관할했다.
- ⑫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를 두었는데 이때 동구 서산동(瑞山洞) 관할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梧峙洞), 매곡동(梅谷洞)이 되었다.
-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설치됨에 서산동 관할 매곡동(梅谷洞)이 되었다.
-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인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광주시 북구
-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광주직할시 서산동(瑞山洞) 관할 매곡동(梅谷洞)이 되었다.
- ⑮ 1991. 4. 15.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
-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산동 관할 매곡동이 되었다.

⑰ 1997. 3. 1. 북구 서산동(瑞山洞)은 서산동과 매곡동으로 분동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梅谷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어매(於每)

『한국지명총람』 광주시-북구-매곡동조에 어매(於每) 마을이 있다.

- ① 어매동(於每洞).<『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와지리(蝸)>
- ② 어매리(於每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
- ③ 어매리(於每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매곡리>
- ④ 어매 (於每) 【마을】 매곡동 으뜸 마을.<『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

매곡동(梅谷洞)은 어매(於每)와 봉곡(鳳谷)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 위 어매(於每)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와지리조의 어매동(於每洞) 지역이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조의 어매리(於每里) 지역이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매곡리조의 어매리(於每里) 지역이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어매(於每) 마을이다. 지금의 광주공업고등학교와 고려중학교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다.

어매(於每)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어매(於每)를 살펴보면

- ⑤ 어매(魚梅) 【마을】 → 어매실.<경기-용인군-포곡면-금어리>
- ⑥ 어매실 [어매] 【마을】 금어리 으뜸 마을.<상동>

⑤의 어매(魚梅)는 달리 ‘어매실’이라 했고, ⑥에서 ‘어매실’은 금어리 으뜸 마을이라 하여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현행 국토정보맵에서 이곳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경안천에 금어천이 합수하는 곳이다.



국토정보맵(25k, 1910년대) 매곡리(梅谷里)

어매(魚梅)의 유래를 살피기 위해서는 어매(魚梅)와 음상이 비슷한 『삼국사기』 옛 지명인 어을매(於乙買)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을매(於乙買)는 경기도 교하(交河)의 옛지명이다. 어을매(於乙買)의 ‘於乙’은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의 지명어로 ‘합하다’라는 의미의 옛말 ‘알’의 음차자이고, ‘買’는 물(水)의 옛말 ‘매’의 음차자이다. 이를 보면 이곳의 어매(魚梅)도 마치 두 물이 합수(合水)하는 곳에 ‘합수’를 뜻하는 옛말 ‘얼매’의 ‘알’이 한자가 없어 표기하기 어려우므로 어매(魚梅)로 음차 표기하지 않았을까 의심한다.

또한 『삼국사기』(지리3)에 “어모현(禦侮縣)은 본래 금물현(今勿縣) 일명 음달(陰達)이다.”라 했다. 여기에서 어모현(禦侮縣)은 본래 금물현(今勿縣)이라 했으니 ‘侮’는 물(水)의 옛말 ‘매’의 음차자였을 것이므로 ‘매’와 뜻이 같은 ‘물’(水)은 ‘勿’과 대응표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경북 금릉군)에서는 ‘어매천’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아래와 같이 ‘어매천’과 관련된 다양한 지명들이 공존한다.

- ⑦ 어매천 【내】 → 아천(牙川).<경북-금릉군-산천>
- ⑧ 아천(牙川) 【마을】 → 마랏들.<경북-금릉군-어모면-중왕동>
- ⑨ 마랏들 [마평, 아천] 【마을】 중왕동 서쪽에 있는 마을. ① 앞에 마위전(馬位田)이 있었음.
- ② 아천면(牙川面)이 있었음.<상동>

- ⑩ 마평(馬坪) 【마을】 → 마랏들.<상동>
- ⑪ 아산골 【마을】 → 보악골.<상동>
- ⑫ 아산장터(牙山場一) 【터】 보악골에 있는 옛 아산장의 터.<상동>
- ⑬ 보악골[어모, 아산골, 중중리] 【마을】 중왕등 중앙에 있는 마을. 어모현(禦侮縣)의 소재지였다 함.<상동>
- ⑭ 어모(禦侮) 【마을】 → 보악골.<상동>
- ⑮ 어모들 【들】 어모 남쪽에 있는 들.<상동>
- ⑯ 아천역(牙川驛) 【역】 아천 동북쪽에 있는 기차 정거장.<상동>
- ⑰ 아천(牙川) [엄내, 어매천] 【내】 어모면 능치동 북쪽 국수봉(경상북도 산천)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흘러 어모면의 중심부를 뚫고 중왕동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여 본리천을 합한 후 개령면 황계동에서 감천으로 흘러 들어감.<경북-금릉군-산천>
- ⑱ 어매교(禦梅橋) 【다리】 오칭 동쪽에 있는 다리.<경북-금릉군-어모면-다남동>

⑦에서 ‘어매천’은 달리 아천(牙川)이라 했고, ⑧에서 아천(牙川)은 달리 ‘마랏들’이라 했으며, ⑨에서 ‘마랏들’은 한자로 ⑩의 마평(馬坪) 또는 마위전(馬位田)이라 했다. 또 이곳에는 아천(牙川)의 ‘牙’에 ‘山’을 붙인 ⑪의 아산골(牙山-)이 불리며, ⑫의 아산장터는 이칭이 보악골이라 했고, ⑬에서 보악골은 달리 ‘어모’라 하여 예전에 어모현(禦侮縣)이 있었던 곳이라 했다. 이를 보면 ⑭의 어모(禦侮) 마을은 ⑦의 ‘어매천’의 ‘어매’가 ‘어모’로 들려 한자로 어모(禦侮)로 표기되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어모(禦侮)는 ‘엄’으로 축약되어 ‘어금니’를 뜻하는 ‘牙’를 빌려 아천(牙川)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곳에는 ‘어모들’과 ‘아천역’이 불렸고, 아천(牙川)은 이칭이 ‘엄내’, ‘어매천’이며, 어매교(禦梅橋)는 어모면 다남동 교량이므로 따라서 어매(禦梅)는 앞에서 소개한 삼국시대의 어매현(禦梅縣)의 승계 지명으로 두물의 합류에 연유한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어매’란 지명은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①9 어매도 【마을】 → 능산리.<전남-신안군-하의면-능산리>

②0 어멧고랑 【골】 장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전남-신안군-지도면-광정리>

②1 능산리 [늘메섬, 늘메, 능메, 능산, 능메섬, 어매도] 【리】 본래 지도군 하의면의 지역으로서, 섬이 능선으로 되었으므로 늘메섬, 늘메, 능메 또는 능메섬, 능산, 어매도라 하였는데,<전남-신안군-하의면>

②2 어은리(於隱里) [언굴, 언동, 어은, 어은동, 어음리] 【리】 본래 지도군 하의면의 지역으로서 언굴, 언동, 어은동, 어은, 어음리라 하였는데,<전남-신안군-하의면>

①9의 ‘어매도’는 달리 능산리라 했고, ②1의 능산리는 ②3의 ‘늘매’, ‘늘메섬’, ‘능메’, ‘어매도’라 했다.

②3 늘메 【마을】 → 능산리.<전남-신안군-하의면-능산리>

②4 늘메섬 【마을】 → 능산리.<상동>

②5 능메 【마을】 → 능산리.<상동>

②6 능산(陵山) 【마을】 → 능산리.<상동>

옛 지명에서 ‘어매’는 대개 어매(於賈)로 표기된다. ‘於’는 훈이 ‘늘’이고, ‘매, 메’는 물(水) 또는 山의 옛말이다. 그러기에 어매(於賈)는 고유어 지명이 ‘늘메’라 했지만, 이를 한자로 표기하려 해도 ‘늘’이라는 한자가 없기에 ‘늘’과 비슷한 한자인 ‘陵’을 빌어 대체적으로 ②6의 능산(陵山)처럼 표기한다.

한편 두 물이 합수하는 곳에는 어산동(漁山洞)이란 지명도 불린다.

②7 어산동(漁山洞) 【리】 본래 성주군 망성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풍산동, 어은동, 노포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어은과 풍산의 이름을 따서 어산동(리)이라 하여 월항면에 편입됨.<경북-성주군-월항면>

⑳의 어산동(漁山洞)은 이칭이 어은(漁隱), 어언, 어언골, 언동이라 한다.

㉔ 어은(漁隱)[어언, 언동]【마을】어산동 으뜸 마을.< 경북 성주군 월항면 어산동>

㉕ 어언【마을】→ 어은.<상동>

㉖ 어언골【골】어은 북쪽 골짜기.<상동>

㉗ 언동【마을】→ 어은.<상동>

㉔의 어은(漁隱)의 '漁'는 '고기 잡을 어'자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은(漁隱)이 “마을에 고기가 숨어 있다.”에서 유래되었다면 어은(漁隱)이라는 한자표기보다는 ‘어은(魚隱)이 더 적절하다. 조강봉(2000:211)의 『한국지명의 어원 연구』에 의하면 우리 지명에서 ‘어은’은 물줄기가 합류하는 특징을 소재로 ‘숨하다’를 뜻하는 옛말 ‘얼’에 ‘골’이 붙은 ‘얼골’이 ‘언골’>어은골’로 변한 지명이 많다 했다.



국토정보맵(25k, 1970) 매곡동(어매)

㉕의 ‘어언’은 ‘얼+골’에서 ‘언골’로 변한 ‘언’이 다소 길게 발음되어 불린 지명이고, ㉗의 ‘언동’은 ‘언’에 ‘동’(洞)이 붙어 파생된 지명으로 보이며, ㉖의 ‘어언골’은 ‘언→어언→어은’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지명인 듯하다. 이곳 어산리도 큰 물길이 합류하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 옛 선인들은 물길이 조금만 넓거나 깊어도 지금처럼 쉽게 다리를 놓지 못했다. 그러기에 곡식을 나르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에 물길을 멀리 돌아가서 건너야 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

이 있었기에 물길은 옛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되었고, 그러기에 이런 특징을 소재로 불린 지명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 국토정보맵(25k, 1970)을 보면 어매(於每) 마을 위쪽의 물길 주변에는 언뚝을 쌓은 표시가 있다. 이를 보면 어매(於每)는 물길의 합수에 연유해 불린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여긴다.

▣ 중외(中外)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조에 중외(中外) 마을이 있다.

- ① 중외동【마을】 광주시-북구-매곡동-하백 위쪽에 있는 마을.
- ② 하백(荷白)【마을】 광주시-북구-매곡동-매곡동에 있는 마을.

위 중외(中外) 마을은 한자의 자의(字義)처럼 무엇의 가운데에서 벗어난 바깥 마을로 인식하기 쉽다. 매곡동 중외(中外)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백년(78세)님은 중외(中外) 마을은 고유어 지명이 ‘중밭’으로 불렸고, 하백(荷白) 마을은 이칭이 ‘하밭’으로 불렸다 했다. ‘중밭’, ‘하밭’의 ‘밭’은 바깥으로 인식되어 ‘외’로 훈차 표기된 듯하다. 하지만 중밭(中外), 하밭(下外)은 무엇의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는 가능하지만, 무엇의 ‘아래의 바깥’은 어쩐지 어색하고, 또 가운데(中)와 아래(下)가 모두 바깥이라는 논리도 어색하다.



국토정보맵(1960년대) 중외, 하백

그런데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를 보면 이곳은 상촌(上村), 하촌(下村), 중밭(中田)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상촌(上村)과 하촌(下村)의 가운데에 중촌(中村)이 자리해야 할 것인데 하촌(下村), 상촌(上村), 중촌(中村)의 순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후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을



국토정보맵(1980년대) 중외, 하백

보면 중밭(中田)은 중외리(中外里)로 표기되었고, 그 왼편에는 백련리(白蓮里)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60-1970년대)을 보면 백련리(白蓮里)는 하백(荷白)으로 바뀌었으므로, 중외리(中外里)와 하백(荷白)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태규(78세)님은 1980년대 지도가 바르게 표기되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에는 중외동(中外洞)과 하백(荷白)이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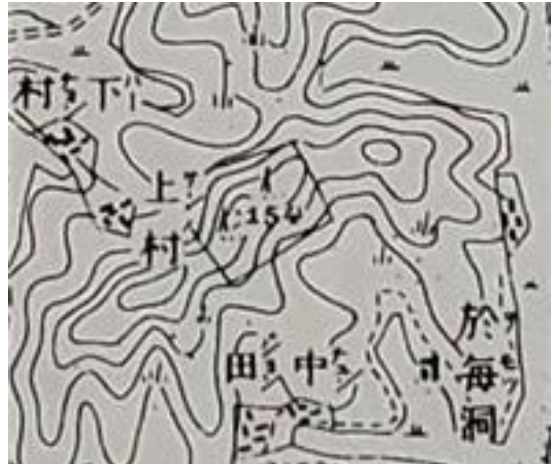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중외(中外)의 유래를 살펴보면

- ③ 중외산(中外山) 【마을】 → 중밧산.<북-청송군-현서면-갈천리>
- ④ 중외리(中外里) 【마을】 → 평지마.<경북-영주군-이산면-내림리>
- ⑤ 중외논 【논】 서밭텃이와 논동굴 사이 논.<충남-서천군-서천면-화금리>

③의 중외산(中外山)은 ‘중밧산’이라 했는데 ③-④에서 “상밧산과 하밧산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이는 무엇의 중간에 자리한 곳이라서 불렸을 것으로 짐작한다. ④와 ⑤의 중외리(中外里), 중외논은 그 연유를 알 수 없다.

- ⑥ 중밭골 【골】 윤림 남동쪽, 가운데 있는 골짜기.<전남-함평군-대동면-윤교리>
- ⑦ 중밭들 【들】 상금암 남쪽에 있는 들.<전북-옥구군-서수면-금암리>
- ⑧ 중밭등 【들】 부하 앞에 있는 들.<전남-강진군-작천면-내기리>
- ⑨ 중밭산[중밖산, 중외산] 【마을】 상밭산과 하밭산 중간 마을.<경북 청송군 현서면 갈천리>
 - ㉠ 상밭산 [상밖산 상외산] 【마을】 밧산 위쪽 마을.<상동>
 - ㉡ 소산(所山) 【마을】 → 밧산.<상동>
 - ㉢ 밧산[밖산, 외산, 소산] 【마을】 갈내 남동쪽 마을. 상, 중, 하 3마을로 나뉨.<상동>

⑥-⑧의 ‘중밭골’, ‘중밭들’, ‘중밭등’은 무엇의 기준으로 ‘중밭’이라 불렸는지 알 수 없다. ⑨의 ‘중밭산’은 “상밭산과 하밭산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했고, ⑨-㉠의 ‘상밭산’은 ‘상밖산’이라 하면서 “밧산 위쪽 마을”이라 했는데 ⑨-㉡에서 ‘밧산’은 한자로 소산(所山)으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所’의 훈이 ‘밭’이기 때문일 것이나 타당하지 않은 듯 하며, ⑨-㉢에서 ‘밧산’은 상, 중, 하 3마을로 나뉜다 했으나 ‘중밭산’은 이칭이 ‘중외산’이라 했으므로 ‘밧’은 ‘밖’(外)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밭’(田)에서 연유한 지명이 아닐까 한다.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 상촌,하촌 중전

아울러 이곳 광주의 중외리(中外里)도 『구한말한반도지형도』(1895년)에 하촌(下村), 상촌(上村), 중전(中田)으로 표기되었고, 이후 중외(中外)로 바뀌었으니 ‘중밭’은 ‘중밭’(中田)에 연유한 지명이 아닐까 한다.

▣ 하백(荷白), 백련(白蓮)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조에 하백(荷白) 마을이 있다.

- ① 하백(荷白).<『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
- ② 하백(荷白) 【마을】 광주시-북구-매곡동-매곡동에 있는 마을.
- ③ 백련동(白蓮洞) 【마을】 광주시-북구-매곡동-중외동과 하백에 걸쳐 있는 마을.

위 하백(荷白) 마을은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조의 하백(荷白)이다. 국토정보맵(1910년대)에는 하백(荷白) 마을은 백련리(白蓮里)로 표기되어 있고, 백련리(白蓮里) 동쪽에 중외(中外)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60-1970년대)을 보면 백련리(白蓮里)는 하백(荷白)으로 바뀌었고,



국토정보맵(25k, 1980) 중외, 하백(백련)

중외(中外) 마을과 하백(荷白) 즉 백련리(白蓮里)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즉 두 마을의 이름이 서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이후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과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에는 바르게 표기되었다. 이들 마을은 『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는 하촌, 상촌, 중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전(中田) 마을은 중외(中外) 마을이다. 하촌(下村) 마을은 지금의 하백(荷白) 즉 백련(白蓮) 마을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외(中外)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태규(80세)님과 한백년(80세)님은 중외(中外) 마을은 ‘중밭’으로 불렸으며, 하백(荷白) 마을은 ‘하밭’으로 불렀다 했다. ‘하밭’, ‘중밭’, ‘상밭’은 앞의 중전(中田)이란 마을처럼 ‘밭’(田)의 옛 표기인 ‘밭’으로 표기된 듯

하다. 중외(中外)는 ‘중밭’이 ‘중밭’으로 불림에 따라 ‘밭’은 ‘밭’의 방언이므로 한자로는 ‘외’를 빌어 표기된 듯하다. 예전에는 산지를 논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농기구와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토가 적었다. 중전(中田)은 이곳에 밭을 개간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된 이곳의 중심 마을인 중촌(中村)이며, 상촌(上村), 하촌(下村)은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 산지에 밭을 일구어 확장된 마을이다.

한편 ⑤의 백련동(白蓮洞)은 “중외동(中外洞)과 하백(荷白) 마을에 걸쳐 있는 마을.”이라 했다. 국토정보맵(1910년대)을 보면 백련동(白蓮洞)은 지금의 하백(荷白) 마을이다. 하백(荷白)의 ‘荷’는 훈이 연(蓮)이고, ‘白’은 ‘희다’이다. 그러므로 하백(荷白)과 백련(白蓮)은 모두 ‘흰 연꽃’을 뜻하므로 글자는 다르나 의미는 같은 촌명이다. 이 마을에서 살았던 한백년(80세)님은 마을의 유식한 사람들이 ‘하밭’을 하백(荷白)으로 고쳐 부르다가 이를 알기 쉬운 백련(白蓮)으로 바꾸어 불렀을 것이라 했다. 즉 ‘하밭’의 ‘하’를 ‘荷’로 바꾸고 ‘밭’은 음이 비슷한 ‘白’으로 바꾸어 촌명(村名)을 하백(荷白)으로 미화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荷’는 ‘상밭’, ‘중밭’, ‘하밭’의 상, 중, 하의 ‘下’와는 동떨어지게 되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농사짓기 위해서 천수답을 조금이라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을마다 연못을 파서 물을 저장해서 가뭄에 농업용수로 이용했다. 그 결과 마을 주변에 팠던 못에 연꽃을 심게 되면서 그 유래가 연못으로 인식되어 하(下)를 하(荷)와 음이 같은 연(蓮)을 취하여 백련(白蓮)으로 개칭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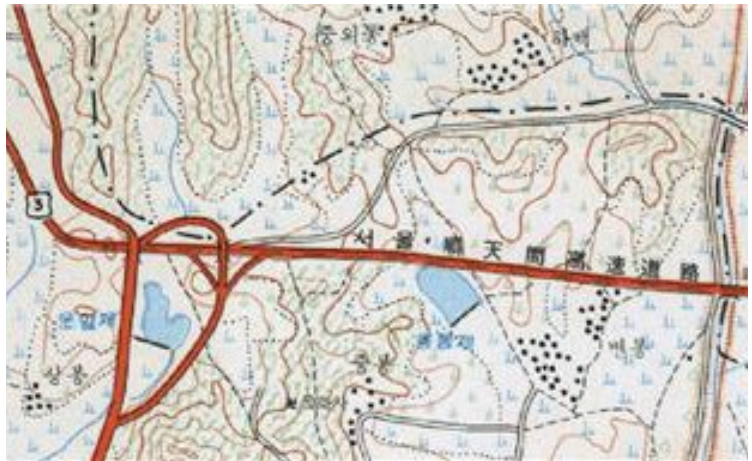
▣ 봉곡(鳳谷)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조에 봉곡(鳳谷) 마을이 있다.

- ① 적불(赤佛) <『호구총수』 광주군 동면 와지리>
- ② 봉곡(鳳谷) 【마을】 광주시-북구-용봉동-→ 저불.
- ③ 봉곡리(鳳谷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위 ①의 봉곡(鳳谷) 마을은 이칭이 ‘저불’이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적불(赤佛)이라 했다. 중봉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백년(80세)님은 저불(赤佛) 마을은 상봉, 중봉, 변봉 마을의 총칭이라 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을 보면 상봉, 중봉, 변봉 마을은 볼 수 없고 봉곡리(鳳谷里)만 볼 수 있다. 매곡동(梅谷洞)은 어매(於每) 마을과 봉곡(鳳谷)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딴 지명이다. 그러므로 상봉, 중봉, 변봉 세 마을은 봉곡(鳳谷)에서 분촌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한백년(80세)님은 상봉은 금파고등학교와 광주시립미술관, 경신중·고등학교 인근 마을이며 중봉 마을은 태봉초등학교에서 비엔날레 남쪽 마을이며, 변봉 마을은 비엔날레 동쪽에서 용주초등학교 방향의 마을이라 했다.

우리 옛 지명에서 ‘赤’자는 ‘새’로 읽히는 지명이다. 『삼국사기』(권7권 지리4)에 소비포현(所比浦縣)이 있다. 도수희(1999: 203)는 소비포현(所比浦縣)의 주성(主城)인 덕진산성(德津山城)의 옛 이름은 적오산성(赤烏山城)이었는데 이를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상봉, 중봉, 변봉

적오산성(赤山城)으로 적기도 하며, 이곳의 고유어 지명은 ‘새오개’이며, ‘새오개’는 ‘새고개’의 ㄱ 탈락형이라 했다. 그것은 해가 뜰 때 동쪽이 밝아 오는 것을 “날이 새다”라 한다. 이는 ‘붉다’를 뜻하는 ‘赤’이 ‘새’로 대응표기되는 이유이며 또 ‘새’는 ‘鳳’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봉곡(鳳谷)의 ‘鳳’은 ‘봉황’을 뜻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봉황이나 까치, 참새, 두루미 등 모든 새는 구분하지 않고 통칭 ‘새’라 했다. 이런 점에서 봉곡(鳳谷)의 봉(鳳)은 ‘새’라는 음을 표기한 지명어라 여겨진다.

▣ 한천(寒泉)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조에 한천(寒泉) 마을이 있다.

① 참시암골 【골】 광주시-북구-매곡동-중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참시암이 있음.

위 한천(寒泉) 마을은 “중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참시암이 있음”이라 했으니 ‘참시암골’을 한자로 표기한 훈차지명이다. 그러므로 한천(寒泉)은 아마도 물맛이 좋고 시원한 좋은 샘이 있었기에 붙인 지명이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10-1990년대)에는 한천(寒泉) 마을은 볼 수 없다. 아마도 예전에 몇 가옥이 존재했다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 큰까끔(큰봉)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매곡동조에 큰까끔(큰봉) 산이 있다.

① 큰까끔[큰봉] 【산】 광주시-북구-매곡동-중외동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120m. 근처에서 가장 큼.

② 큰봉 【산】 광주시-북구-매곡동-> 큰까끔.

위 큰까끔은 달리 큰봉이라 불리는데 “중외동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120m. 근처에서 가장 큼.”이라 했다. 이곳을 국토정보맵(1960년대)에서 확인해 보면 내촌(內村) 마을과 그 남쪽 하백 마을 북쪽의 표고가 100m로 표기된 산이 아닐까 한다. 우리말에 ‘말림갯’이란 말이 있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땅”이라 했다, 이는 보면 ‘큰까끔’의 ‘까끔’은 ‘갯’에서 변음된 어형이라 여긴다.

15. 오치동(梧峙洞)

1) 연혁

- ① 상신촌(上新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洞面)-와지리(蛙只里)>
- ②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오치면(梧峙面)의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오치리(梧峙里)>
- ④ 오치동(梧峙洞) [머구재, 오치] 【동】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으로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를 병합하여 오치리(梧峙里)라 해서 서방면(瑞坊面)에 편입되었는데,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서산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이때 광산군 서방면 오치리가 되었다.
- ⑥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⑧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瑞坊面)의 11개리(풍향, 중흥, 우산, 두암, 각화, 문흥, 오치, 삼각, 매곡, 용봉, 신안)과 극락면의 8개리(유촌, 덕흥, 치평, 쌍촌, 내방, 화정, 운암, 동림), 효지면 15리(진월, 노대, 덕남, 행암, 임암, 송하, 주월, 봉선, 용산, 소태, 월남, 내남, 선교, 용연, 운림)과 석곡면 5개리(망월, 화암, 청풍 장등, 운정)를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풍향출장소는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

⑨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39개동)과 4개 출장소를 둘 때 본청직할 서산동(瑞山洞) 관할 삼각동(三角洞), 오치동(悟峙洞), 매곡동(梅谷洞)이 되었다.

⑩ 1961. 3. 10. 광주시에서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함에 따라 서산동(瑞山洞) 관할 오치동(悟峙洞)이 되었다.

* 북부출장소는 행정동으로 효죽동(우산, 풍향, 중흥), 문화동(문흥, 각화, 두암), 서산동(오치, 삼각, 매곡)을 두었다.

⑪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구제(區制) 실시로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됨에 따라 동구(東區) 서산동(瑞山洞) 관할 오치동(悟峙洞)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

⑫ 1979. 9. 26. 대통령령 제6544호에 의거 ○○洞 1區 명칭을 ○○洞 1洞으로 고침.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설치됨에 따라 북구(北區) 서산동(瑞山洞) 관할 오치동(悟峙洞)이 되었다.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인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석곡출장소 관할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이전의 석곡출장소와 지산출장소는 폐지)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기에 광주직할시 북구 서산동(瑞山洞) 관할 오치동(悟峙洞)이 되었다.

⑮ 1991. 4. 15. 광주직할시 북구의회가 개원되었다.

- ⑩ 1994. 7. 1. 북구 서산동(瑞山洞)에서 오치동(梧峙洞)이 분동되었다.
- ⑪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⑫ 1997. 3. 1. 북구 오치동(梧峙洞)이 오치(梧峙)1동과 오치2동으로 분동되었다.
(우치로를 중심으로 동편이 오치1동이고, 서편이 오치2동이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오치(梧峙)

- ① 상신촌(上新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와지리(蛙只里)>
- ②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 ③ 오치면(梧峙面)의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오치리(梧峙里)>
- ④ 오치동(梧峙洞)은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지역으로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 하였는데,><『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오치(梧峙)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洞面) 와지리(蛙只里) 지역의 상신촌(上新村) 지역이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오치면(梧峙面)의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 지역이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오치리(梧峙里)는 옛 오치면(梧峙面)의 상촌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오치

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일부를 합한 지역이라 했다. 그러기에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오치동(梧峙洞)조에서 “본래 광주군 오치면(梧峙面) 지역으로서 머구재 밑이 되므로 머구재 또는 오치(梧峙)라고 불렀다.” 했다.

그러면 와지리(蛙只里)는 어떤 연유 불렸으며 어떤 연유로 오치면(梧峙面)으로 바뀌었을까? 옛날 한자의 훈(字釋)이 적혀 있는 『훈몽자회』에서 ‘蛙’의 훈(字釋)을 보면

- *蛙 : 머구·리와俗呼水蛙, 又田雞(동경대본훈몽자회)
- 머구·리와俗呼水蛙, 又田雞(존경대본훈몽자회)

이라 하여 와(蛙)는 훈이 ‘머구리’라 했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옛글)에서 ‘머구리’의 풀이를 보면

- *머구리1: 《동물》 → 매기
- *머구리5: 《동물》 ① → 올챙이, ② → 개구리.
- *머구리-밥 : 《식물》 → 개구리밥.
- *머구리-알 : 《식물》 → 개구리알.(평북)

이라 하여 ‘머구리’는 매기, 올챙이, 개구리 등의 의미라 했다.

그리고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머구’, ‘머구나무’, ‘머귀나무’의 풀이를 살펴보면

- *머구 : 머위의 경남, 전남방언, 머루의 경남방언, 모기의 경상방언.
- *머구나무 : → 머귀나무.(경상)
- *머귀나무 :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 *오동나무 : 현상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

이라 하여 ‘머구’는 ‘머위’의 경상, 전라방언이라 했고, 또 ‘머구나무’는 경상도에서는 ‘머귀나무’로도 불리는데, 머귀나무는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이며 오동나무는 현상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로 다른 나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와지면(蛙只面)이 오치면(梧峙面)으로 바뀌었을까?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옛말)에서 ‘머귀’의 풀이를 보면

* 머귀 : 머귀나무. 예) 梧桐은 머귀라 榭歡樹 | 梧桐 고희나라<월석 7:54-1>

이라 하여 ‘머귀나무’는 오동(梧桐)나무라 했고, 옛 한자 학습서인 『천자문』, 『훈몽자회』, 『유합』에서 ‘梧’의 훈을 보면

* 梧 : 머·귀·오(예산본훈몽자회)

머귀오(광주판천자문)

머귀오(나손본신증유합)

이라 하여 ‘머귀’라 했다. 그러기에 『한국지명총람』 광주시-북구-오치동조에서

⑤ 오치2(梧峙) 【고개】 광주시-북구-오치동- → 머구재2.

⑥ 머구재1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 오치동.

⑦ 머구재2[오치] 【고개】 광주시-북구-오치동-오치 남쪽에 있는 고개. 머구나무 즉 머귀나무가 있었음.

이라 하여 ⑤의 오치(梧峙)의 고유어 지명이 ‘머구재’라 했고, ⑦에서 ‘머구재’는 오치(梧峙)라 하여 “머구나무 즉 머귀나무가 있었음”이라 한 듯하다.

다시 말하면 와(蛙)는 훈이 ‘머구리’인데 ‘머구리’는 매기, 올챙이, 개구리를 뜻하지만 ‘머구’

는 ‘머위’의 경상, 전라방언이지만, ‘머귀나무’는 경상도에서는 ‘머귀나무’로도 불리며, 우리 옛말에 ‘머귀나무’는 오동(梧桐)나무라 했으므로, ‘梧’의 훈이 ‘머귀’이므로 와지(蛙只)의 고유어 지명 ‘머귀재’가 오치(梧峙)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와지(蛙只)의 ‘只’는 어떨까? 장삼식 『大漢韓辭典』에서 ‘只’의 자석(字釋)을 보면

* 只 : 다만지(但也), 말을그칠지(語已辭)

이라 했으니 ‘다만’, ‘말그치다’ 등의 뜻이라 했으나,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洞面)조의 와지리(蛙只里)의 ‘只’는 위의 ‘다만’이나 ‘말을 그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삼국사기』(지리3)의 옛 지명에서 ‘只’의 쓰임을 살펴보면

* 燕岐縣 本百濟豆仍只縣.(지리3)

* 多岐縣 本百濟多只縣縣.(지리3)

이라 했으니 두내지현(豆仍只縣)과 개칭지명 연기현(燕岐縣)을 비교하면 ‘只’가 ‘岐’로 대응하여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수희(1994:116)는 ‘岐’는 ki(동국정운, 사성통해, 훈몽자회)라 했고, ‘只’는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향약채취월령』에 ‘ki’로 음차 표기되었으며, 이두(吏讀)에서도 한결같이 ‘ki’로 읽히는 것이라 했다. 이를 보면 只’의 옛음은 ‘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蛙’의 훈이 ‘머귀리’라 했고, 앞에서 두내지현(豆仍只縣)의 ‘只’의 옛음이 ‘기’였고, ‘머귀’가 ‘머귀나무’로도 불리며 또한 와지리(蛙只里)가 오치면(梧峙面)으로 바뀌었고, 『천자문』, 『훈몽자회』, 『유합』에 ‘梧’의 훈이 ‘머귀’라 했고,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옛말)에 『월인석보』(7:54-1)에서 “梧桐은 머귀라”이라 하여 ‘머귀나무’가 ‘오동나무’라 했으니, 이

를 보면 ‘蛙’의 훈이 ‘머구리’이지만 ‘蛙’에 ‘只’를 붙여 ‘蛙只’로 표기한 까닭은 ‘머구리’가 아닌 ‘머귀’를 표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즉 와지(蛙只)는 ‘머구리’의 ‘머구’에 ‘-기’가 붙은 ‘머구+기’머귀’를 표기한 것이며, 그러기에 와지(蛙只)는 ‘머귀’에서 연유한 지명이며, 그러기에 후속 지명이 오치(梧峙)로 바뀌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치(梧峙)는 고유어 지명이 ‘머구재’라 했고 ‘오동나무가 서 있는 고개’라 했으니 이는 와지리(蛙只里)의 ‘蛙’의 훈이 ‘머구리’이지만 ‘머구나무’는 오동(梧桐)나무를 뜻하는 ‘머귀나무’와도 통하므로 와지(蛙只)의 후속지명이 오치(梧峙)로 불렸을 것이다.

▣ 신촌(新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오치동조에 신촌(新村) 마을이 있다.

- ① 신촌(新村)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새터.
- ② 새터 [신기, 신촌]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오치 북쪽에 새로 된 마을.
- ③ 신기(新基)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새터.
- ④ 신오치(新梧峙)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신기 서남쪽, 길가에 새로 된 마을.

신촌(新村) 마을은 ‘새터’ 또는 신기(新基)라 불리며,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면서 불리는 촌명이다. 국토정보맵(50k, 1970년대)을 보면 오치(梧峙) 마을 북쪽에 신촌(新村) 마을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신촌(新村) 마을 서남쪽에 신오치(新梧峙)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국토정보맵(25k, 1970년대) 오치동(신촌)

▣ 박야(박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오치동조에 박야(박들) 마을이 있다.

- ① 박야1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박들1.
- ② 박들1 [박야]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차독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 땅이 메마름. 박씨가 많이 살았다 함.
- ③ 박들2 [박야] 【들】 광주시-북구-오치동-박들 옆에 있는 들.
- ④ 차독고개 【고개】 광주시-북구-오치동-오치 북쪽에서 박들로 가는 고개. 차독(차돌)이 많음.

위 ‘박야’ 마을은 이칭이 ‘박들’이다. 위에서 ‘박들’은 “차독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 땅이 메마름. 박씨가 많이 살았다 함.”이라 했고, 이곳에는 ‘박들’이란 들과 ‘차독고개’가 있다 했다. 이를 보면 ‘박야’는 ‘차돌’이 박혀 있었기에 ‘박다’의 어근 ‘박’에 ‘돌’이 붙은 ‘박+들’이었을 것이며, 마을 이름이 ‘박들’로 불린 까닭은 ‘돌이 박혀 있는 들’이라는 뜻에서 불린 촌명이지만 ‘박+들’을 ‘들’을 한자로 ‘野’로 표기하면서 ‘박+야(野)’로 바뀌었을 것이다.



국토정보맵(50k, 1970년대) 오치동 박야(박들)

한편 국토정보맵(1960년대)을 보면 ‘박야’ 마을은 가옥들이 많은 것처럼 검은 네모 점들이 여럿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정보맵(1970년대)을 보면 마을을 표시한 검은 점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는 가옥이 한두 채에 불과 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토정보맵(1960년대)에

는 『호구총수』에 기록된 오치(梧峙) 마을보다도 더 가옥들이 많은 듯 검은 네모 점이 많이 찍혀 있다. 그것은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지도제작을 할 때 열악한 재정과 인력,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 황계머리(黃鷄-)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오치동조에 황계머리(黃鷄-) 마을이 있다.

- ① 황계머리(黃鷄-)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오치 서쪽에 있는 마을.
- ② 매머리1 【마을】 광주시-북구-오치동- 오치 남쪽,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
- ③ 매머리2 【들】 광주시-북구-오치동-→ 매머릿들.
- ④ 매머릿들 [매머리] 【들】 광주시-북구-오치동-매머리 곁에 있는 들.

위 황계머리(黃鷄-)는 국토정보맵(1960년대) 이후의 여러 지도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지명총람』에는 ‘매머리’ 마을과 ‘매머리’ 들이 기록되어 있다. 위 황계머리(黃鷄-)는 “오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고, ‘매머리’는 “오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이를 보면 오치(梧峙) 마을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서는 황계(黃鷄)머리 마을이, 남쪽에는 매머리란 마을이 불리는 듯하다.

그러나 황계머리(黃鷄-)는 ‘황새머리’에서 연유한 지명이다. ‘黃’의 훈은 ‘누르다’이고, ‘鷄’의 훈은 ‘닭’이다. 하지만, 옛 지명에서 ‘鷄’는 ‘새’의 일종이므로 대개 ‘새’를 차자 표기한 어사다. 이곳 ‘매머리’도 마을과 들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는 ‘매’라는 ‘새’에서 황계(黃鷄)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16. 일곡동(日谷洞)

1) 연혁

- ① 일곡촌(一谷村),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석제리(石堤里)>
- ② 일곡리(日谷里), 일동리(日洞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석제면(石堤面)의 일곡리(日谷里)와 일동리(日洞里)를 합한 지역.<『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 ④ 일곡동(日谷洞) [일곡] 【동】 본래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지역으로서 일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일동리(日洞里)를 병합하여 일곡리(日谷里)라 해서 본촌면(本村面)(지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본촌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2. 11. 1. 전라남도령 제20호(1932. 1. 0 20.)에 의거 광주군 본촌면(本村面)과 우치면(牛峙面)이 병합되어 지산면(芝山面)이 되었다.
- ⑥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따라서 광산군(光山郡) 지산면(芝山面) 관할은 본촌리(本村里), 용두리(龍頭里), 지야리(芝野里), 신용리(臣龍里), 연제리(蓮堤里), 양산리(陽山里), 일곡리(日谷里)가 되었다.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를 광주시로 개칭하였다.
- ⑧ 1957. 11. 6. 법률 제454호(1957. 11. 6.)에 의거 광산군의 지산면(芝山面)(16리)을 비롯하여 대촌면(15리), 서창면(송대 제외 8리)과 담양군 남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광주시에 편입됨에 광주시 지산면(芝山面) 일곡동(日谷洞)이 되었다.
- ⑨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석곡

출장소(충효·청옥·장운),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서창출장소(서호, 방하, 신호), 대촌출장소(송석, 등룡, 학승)의 4개 출장소를 둘 때 지산출장소(芝山出張所) 아래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을 두고 아래와 같은 법정동을 관할했다.<광주시사>

* 지산출장소 관할 3개 행정동에 따른 법정동은 다음과 같다.

본촌동(本村洞): 본촌동, 용두동, 지야동, 신용동, 연제동, 양산동, 일곡동.

우치동(牛峙洞) :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룡동.

삼소동(三所洞) : 대촌동, 오룡동, 월산동.

⑩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산출장소는 행정동인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을 두었고, 행정동인 본촌동(本村洞)은 법정동인 본촌동, 용두동, 지야동, 신용동, 연제동, 양산동, 일곡동을 관할했다.<광주시사>

⑪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어 따라 서구(西區) 지산출장소(芝山出張所) 아래 본촌동(本村洞) 관할 일곡동이 되었다.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53동)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 서구(西區)(46동)

⑫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 설치됨에 광주시 북구 본촌동(本村洞) 관할 일곡동(日谷洞)이 되었다.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

⑬ 1980. 4. 1.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 ⑮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⑯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촌동(本村洞) 관할 일곡동(日谷洞)이 되었다.
- ⑰ 1998. 9. 21.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은 건국동(建國洞)이 됨에 따라 건국동(建國洞) 관할 일곡동(日谷洞)이 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일곡(日谷)

- ① 일곡촌(一谷村),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석제리(石堤里)>
- ② 일곡리(日谷里), 일동리(日洞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석제면(石堤面)의 일곡리(日谷里)와 일동리(日洞里)를 합한 지역.<『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위 일곡(日谷)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석제리(石堤里)조에 일곡촌(一谷村)이라 하였으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조에 일곡리(日谷里)로 바뀌었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조에 일곡리(日谷里)라 하였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에서 일곡리(日谷里), 일동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 일곡리

리(日洞里) 지역을 살펴보면 양산동, 서산동, 본촌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일곡촌(一谷村)이라 했고,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에는 일곡리(日谷里)라 했다.

그렇다면 일곡리(日谷里)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일곡(日谷)을 살펴보면

④ 일곡(日谷) 【마을】 강원도-횡성군-우천면-조곡리-→ 날골.

⑤ 일곡(日谷) 【마을】 강원도-영월군-영월읍-방절리- → 날골.

⑥ 일골 【마을】 강원도-영월군-영월읍-방절리- → 날골.

⑦ 일곡리(日谷里) [낫실, 일곡] 【리】 경북-청도군-각남면-본래 청도군 내서면 지역으로서 낫실, 또는 일곡이라 하였는데,

④-⑦의 일곡(日谷)은 모두 ‘日’과 ‘谷’의 훈에 따라 고유어 지명이 ‘날골’이라 했고, 아래 ⑧-⑨의 일곡(日谷)은 이칭을 ‘일골’이라 했다.

⑧ 일곡(日谷) 【골】 경북-울진군-울진면-후정리- → 일골.

⑨ 일곡동(日谷洞) 【마을】 충북-제천군-송학면-장곡리- → 일골.

하지만 이곳 위 ①의 일곡동(日谷洞)은 『호구총수』에 일곡(日谷)이 아닌 일곡(一谷)이라 했다. 그렇다면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일곡(一谷)으로 불리는 지명의 유래는 어떠할까?

⑩ 일곡(一谷) 【마을】 → 송골.<강원-원성군-호저면-고산리>

① 송골[송동, 한일, 일곡] 【마을】 고산 서쪽 산속에 마을.<상동>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 일곡, 일동

⑩의 일곡(一谷)은 고유어 지명이 ‘송골’이라 했고, ⑩-㉠에서 ‘송골’은 이칭이 ‘송동’, ‘한일’, ‘일곡’이라 했다. 즉 일곡(一谷)의 ‘一’은 훈이 ‘하나’이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를 뜻하는 듯하지만 음으로 읽으면 ‘일’이 되므로, 지명에서 일곡(一谷)의 고유어 지명 ‘한일’의 ‘한’은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를 뜻하는 어사이다. 그리고 일곡(一谷)의 고유어 지명 ‘한일’의 ‘일’은 ‘谷’의 옛말 ‘실’의 ‘스’음이 탈락한 어사이다.

옛 지명 자료 『삼국유사』(권3)에 “絲浦今蔚州谷浦也”가 있다. 사포(絲浦의 ‘絲’는 훈이 ‘실’이기에 이를 ‘谷’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谷’의 옛 훈이 ‘실’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호국총서』에 일곡촌(一谷村)이라 했다. 일곡(一谷)의 고유어 지명은 본래 ‘한실’이다. ‘한실’을 일곡(一谷)으로 훈차 표기한 지명인데 ‘一’을 음이 같은 ‘日’로 바꾸어 일곡(一谷)으로 바뀌었다. 즉 ‘한실’의 ‘한’은 본래 ‘크다’(大)를 뜻하고 ‘실’은 골짜기를 뜻하는 어사인데 ‘한’이 ‘크다’는 뜻임을 잊고 이 ‘한’과 훈의 음이 같은 ‘一’로 표기함으로써 일곡(一谷)으로 바뀐 것을 다시 음이 같은 일곡(日谷)으로 바꾼 것이다.

▣ 일동리(日洞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일동리(日洞里)가 있다.

- ① 일곡촌(一谷村),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석제리(石堤里)>
- ② 일곡리(日谷里), 일동리(日洞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석제면(石堤面)의 일곡리(日谷里)와 일동리(日洞里)를 합한 지역.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

위 일동(日洞)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東面) 석제리(石堤里)조에 일곡촌(一谷村)이라 하였으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조에 일곡리(日谷里), 일동리(日洞里)라 했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는 일곡리(日谷里)와 일동리(日洞里)를 합한 지역이라 하였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일곡동(日谷洞)은 일곡리(日谷里)와 일동리(日洞里)를 합한 동이라 하였다.



국토정보맵(25k, 1960년대) 일곡, 일동

그렇다면 일동리(日洞里)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국토정보맵(50k, 1910년대)을 보면 일동리(日洞里)는 볼 수 없고 일곡리(日谷里)만 볼 수 있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를 보아도 일동(日洞)은 없고 일곡촌(一谷村)만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일동리(日洞里)는 일곡리(日谷里)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분촌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동리(日洞里)는 일곡리(日谷里)의 일(日)에 곡(谷)이 아닌 동(洞)을 붙인 마을임을 알 수 있다.

17. 양산동(陽山洞)

1) 연혁

- ① 양지리(陽池里), 내촌리(內村里).<『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석제(리石堤里)>
- ② 양지리(陽池里), 내촌리(內村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석제면(石堤面) 양지리(陽池里), 내촌리(內村里)와 갑마보면(甲馬保面)의 거하리(巨下里) 일부.<『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양산리(陽山里)>
- ④ 양산동(陽山洞)은 본래 광주군 석제면(石堤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양지리(陽池里), 내촌리(內村里)와 갑마보면(甲馬保面)의 거하리(巨下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양산리(陽山里)라 해서 본촌면(本村面)(지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광주시에 편입되어 본촌동회의 관할이 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⑤ 1932. 11. 1. 도령(道令) 제20호(1932. 10. 20.)에 의거 광주군 본촌면(本村面)과 우치면(牛峙面)이 병합되어 지산면(芝山面)이 되었다.
- ⑥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4. 28.)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읍(光州邑) 이외의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이에 따라 광산군(光山郡) 지산면(芝山面 양산리(陽山里)가 되었다.

- ⑦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로 개칭되었다.
- ⑧ 1957. 11. 6. 법률 제454호(1957. 11. 6.)에 의거 광산군의 지산면(芝山面)(16리), 대촌면(15리), 서창면(송대 제외 8리)과 담양군 남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광주시에 편입됨에 따라 광주시 지산면 양산동(陽山洞)이 되었다.
- ⑨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운영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 39개 동과 석곡출장소(충효·청옥·장운), 지산출장소(우치·본촌·삼소), 서창출장소(서호, 방하, 신호), 대촌출장소(송석, 등룡, 학승)의 4개 출장소를 둘 때 지산출장소(芝山出張所) 아래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을 두고 아래의 법정동을 관할했다.<광주시사>
- * 본촌동(本村洞) : 본촌동, 용두동, 지야동, 신용동, 연제동, 양산동, 일곡동
 - * 우치동(牛峙洞) : 태령동, 수속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룡동
 - * 삼소동(三所洞) : 대촌동, 옥룡동, 월산동
- ⑩ 1961. 3. 10. 광주시에서 4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를 실시했는데, 지산출장소는 행정동인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을 두었는데, 본촌동(本村洞) 관할 양산동(陽山洞)이 되었다.<광주시사>
- ⑪ 1973. 7. 1. 대통령령 제6544호(1973. 3. 12.)에 의거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동구(東區)와 서구(西區)로 나뉘었다.
-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 동구(東區)(53동)
 - * 남부, 서부, 지산출장소 → 서구(西區)(46동)
- ⑫ 1973. 7. 1. 광주시 조례 제540호(1973. 6. 12.)에 의거 지산출장소, 석곡출장소를 두었다. 따라서 지산출장소 아래 본촌동 관할 신용동이 되었다.

- ⑬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북구(北區)가 설치됨에 따라 북구 본촌동(本村洞) 관할 양산동(陽山洞)이 되었다.
- * 북구(北區) 관할은 동구(東區) 관할이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이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이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이 포함되었다.(지산, 석곡출장소 폐지)
- ⑭ 1986. 11. 1. 법률 제3808호((1986. 5. 8)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광주직할시 북구 본촌동 관할 양산동(陽山洞)이 되었다.
- ⑮ 1991. 4.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 ⑯ 1995. 1. 1. 광주직할시가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
- ⑰ 1998. 9. 21. 북구 본촌동(本村洞), 우치동(牛峙洞), 삼소동(三所洞)이 건국동(建國洞)이 되었다.
- ⑱ 2013. 3. 18. 북구 건국동(建國洞)은 건국동(建國洞)과 양산동(陽山洞)으로 나뉘었다.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양지(陽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양산동조에 양지(陽池) 마을이 있다.

- ① 양지(陽池).<『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석제리(石堤里)>
- ② 양지리(陽池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양지리(陽地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 ④ 양지(陽地, 陽池) 【마을】 광주시-북구-양산동-양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양지쪽임.

위 양지(陽池) 마을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석제리조에 양지(陽池)로 마을이고, 1912년에 편찬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조에 양지리(陽池里) 마을이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本村面)조에 양산리(陽地里)로 바뀌었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양산동조에 양지(陽池), 양지(陽地)로 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정보맵(50k 1970) 양산동 양지(良池)

고 ④에서 양지(陽地, 陽池)는 ”양지쪽임“이라 했으니 선인들은 ‘陽’자에 이끌려 양지(陽地)로도 인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양지(陽池)는 어떤 연유로 불렸을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양지’를 보면 모두 한자 표기가 양지(陽地)로 나타난다. 다만 양지(陽池)는 아래 ③의 양지(良池)와 ④의 양지평(陽池坪)만을 볼 수 있다. 먼저 양지(良池)를 살펴보면

- ⑤ 양지리(良池里) 【리】 본래 나주군 곡강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지내촌(池內村), 수량리(水楊里), 시중리, 지동을 병합하여 수량과 지내의 이름을 따서 양지리라 하여 동강면에 편입됨.<전남-나주군-동강면>
- ㉠ 지내(池內) 【마을】 → 모산개1.<전남-나주군-동강면-양지리>
- ㉡ 모산개1[지내] 【마을】 양지리 으뜸 마을. 선화제 안쪽으로 내가 흐름.<상동>
- ㉢ 모산개2 【내】 지내 앞으로 흘러 신설포 윗쪽에서 강으로 유입하는 내.<상동>

⑤의 양지(良池)는 본래 나주군 곡강면의 지역인데 지내촌(池內村), 수량리(水楊里)의 이

름을 따서 양지리(良池里)로 불렀다. 현행 카카오지도(<https://map.kakao.com/>, 2023. 3. 12. 접속)에서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면 양지리(良池里) 양지(良池) 마을에는 송암제를 볼 수 있고 수량(水楊) 마을은 연못가의 수양버들이 있었기에 불린 듯하다. 그리고 ⑤-㉠,㉡의 지내(池內) 마을과 ⑤-㉢,㉣의 모산개1, 2는 못안(못안>모산)에서 변한 지명일 것이므로 양지(良池)는 양지(楊池)라는 연못의 수양버들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지평(陽池坪)은 어떠할까?

⑥ 양지평(陽池坪) 【마을】 장순리 으뜸 마을.<전북-정읍군-정우면-장순리>

㉠ 장순리(長順里) 【리】 본래 고부군 장수면(長水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내리, 신기리, 양지리, 내장리, 후복리와 외장리, 천덕리, 망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수면의 소재지였으므로 장순리라 해서 정읍군 우순면(雨順面)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정우면에 편입됨.<전북-정읍군-정우면>

⑥의 양지평(陽池坪)은 『호구총수』에 양지리(陽地里)라 했고, 1896년 개편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전북 고부군 장수면(長順面)조에 양지리(良池里)라 했다. 그리고 1914년 개편된 『신구대조 조선부군면리동명칭일람』 전북 정읍군 우순면(雨順面) 장순리(長順里)조를 보면 고부군 장수면(長順面) 양지리(良



토정보매(25k, 1970년) 정우면 장순리 양지평

地里)를 병합한 곳이라 했다. 국토정보매(25k, 1970년) 전북 정읍군 정우면 장순리 양지평 지역을 살펴보면 ‘솔안’ 마을 옆에 송내지(松內池)는 6,000평이라 했다. 이 물은 양지평으로 흘

러내리고 있다. 이를 보면 양지평(陽池坪)은 『호구총수』 시대에는 양지리(陽地里)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못(池)에 연유해 양지평(陽池坪)으로 불렸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 위 ①의 양지(陽池) 마을도 국토정보맵(1970-1980년대)에 양지(陽池) 마을의 남쪽에 양산제를 볼 수 있고, 현재 이곳에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양산호수공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곳 양지(陽地, 陽池) 마을은 저수지에 의해서 불린 지명임을 알 수 있다.

▣ 내촌(內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양산동조에 내촌(內村) 마을을 볼 수 있다.

- ① 내촌(內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석제리(石堤里)>
- ② 내촌리(內村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
- ③ 내촌리(內村里).<『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 양산리>
- ④ 내촌(內村) [안들메] 【마을】 광주시-북구-양산동-양산동에 있는 마을. 연제동의 들메 안쪽이 됨.<『한국지명총람』>
- ⑤ 안들메 【마을】 광주시-북구-양산동-> 내촌.

위 내촌(內村)은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석제리(石堤里)조에 내촌(內村)이라 하였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석제면(石堤面)조에 내촌리(內村里)라 했으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본촌면 양산리조에 내촌리(內村里)라 했다. 그리고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양산동조에 내촌(內村)은 고유어 지명이 ‘안들메’이며 “연제동의 들메 안쪽이 됨”이라 했다.

이곳 ‘들메’는 양지제(陽池堤)와 그 남쪽 조그만 야산과 그 서쪽 영산강 사이의 들을 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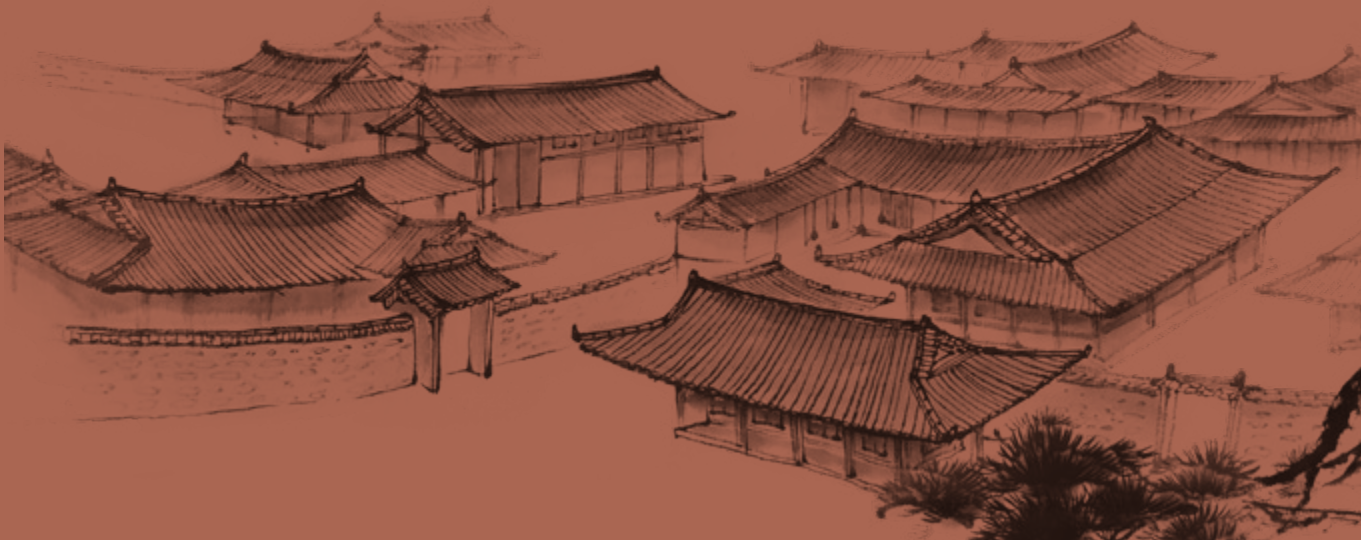
여 부르는 지명이다. 그러기에 내촌(內村)은 “연제동의 들메 안쪽”이라 했음을 볼 때 양지제(陽池堤)와 그 남쪽 조그만 야산의 서쪽 마을이 들의 안쪽이 되므로 내촌(內村)으로 불렸을 것이다. 국토정보맵(1970년대)을 보면 내촌과 외촌 사이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맵(1980년대)을 보면 내촌과 외촌의 넓은 들은 본촌공단이 되었다. 그러기에 내촌 마을은 외촌 북쪽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국토정보맵(25k, 1980년대) 양산동 내촌, 외촌

V

맺는말



V. 맺는말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의 동명과 마을명의 유래와 어원을 살펴보았다. 북구는 동구, 서구, 남구에 비교해 지역이 훨씬 넓다. 그러기에 북구의 유래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기에 이 책에서는 앞으로 제2권에 수록될 신용동, 석곡동, 건국동은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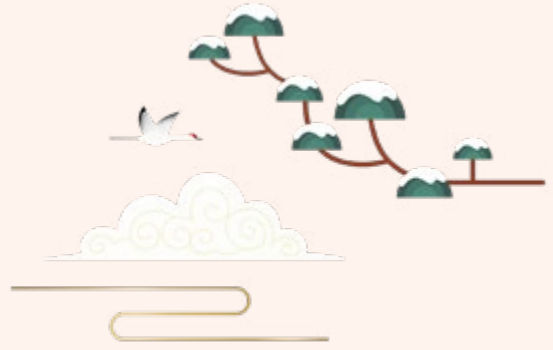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옛말은 음성은 사라졌으나 인명, 지명, 관직명에는 그 잔영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옛 지명이다. 우리 옛 지명은 옛 우리말로 불렸다. 하지만 이것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기에 한자로 표기된 것이 『삼국사기』(지리지)에 남아 있지만 대부분 삼국시대의 군현명(郡縣名)이다. 이들이 어떤 의미의 어사인지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삼국시대의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적(逆視的) 방법으로 근대나 현대 지명에 대한 탐구의 성과를 통해서 밝혀갈 수 있다. 그러기에 근, 현대 지명의 연구가 절실하다.

광주 북구의 지명을 깊이 연구한 저서는 없다. 그러기에 이전에 조상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구전 자료와 지금까지 조사되지 못한 구전 자료를 모아서 이를 토대로 우리 옛 지명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필자가 북구의 지명 유래와 어원을 살피면서 이전의 자료와 지역 주민들이 들려주는 증언과 국토정보맵의 옛 지도를 검색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비록 소략한 연구이지만 뒷사람들이 이를 징검다리 삼아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생각을 보탠다면 한국지명의 유래와 어원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믿는다. 동학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 김행 외,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I~VIII, 민족문화추진회. 1970.
- 김정호, 『대동지지』, 한양대학교국학연구실(영인본), 1976.
- 『戶口總數』(1789), 199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영인본)
- 조선총독부(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일람』. 1995, 태학사.(영인본)
- 월지유철(1917).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85. 태학사(영인본)
- 장삼식(1964), 『大漢韓辭典』, 성문사.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18권), 한글학회.
-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 『훈몽자회』, 『천자문』(1973), 『유합』(1972) 영인본.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 광주읍지도(1917)(광주민속역사박물관2층 전시실 게시),
- 조선총독부(1939), 『최신 광주시가도』(광주민속역사박물관2층 전시실 게시),
- 『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 김정호, 『광주동연혁지』, 향토문화진흥원, 광주광역시. 1991.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경양방죽과 태봉산』, 광주시. 2018.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 『광주북구지리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1997. 387쪽
- 광주광역시, 『사진으로 본 광주100년』, 광주직할시. 1989.114쪽.
- 『광주읍성』,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광주시.





- 김경수, 『광주 땅이야기』, 향지사, 2005, 88쪽.
-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출판부, 1986.
- 도수희, 『백제어연구』(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 도수희, 『백제어 연구』I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4. 116쪽.
- 도수희, 『한국지명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9, 205쪽.
- 박선홍, 『광주1백년②』, 금호문화, 1994. 232쪽
- 박영섭, 『초간본 두시언해 한자대역어 연구』, 박이정, 2000.
-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 유재영, 『전래 지명 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1982. 168쪽.
- 이승녕, 『韓國文化史大系』 9. 고대민족문화연구출판부, 1967. 334쪽
- 임영진,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2014. 18쪽.
- 장흥군·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 『장흥방촌』, 1994, 77쪽.
- 정상수웅, “조선성곽일람”, 『조선학보』 103집, 조선학회, 1982.
- 조강봉, 『한국지명의 어원 연구』, 태학사. 2020.
- 조강봉, 『광주 서구 마을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광주서구문화원. 2022.
- 조강봉, “nVrV계 지명에 대한 삼의(挿義)”, 『지명학』 제4호, 한국지명학회, 2000. 137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전라남도편) 1991, 147쪽
-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
- 다음 카카오지도(<https://map.kakao.com/>)
- 인터넷 나무위키(<https://namu.wiki/>, 2023. 5. 13. 접속)



광주 북구 마을이름의 유래와 어원 (1)

인 쇄 2024. 12. 29

발 행 일 2024. 12. 30

발 행 인 오동오

글 쓴 이 조강봉

자문위원 탁인석(위원장), 김종채, 김학휘, 조규철, 전고필

편 집 인 김희영

발 행 처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 65 (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4층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E-mail : moodri@daum.net

http : gjbukgu.or.kr

인 쇄 처 (주)다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우로 108 (도천동)

I S B N 979-11-987610-2-6

*이 책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습니다.

비매품/무료
03980



9 791198 761026
ISBN 979-11-987610-2-6